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보고서 -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onitoring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 Health Care Resources, Korea, 2009

오영호 · 신호성 · 도세록 · 손창균 · 조성익 · 문인홍 · 박대순
이난희 · 이충근 · 유기홍 · 김성철 · 박은미 · 양명재



연구보고서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오영호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09-8 93510

머리말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전달 체계를 포함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소득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비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건강 문제가 만성질환화되는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찰이 향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증대와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형평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이용과 보건의료자원분포의 조사·분석,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또한 전국 규모 및 지역 별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 그 추세 파악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궁

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보건의료자원공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건강과 의료이용의 계층 간 형평성을 확립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의료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보건의료서비스자원의 적정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보건의료 현실과 그 수요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 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 공급은 공급자 유인 수요 및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과소 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 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목표로, 보건의료자원의 조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당원 오영호 연구위원 책임하에 원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서 작성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유근춘 연구위원과 고경환 연구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31
제1절 조사의 배경	31
제2절 조사목적	32
제3절 조사의 법적 근거	33
제2장 조사 개요	37
제1절 추진 배경	37
제2절 조사 목적	37
제3절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38
1. 조사 대상	38
2. 조사 시점 및 기간	38
제4절 조사 내용	39
1. 전반적 내용	39
2. 일반 현황 및 시설 현황	39
3. 인력 현황	39
4. 의료장비 현황	39
5. 약국 현황 실태	39
제5절 조사 방법	40
제6절 조사 교육 및 조사 지도 방법	42
제7절 추진 일정	44

제3장 보건의료자원 조사결과	47
제1절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47
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	47
2. 지역별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	57
3. 지역별 진료과 분포	61
4. 지역별 병상분포	70
5. 지역별 인구대비 의료시설 분포	73
제2절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83
1.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83
2. 지역별 인구대비 보건의료인력	90
제3절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95
1.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분포	95
2. 지역별 인구대비 고가의료장비 분포	101
제4장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 분석	111
제1절 보건의료시설의 국제 비교	111
제2절 보건의료인력의 국제 비교	115
제3절 주요의료장비의 국제 비교	123
제5장 요약 및 정책 과제	141
제1절 요약	141
1. 지역별 보건의료시설현황	141
2.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143
3.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144
4.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145

제2절 정책 과제	146
1.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146
2.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 변화	147
3.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148
참고문헌	149
부 록	151

표 목차

〈표 3- 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1)	49
〈표 3- 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54
〈표 3- 3〉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약국 제외)	59
〈표 3- 4〉 의료기관 종별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약국 제외)	60
〈표 3- 5〉 병의원 진료과 현황	62
〈표 3- 6〉 지역별 병의원 진료과 현황	64
〈표 3- 7〉 치과병의원 진료과 현황	66
〈표 3- 8〉 지역별 치과병의원 진료과 현황	67
〈표 3- 9〉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현황	68
〈표 3-10〉 지역별 한방병의원 진료과 현황	69
〈표 3-11〉 지역별 병상 수 분포	71
〈표 3-12〉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분포	72
〈표 3-1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 의료기관 수	74
〈표 3-1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병의원 진료과 분포	78
〈표 3-1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치과병의원 진료과 분포	80
〈표 3-16〉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81
〈표 3-17〉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입원 병실 수 및 입원 병상 수 분포 ..	82
〈표 3-18〉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84
〈표 3-19〉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인력 현황	90
〈표 3-20〉 지역별 고가장비 현황	96
〈표 3-21〉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고가장비 현황	102
〈표 4- 1〉 OECD 국가의 급성 병상 수	112
〈표 4- 2〉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병상 수	114
〈표 4- 3〉 OECD 국가의 활동 의사 수	116
〈표 4- 4〉 OECD 국가의 활동 치과 의사 수	118

Contents

〈표 4- 5〉 OECD 국가의 활동 약사 수	120
〈표 4- 6〉 OECD 국가의 활동 간호사 수	122
〈표 4- 7〉 OECD 국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보유대수	124
〈표 4- 8〉 OECD 국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보유대수	126
〈표 4- 9〉 OECD 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128
〈표 4-10〉 OECD 국가의 방사선치료장비 보유대수	130
〈표 4-11〉 OECD 국가의 유방촬영장치 보유대수	132
〈표 4-12〉 OECD 국가의 감마카메라 보유대수	134
〈표 4-13〉 OECD 국가의 양전자단층촬영기 보유대수	136
〈표 4-14〉 OECD 국가의 혈관조영장치 보유대수	138

그림 목차

[그림 2- 1]	2009년도 국민보건자원공급 조사방법	40
[그림 3- 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47
[그림 3- 2]	지역별 병의원 분포	50
[그림 3- 3]	지역별 치과 병의원 분포	51
[그림 3- 4]	지역별 한방 병의원 분포	52
[그림 3- 5]	지역별 보건기관 분포	52
[그림 3- 6]	지역별 약국 분포	53
[그림 3- 7]	지역별 개인 설립 의료기관 분포	61
[그림 3- 8]	지역별 국공립 의료기관 분포	61
[그림 3- 9]	지역별 입원 병상 수	72
[그림 3-10]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73
[그림 3-11]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74
[그림 3-12]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병의원 현황	75
[그림 3-1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치과병의원 현황	75
[그림 3-1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의원 현황	76
[그림 3-1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기관 현황	76
[그림 3-16]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약국 현황	77
[그림 3-17]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입원 병상 수	82
[그림 3-18]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87
[그림 3-19]	지역별 치과의사인력 현황	88
[그림 3-20]	지역별 한의사 인력 현황	88
[그림 3-21]	지역별 간호사 인력 현황	89
[그림 3-22]	지역별 약사 인력 현황	89
[그림 3-2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의사인력 현황	92
[그림 3-2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한의사 인력 현황	93
[그림 3-2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치과의사인력 현황	93

[그림 3-26]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인력 현황	94
[그림 3-27]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약사인력 현황	94
[그림 3-28]	국내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	95
[그림 3-29]	지역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현황	97
[그림 3-30]	지역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현황	97
[그림 3-31]	지역별 양전자단층촬영기 현황	98
[그림 3-32]	지역별 체외충격파쇄석기 현황	98
[그림 3-33]	지역별 유방촬영장치 현황	99
[그림 3-34]	지역별 방사선치료장비 현황	99
[그림 3-35]	지역별 감마카메라 현황	100
[그림 3-36]	지역별 혈관조영장치 현황	100
[그림 3-37]	인구 10만 명 당 국내 고가장비 보유현황	101
[그림 3-38]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현황	102
[그림 3-39]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현황	103
[그림 3-40]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유방촬영장치 현황	104
[그림 3-41]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방사선치료장비 현황	105
[그림 3-42]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체외충격파쇄석기 현황	105
[그림 3-4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양전자단층촬영기 현황	106
[그림 3-4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감마카메라 현황	106
[그림 3-4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혈관조영장치 현황	107
[그림 4- 1]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급성 병상 수	111
[그림 4- 2]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장기 요양 병상 수	113
[그림 4- 3]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115
[그림 4- 4]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치과의사 수	117
[그림 4- 5]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약사 수	119
[그림 4- 6]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간호사 수	121

[그림 4- 7]	OECD국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보유대수	123
[그림 4- 8]	OECD국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보유대수	125
[그림 4- 9]	OECD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127
[그림 4-10]	OECD국가의 방사선치료장비 보유대수	129
[그림 4-11]	OECD국가의 유방촬영장치 보유대수	131
[그림 4-12]	OECD국가의 감마카메라 보유대수	133
[그림 4-13]	OECD국가의 양전자단층촬영기 보유대수	135
[그림 4-14]	OECD국가의 혈관조영장치 보유대수	137

A grey, ink-blot style graphic with the word "Abstract" written in a black, handwritten-style font in the center.

Abstract

Objectives

-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health care resource monitoring system aimed at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resource allocation

Methods

- Nationwide on-line survey based on the web system called HRSIC (Health Care Resources & Service Information Center)

Procedures

- To develop health care resources monitoring system
- To inform the public health centers and medical institutions to conduct a survey
- To conduct survey on health care institutions such as clinics and hospitals regarding health care resources
- To conduct a follow-up survey to increas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survey data
- To manage health care resources monitoring system and analyze the survey data

Results of the survey

- As of June 2009, the total number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orea, including pharmacies, reaches 80,161. The number of hospitals and clinics is 29,279, accounting for 36.5 % of the total number of health care institutions. There are 21,351 pharmacies nationwide, making up 26.6% of the total. The number of inpatient beds is 448,604.

- As of June 2009, 81,324 physicians, 20,474 dentists, 15,564 herb doctors, 124,025 qualified nurses, 115,981 assistant nurses and 32,071 pharmacists, including part-time employees, are working in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including drugstores.
- As of June 2009, the number of medical equipments in Korea is as follows: 402 ANGIOs; 334 gamma cameras; 77 PETs; 2,103 CTs scanner; 851 MRIs; 679 ESWLs; 1,567 mamographs; and 254 radiation therapy equipments.

□ Policy implications

- Supply regulations on acute and long-term care bed are needed. According to the bed supply trends of OECD countries, acute and long-term care beds have either decreased or remained constant. However, the number of acute and long-term care bed per capita in Korea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Moreover, the trends in Korea seem to be on the rise.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devise comprehensive measures to meet new and various health care needs for bed.
- Changes in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are needed to avoid over-supply of medical equipments. It is found that among major medical equipments, the number of CT scanner, MRI, ESWL, and mammographs, except radiation therapy equipment per million population,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The over-supply of medical equipments deepens supplier-induced demand, which may increase the national health care expenditur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nect supply of medical equipments with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in order to control over-supply.

- There seem to be regional disparities with respect to the distribution of health manpower. So it is important that medical policies be developed to minimize and alleviate the inequality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health manpower.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onitoring system, which investigates into the demand and supply of health manpower and principles of the health manpower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In order to allocate manpower in efficient manner, the government should reconstruct manpower policy, develop health manpower allocation formula, re-establish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for primary health care physician and reinforce public health manpower. These plans should be suppor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perform the consistent and systematic allocation policies for health manpower, especially primary health care physicians who provide essential medical care services such as primary health care service, emergency care service, baby delivery service and etc.

요약

□ 조사 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 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함.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 공급은 공급자 유인 수요 및 과다 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 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 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정 수준의 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확립하여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조사 목적

- 국민의료비 적정 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분야 지식 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함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자원관련 통계 요구 자료로 제시하기 위함.

□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 조사 대상

- ※ 대상: 2009. 6. 31. 현재 보건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 포함)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전국의 약국

○ 조사 기간

- 본조사 기간 2009. 7. 1.~2009. 7. 31.
(지역별로 조사 일정이 다름)
- 보완조사 및 추후조사: 2009. 8. 1.~2009. 8. 31.

□ 조사 방법

○ 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자원공급조사의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eb기반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전국보건의료기관 대상 조사 실시 홍보

- 시·도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를 소집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각 보건소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자원조사에 관한 안내문과 조사공문을 조사시작(조사시작일은 지역에 따라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 발송함.

○ 보건의료자원 조사 실시(보건소 및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자원조사는 각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각 보건

소는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

-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www.hrsic.go.kr)’에 들어가서 이미 웹(Web) 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수정 및 보완함.

○ 미완조사 보건의료기관조사 및 추후조사(Follow-up 조사)

- On-line을 통하여 조사할 수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전체의 5%정도로 추정됨.
- 이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조사표를 직접 발송하고 수거하여 입력토록 함
-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전체조사기관의 10%정도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확인함

○ 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 및 보건의료자원공급분석

- 보건의료자원조사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담당함으로써 상시적인 보건의료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보건의료기관 통계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를 관리하고 분석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수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조사 내용

○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

- 기관명, 주소지, 진료개시일, 기관종류, 설립구분, 환자 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 수(병실종류), 구급차, 급식시설, 영안실, 주차시설 등

○ 인력현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관련 종사자 인력현황

○ 의료장비현황

- 주요 검사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 장비, 이
학요법장비, 치과용 장비, 한방장비, 약제장비 등

○ 약국현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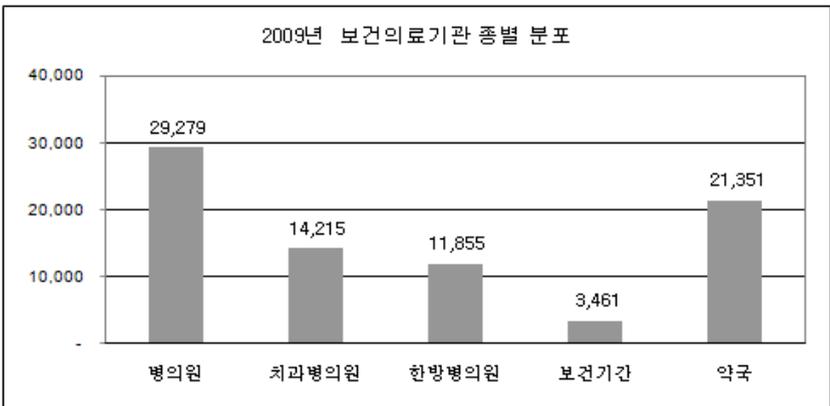
- 기관명, 주소지,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약사보조 인력현황 등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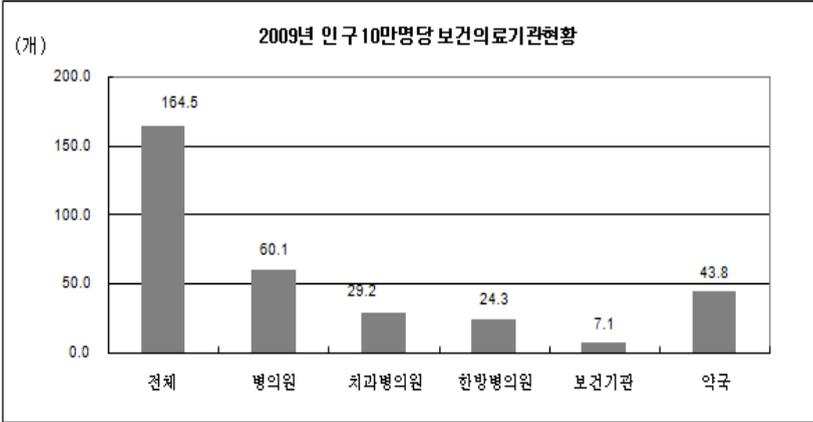
○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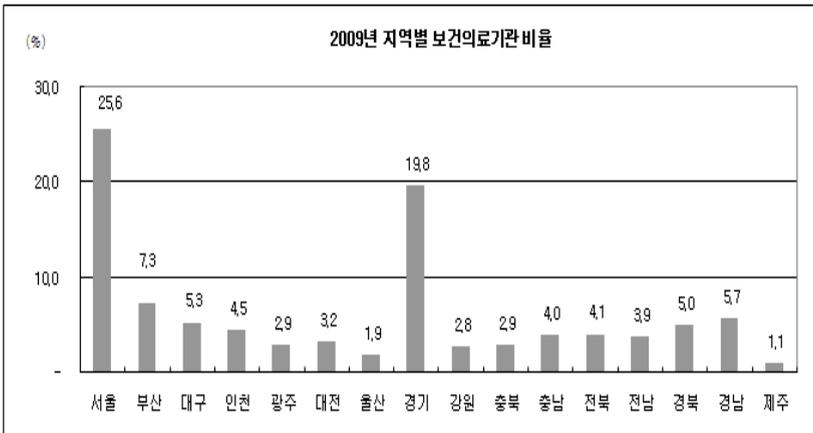
• 2009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161개
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고, 병원은
29,279개로 36.5%, 그리고 약국은 21,351개로 26.6%의 비
율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치과병원(17.7%),
한방병원(14.8%), 보건기관(4.3%) 순으
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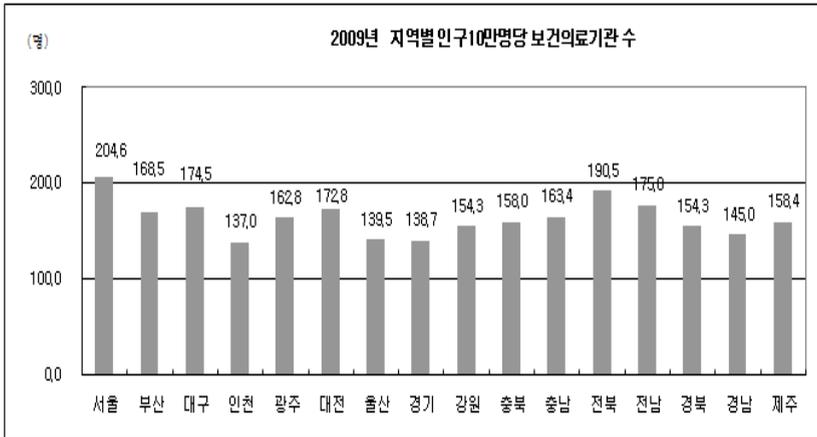


-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4.5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은 60.1개, 치과병의원은 29.2개, 한방병의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1개, 약국 43.8개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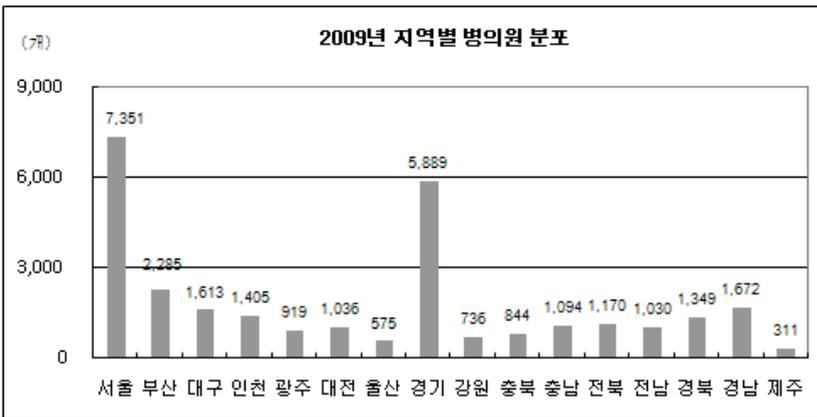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6%와 19.8%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인구 10만 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4.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지역으로 137.0개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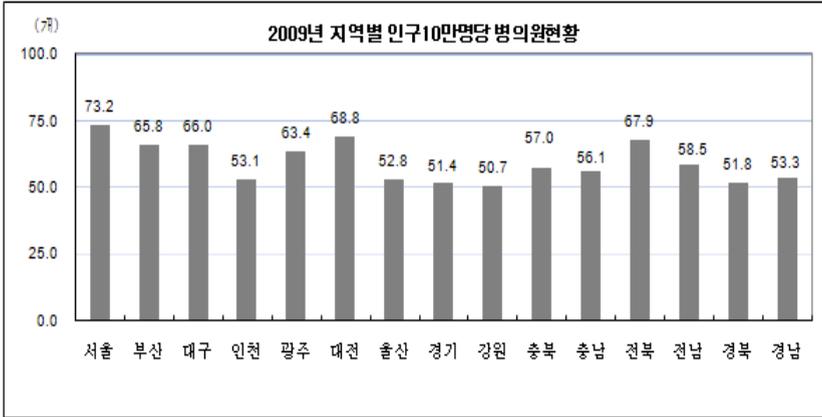


- 지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7,351개, 경기도 5,889개, 부산 2,285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치과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4,394개, 경기도 3,084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3.2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50.7개로 조사되었음. 치과 병·의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 당 서울이 4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으로 각각 19.7개소와 18.9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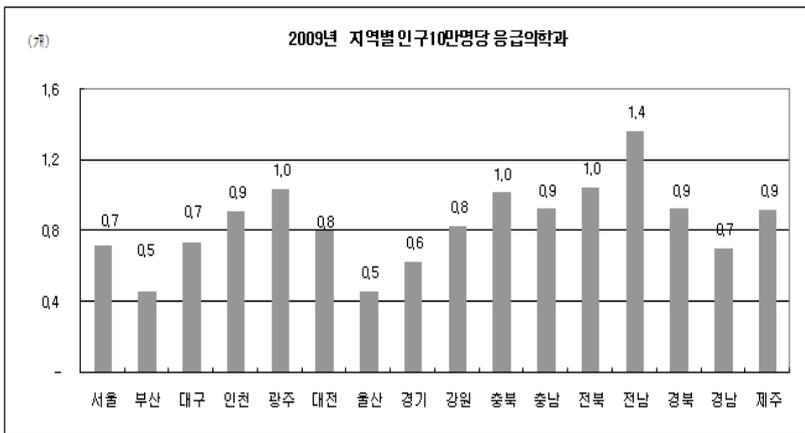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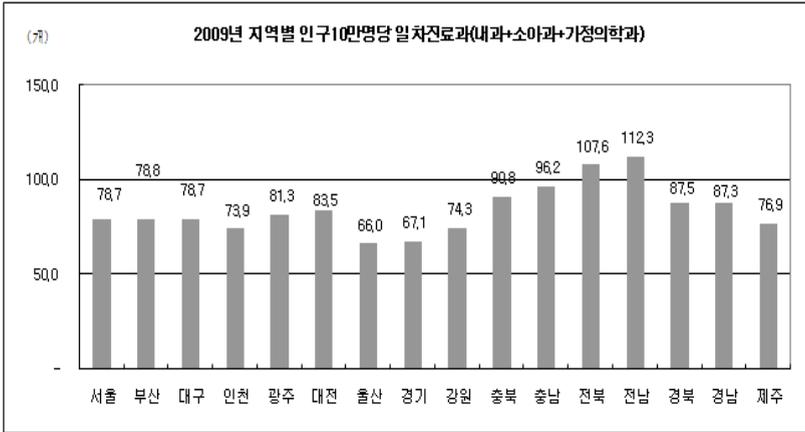
로 나타났음. 한방병원의 경우 서울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7개소로 나타났음.



－ 진료과 분포

- 병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하여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19,335개이며, 그 중 내과가 19,545개로 16.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3,419개(11.2%)로 두 번째로 많았음.
- 인구 10만 명 당 일차진료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는 77.2개였으며,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118.3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60.7개로 나타났음. 응급의학과는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 당 1.4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지역이 0.5개로 가장 적었음.
- 치과병원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1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98,117개이고, 이 중 서울에 29,799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전체에서 3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21,154개로 21.56%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50%이상 개설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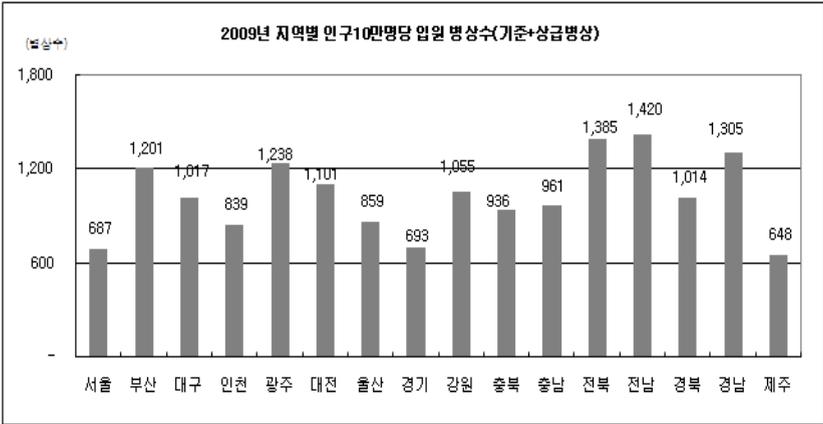
- 한방병원의 진료과는 10개로 한방내과를 포함하여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총 94,148개이며, 이 중 서울에 26,531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으로 18,018개로 19.1%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47%정도가 개설되어 있음.



— 지역별 병상분포

-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48,604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79,515병상(17.7%)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68,955병상(15.4%)으로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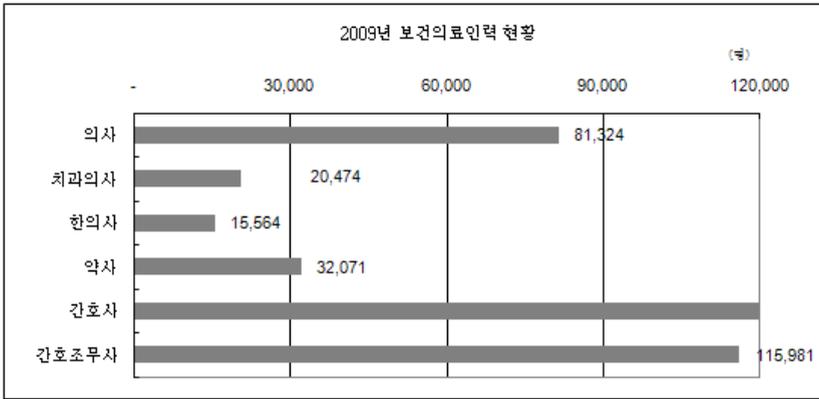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지역별 입원병상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며 그 비율이 각각 17.7%와 15.4%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부산으로 9.3%입니다. 가장 그 분포의 비율이 낮은 지역 그룹은 울산과 제주로 각각 2.1과 0.8%의 비율을 보임.
-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1,4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48개의 병상을 보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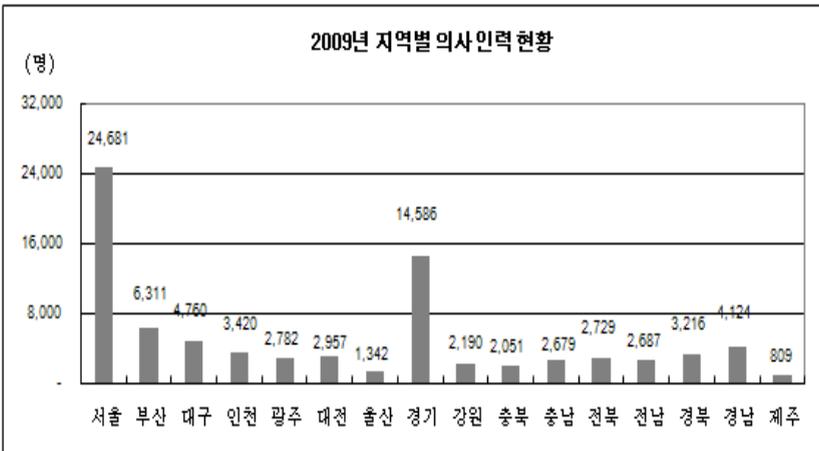
○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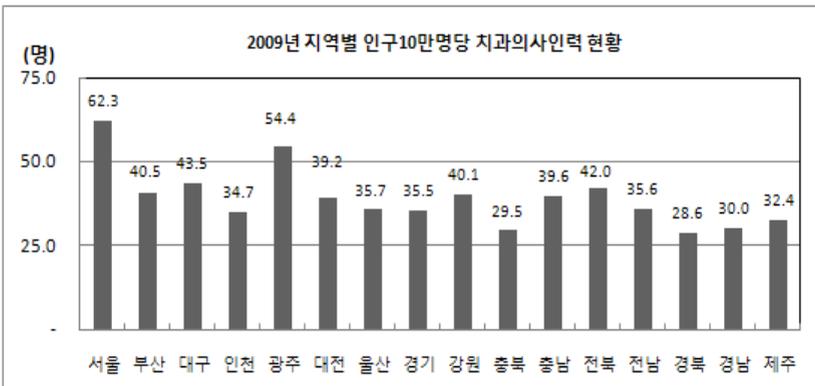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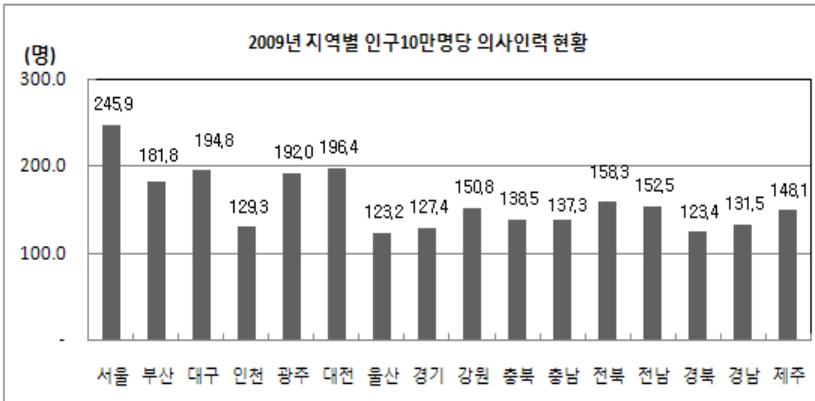
-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비상근 포함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수가 총 81,324명, 치과의사는 20,474명, 한의사수는 15,564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총 124,025명, 간호조무사 115,981명이었음. 또한,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2,071명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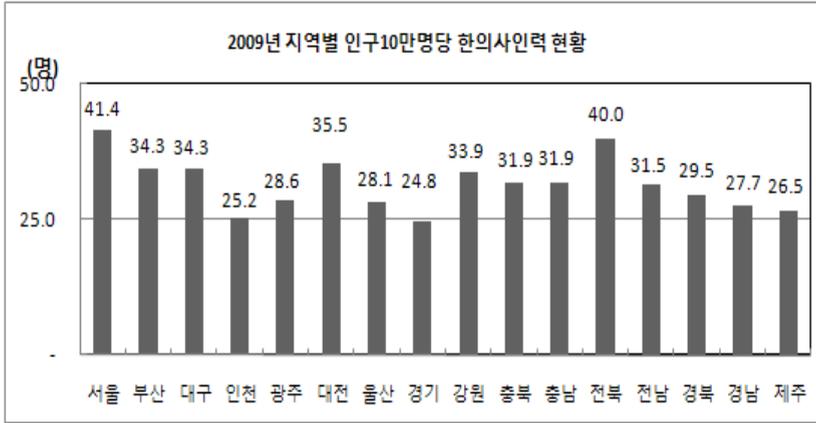


- 지역별 의사 분포는 서울이 가장 높은 24,681명이고, 울산이 가장 낮은 1,342명으로 조사되었음. 치과의사는 서울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수는 6,2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울산이 가장 낮은 분포인 389명으로 조사되었음. 한의사의 분포도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수는 4,16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울산이 가장 낮은 306명으로 조사되었음. 간호사의 지역별 인력분포 역시 동일한 배열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은 분포인 8,624명, 울산지역이 가장 낮은 분포인 575명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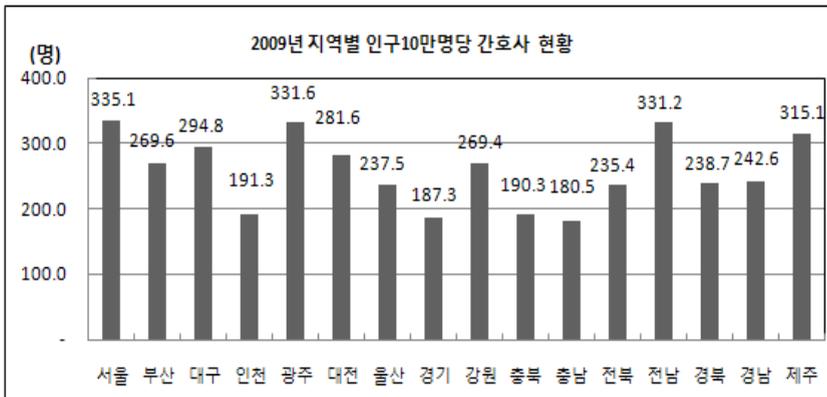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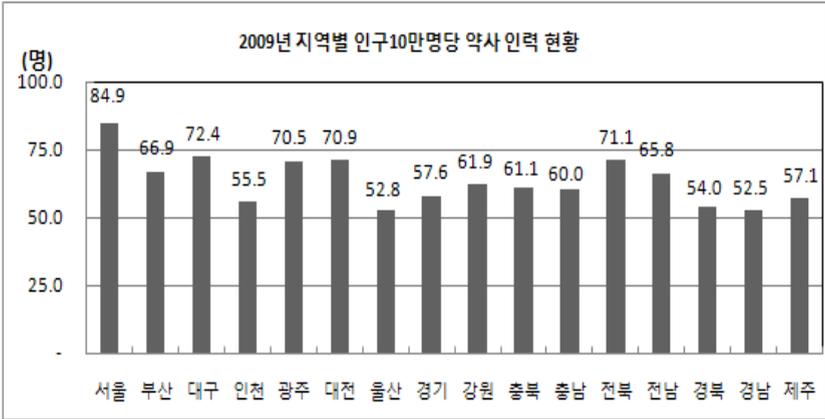
- 인구 10만 명당 주요 보건 의료 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66.8명, 치과의사 42.0명, 한의사 31.9명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는 서울이 24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전 196.4명, 광주 192.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23.2명으로 조사되었음. 치과의사의 경우는 서울이 62.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가 54.4명, 그 다음은 대구가 43.5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이 28.6명으로 조사되었음. 한의사의 경우는 서울이 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4.8명으로 가장 적었음.





- 인구 10만 명 당 지원 보건 의료 인력은 간호사 254.4명, 약사(병원 및 개업약사 포함) 65.8, 간호조무사 237.9명, 임상병리사 35.3명, 방사선사 35.7명, 물리치료사 43.6명, 작업치료사 4.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5.0명과 47.8명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보면 간호사는 서울이 3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0.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부산이 3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75.0명으로 가장 적었음. 약사는 서울이 8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52.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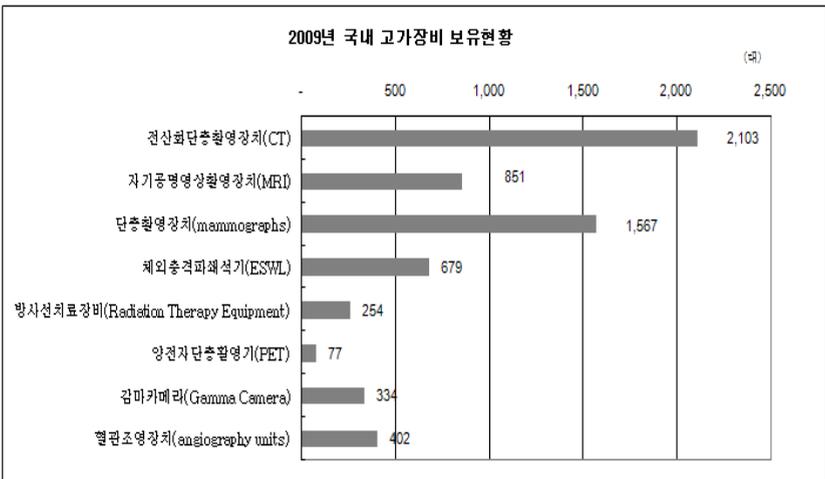




○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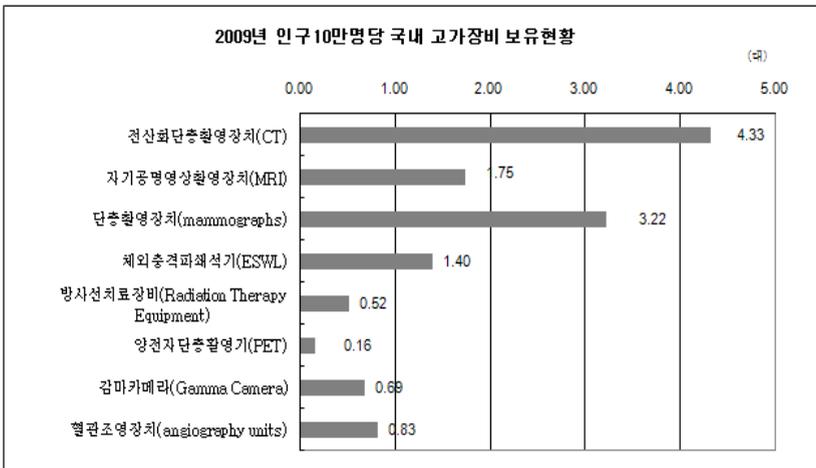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중 혈관조영장치(ANGIO)는 402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334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7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10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851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679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1,567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254대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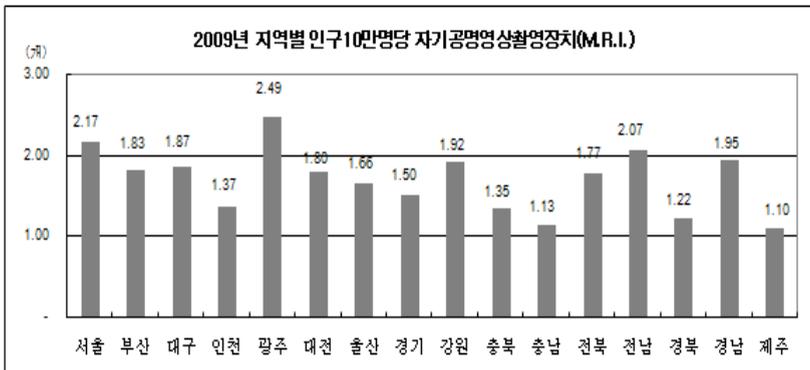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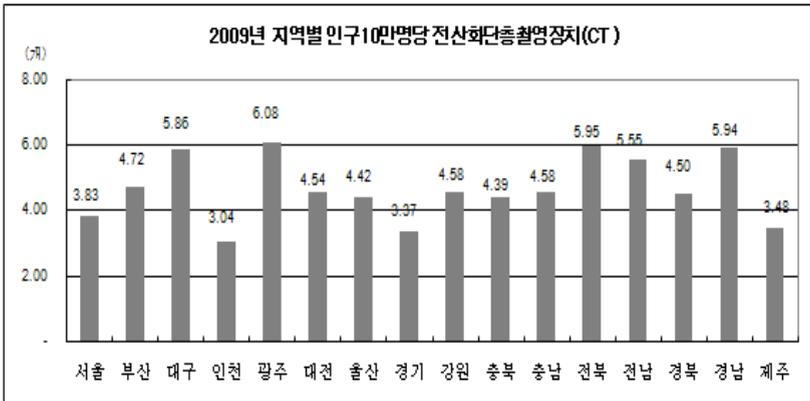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서울 219대, 경기 169대가 설치되어 전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장비 중 45.6%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서울에서 384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와 경남 순으로 각각 379대와 186대가 설치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서울이 33대 경기지역에 15대가 설치되어 약 6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 역시 서울과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각각 140대, 138대로 나타났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58대, 55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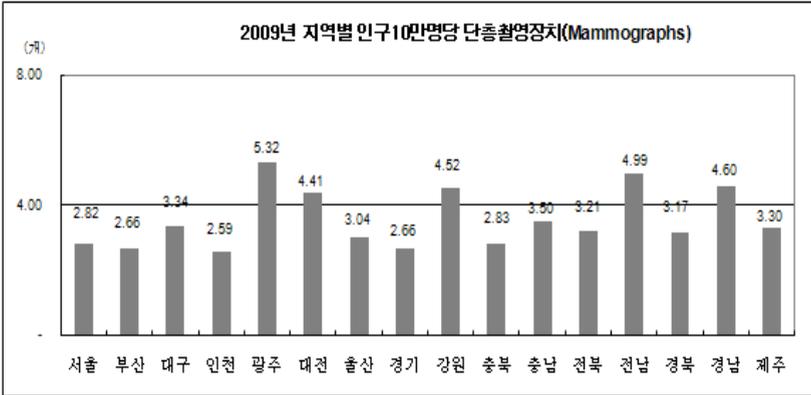
– 지역별 인구10만 명당 고가의료장비 현황

- 인구 10만 명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83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0.69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16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4.3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7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40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3.22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2대로 나타났음.



- 인구10만 명당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광주가 6.08대로 가장 많고 인천이 3.04대로 가장 적었으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전남 광주에서 2.49대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10대로 나타났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전남 광주에서 5.32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 지역이 2.59대로 가장 적었음.
-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제주지역이 0.92대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이 0.21대로 가장 적었다. 체외 충격파쇄석기(ESWL)는 경남지역이 1.85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0.95대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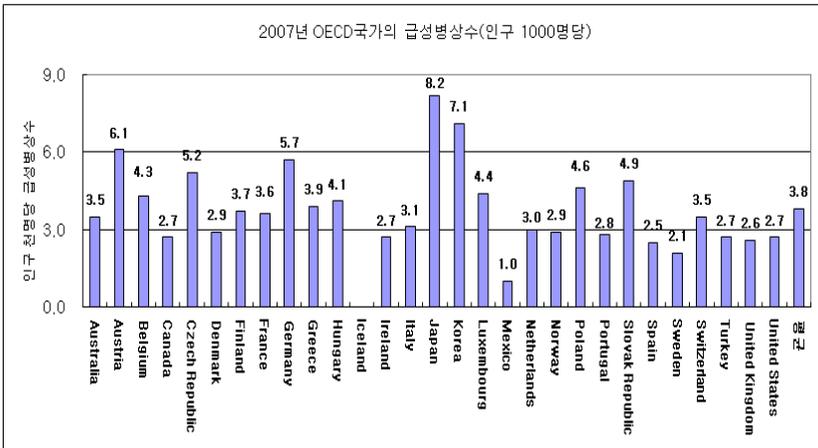




○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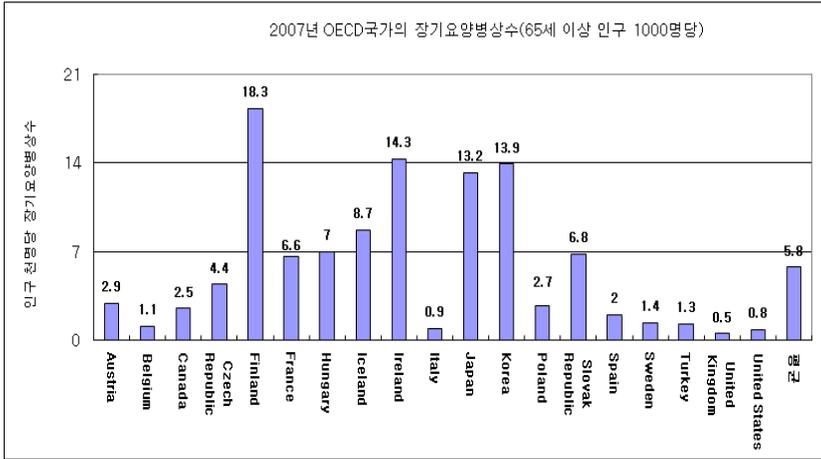
－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 2007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7.1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6배와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8병상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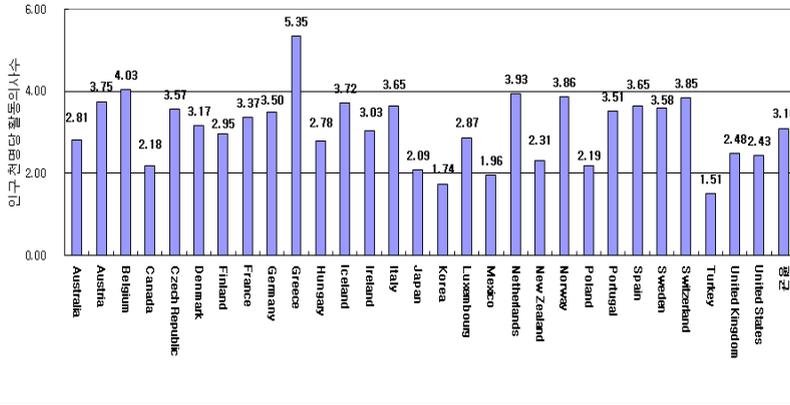
낮음.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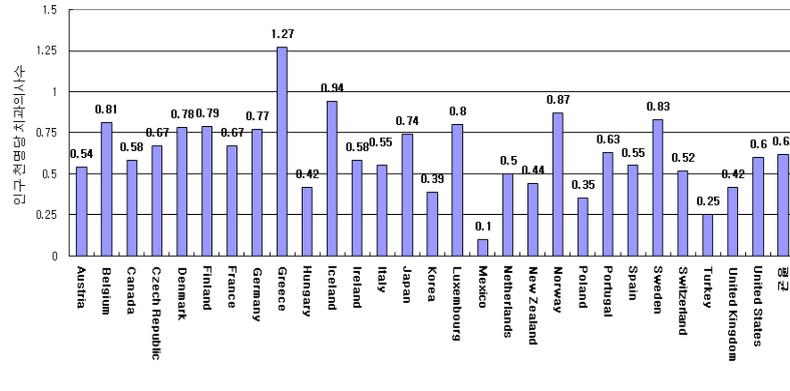
— 보건의료인력 국제 비교

-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3.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8배 정도 많았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0.39명으로 멕시코, 터키, 폴란드 3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평균은 0.62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59배 높았음.
- 간호사 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2.08명으로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OECD 국가의 평균인 6.69명과는 약 3.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약사 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76명과 차이가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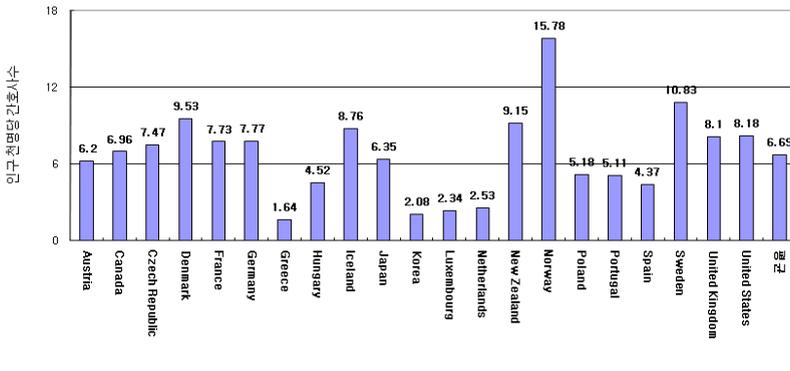
2007년 OECD 국가의 활동 인력사수(인구 10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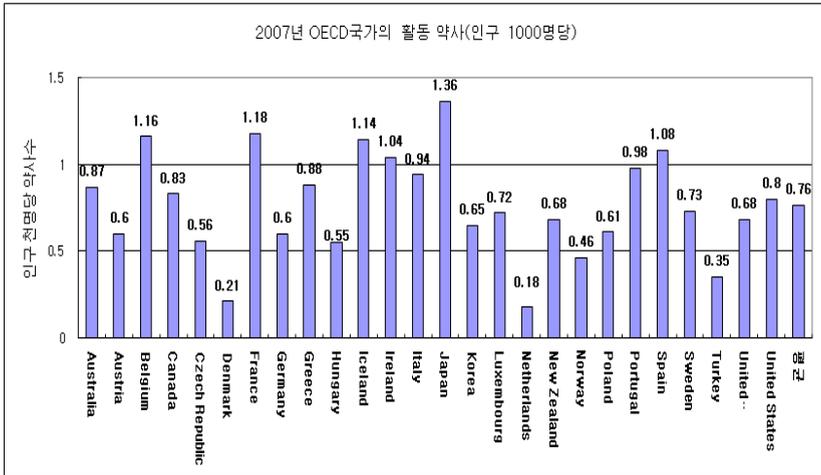


2007년 OECD 국가의 활동 치과의사(인구 10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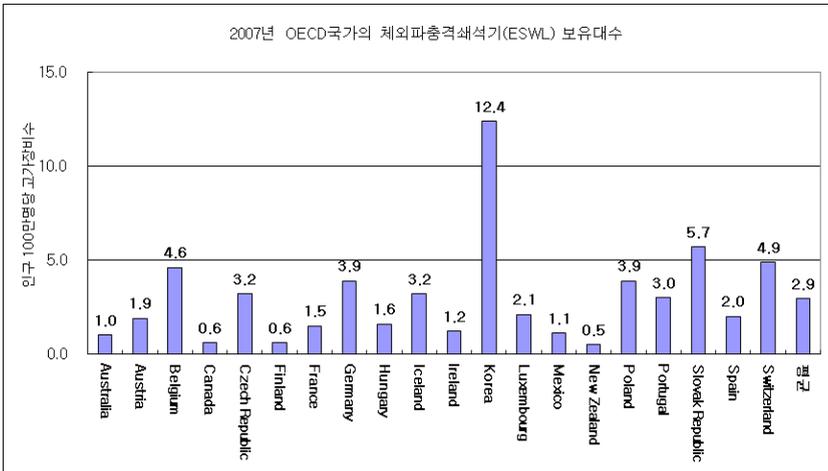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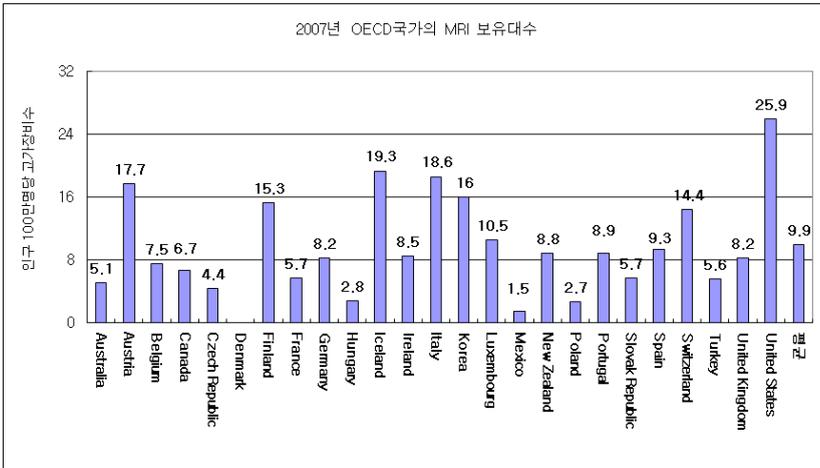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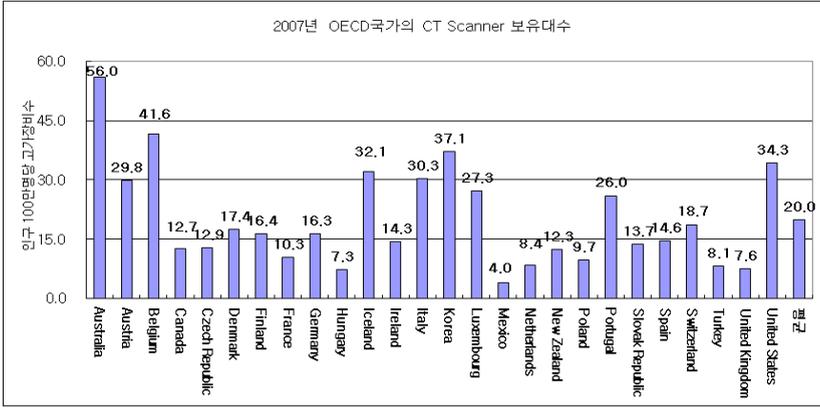
2007년 OECD 국가의 활동 간호사(인구 10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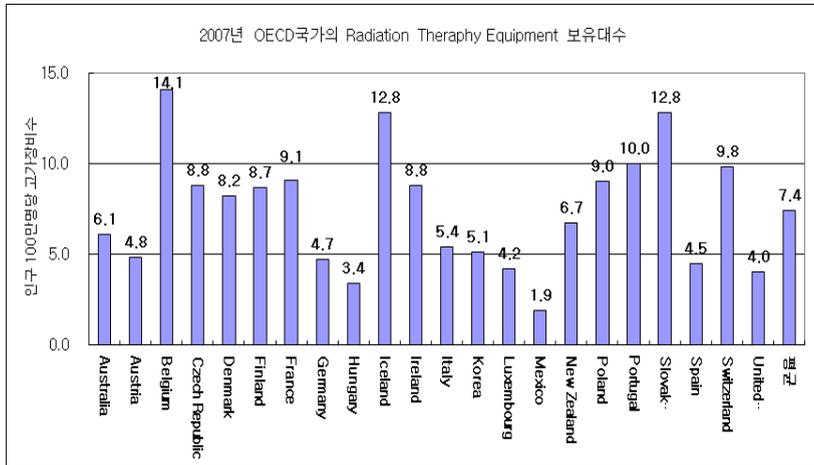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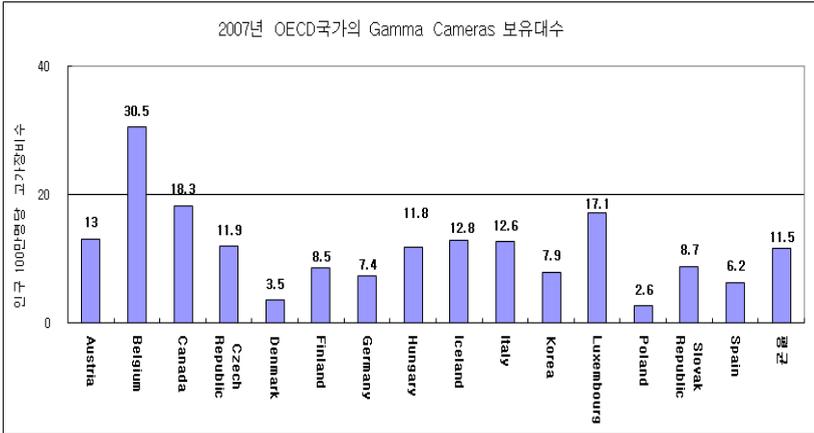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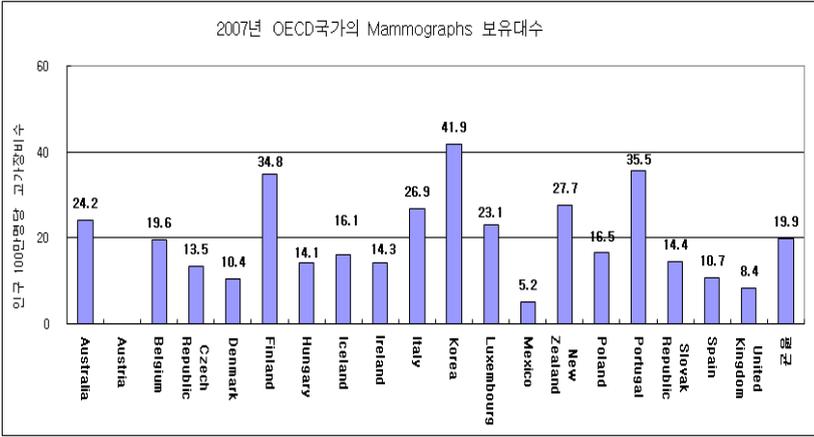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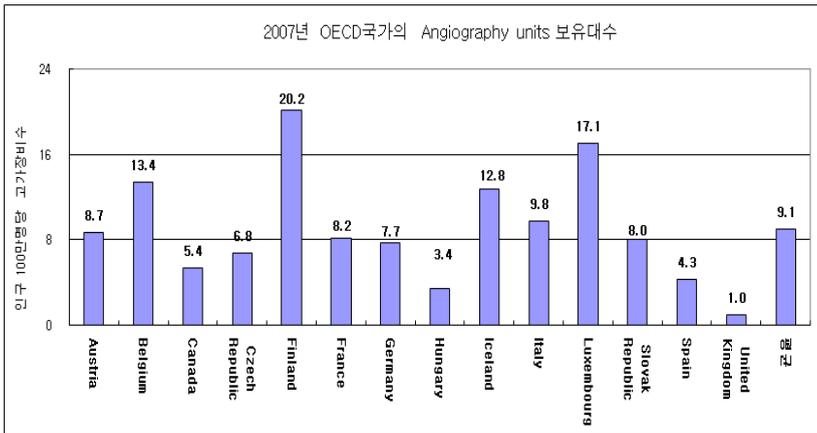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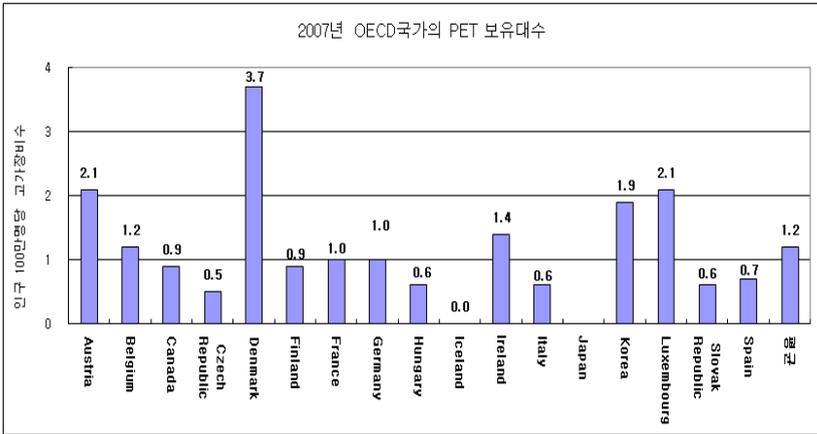


— 주요 의료장비 국제 비교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37.1대로 OECD 국가 평균인 20.0대보다 1.85배 많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6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9대보다 1.6배 정도 많았음.
-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5.1대로 OECD 평균인 7.4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2.4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ECD 평균인 2.9대보다 4.27배 많았음.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41.9대로 OECD 평균인 19.9대보다 2.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았음.







□ 정책적 시사점

○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그동안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8병상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 변화

- 고가의료장비 중 대표적인 5개인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게 높음.
- 공급자 유인수요를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큼.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에 대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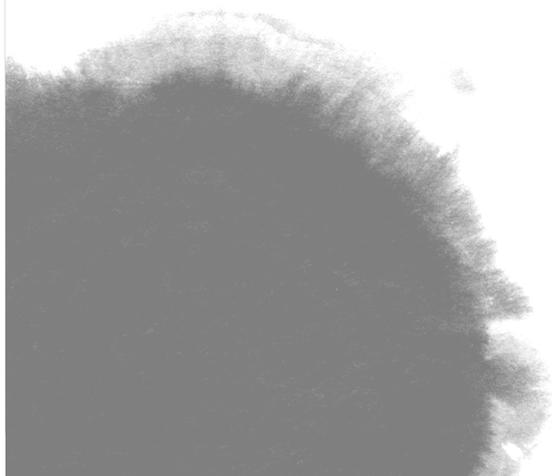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주도의 자유개업이 허용되고 있고 의료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시장 하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 자원배분 정책에는 일차 진료 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 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보건의료부문 강화 관련정책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 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의 일환으로 200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자원조사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보건의료자원실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매년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자원통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과잉공급은 의사 등 공급유인수요(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경쟁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관리 시스템이 구축·확립되어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조사목적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및 생산체계 구축이다.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다.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 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생산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자원공급과 관련된 통계는 매년 초 보건소에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는 의료기관 실태보고의 병상, 환자수 및 종사인력 관련자료, 환자조사의 일부항목, 심사평가원의 의료보험 급여대상 장비신고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모자이크 식으로 국가통계를 산출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체계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보건의료자원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둘째, 보건정책 수립에 적절한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통계생산이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조사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관실태보고,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환자조사 등 관련조사에서의 한계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보건정책 수립에 적절한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와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셋째, 시·도 및 보건소 측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활용하고자 한다.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법 제2조 및 제5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통계자료의 부족과 미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많은 애로가 있다. 주민의 의료이용수준 및 건강수준, 보건의식행태와 관련한 지역 통계가 부재하고, 시설, 인력 및 장비 관련 통계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체계 부재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수립과 보건

소에서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정확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는 크게는 지역과 의료기관유형별로 의료자원 공급분석을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별과 의료기관 유형별로 주요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의 보유실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조사의 법적 근거

-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2000. 1. 12. 공포)
- 동법 제5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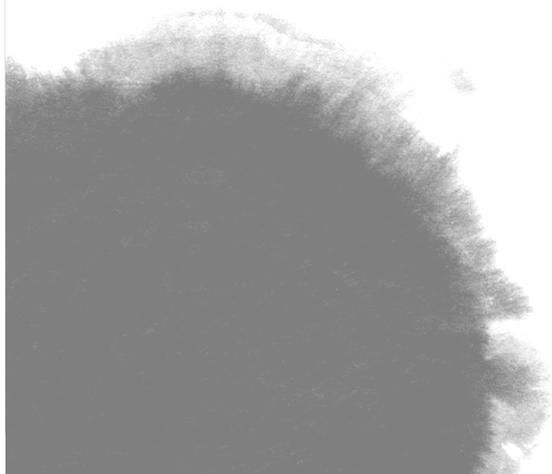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제14조(보건의료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02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인수요 및 과다경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 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 관리 시스템이 구축·확립되어 매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시간 조사 관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조사 목적

- 국민의료비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 지식기반의 초석을 달성하고자 한다.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기획·시행하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자원관련 통계요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1. 조사 대상

- ※ 대상: 2009. 6. 30. 현재 보건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전국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 포함)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전국의 약국

2. 조사 시점 및 기간

- 본 조사기간: 2009. 7. 1.~2009. 7. 31.
- 보완조사 및 추후조사: 2009. 8. 1.~2009. 8. 31.

제4절 조사 내용

1. 전반적 내용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의 실태 및 특성(조사표 참조)
- 보건의료자원의 분포현황 파악,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및 질적 수준, 활용도 실태 조사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별로 공급자 유형, 공급량, 공급조직, 수행기능 등을 조사·수집

2. 일반 현황 및 시설 현황

- 기관명, 주소지, 진료개시일, 기관종류, 설립구분, 환자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수(병실종류), 구급차, 급식시설, 영안실, 주차시설 등

3. 인력 현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관련 종사자 인력현황

4. 의료장비 현황

- 주요 검사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치과용 장비, 한방장비, 약제장비 등

5. 약국 현황 실태

- 기관명, 주소지,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약사보조 인력현황 등

제5절 조사 방법

구축된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에 의거 보건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확인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작성 및 작성결과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2-1] 2009년도 국민보건자원공급 조사방법



- 의료자원 조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 보건의료자원공급조사는 2008년 구축된 보건의료자원시스템의 개선 보완한 후 활용함.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파일 Up-Load 및 사전시험조사(Pretest)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파일을 협조 받아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에 up-load하고, 보건의료기관 종류별로 시험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사전 시험 조사를 실시함.
 - 요양기관파일내용: 보건의료기관 일반정보, 인력, 시설(병상), 장비 등(조사내용 참조)
- 보건소 담당자교육 및 전국보건의료기관대상 조사 실시 홍보
 - 시·도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를 소집하여 보건의료자원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각 보건소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자원조사에 관한 안내문과 조사공문을 통해 조사시작(조사시작일은 지역에 따라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 발송함.
- 보건의료자원 조사 실시(보건소 및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자원조사는 각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각 보건소는 관할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
 -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www.hrsic.go.kr)’에 접속하여 지난해 조사된 해당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수정 및 보완함.
 - 보건의료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후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제출하기」를 통해,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승인처리」를 받고 끝맺음.
- 미완조사 보건의료기관 조사 (보건소)
 - On-line을 통하여 조사할 수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전체의 5%정도로 추정됨.
 - 이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조사표를 직접 발송하고 수거하여 입력토록 함.
- 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 및 보건의료자원공급분석
 - 보건의료자원조사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담당함으로써 상시적인 보건의료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보건의료기관 통계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를 관리하고 분석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수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제6절 조사 교육 및 조사 지도 방법

□ 실태조사 관련자 교육

○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

- 교육기간 : 2009. 6. 25(목)
- 교육대상 : 시·도 및 보건소(예방의약계장 등) 관계공무원
- 교육내용 : 보건의료실태조사 업무처리요령 등

일 시	대상 시·도	교육 장소	주소 및 연락처	담당 및 전화번호
6. 25(목) 14:00~	전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02-380-8280

순서	시간	대상 시·도	담당
1	14:00~14:20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2	14:20~14:40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개요 및 경과사항	보건복지부
3	14:40~15:00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내용 및 조사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15:00~16:00	보건의료자원조사 및 관리 DB시스템 설명	시스템 개발업체
	16:00~16:20	휴식시간	
5	16:20~17:30	조사표/조사지침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달교육(시·도 및 보건소)

- 교육일시 및 방법: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전달교육은 조사 안내문과 조사공문을 통해 조사시작(지역별 조사기간이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여건이 허락하는 보건소의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교육 실시(시·도 및 보건소 단위별)
- 교육대상: 관할 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지소 및 진료소)
- 교육내용: 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
- 교육강사: 시·도 및 보건소 조사책임자

□ 조사안내문 등 유인물 배부

○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계획, 시·도 및 보건소 집계표, 조사표 등 교육용 관련 서식을 시·도 및 보건소에 파일형태로 제공하며, 필요시 인쇄해서 사용
- 2009년 보건의료자원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on-line조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표는 없지만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 및 보건소에 조사표를 파일형태로 제공하며, 필요시 인쇄해서 사용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달 교육시(시·도 및 보건소)

- 보건소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 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은 안내문과 함께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와 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조사시작(조사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름) 일주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질문에 대하여 설명
- 인터넷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발송하고 수거하여 보건소에서 입력
- 신규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번호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에서 신규 또는 요양기관번호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만들어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전화상으로 고지

□ 조사 실시 지도 감독

- 보건복지부: 조사기간 중 조사 지도를 위한 순회점검반 편성 운영
- 시·도 및 보건소: 조사대상기관의 조사표 작성지도 및 독려반 편성 운영

□ 관련기관 협조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원 협조

- 중앙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
- 관련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무기록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7절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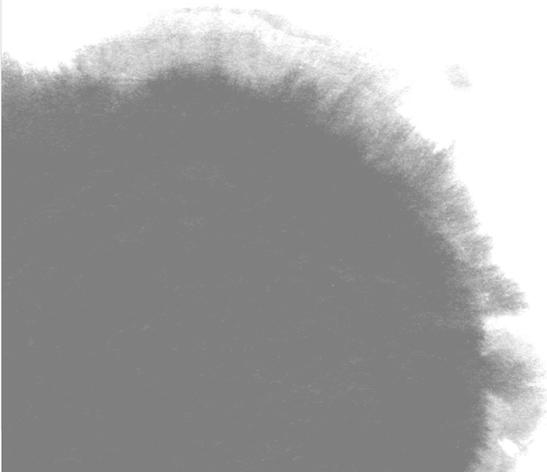
추진사항	일 정	관련(협조)기관
기본계획 수립	2009. 2.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자료 수집 및 조사설계	2009. 3~4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 시스템 개선 및 보완	2009. 5~6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시스템 업체
예비조사 및 시스템 보완	2009. 6.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조사관련자 교육 및 언론홍보	2009. 6.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본 조사 실시	2009. 7.	시·도(보건소), 대상기관
보완조사 및 추후조사(follow-up조사)	2009. 8. 1~10	시·도(보건소), 대상기관
조사기관명단 취합 및 자료검토	2009.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도(보건소)
분석시스템 구축 통계분석	2009. 9.~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스템업체

□ 대보건의료기관 조사홍보

- 조사대상인 보건의료기관의 협조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일간지 및 전문지에 조사목적, 조사일정 및 조사내용 등 국민 보건의료자원조사에 대한 사항을 게재함.

03

보건의료자원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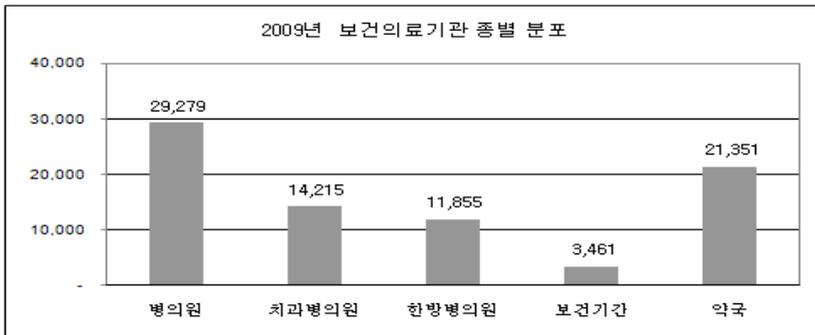
제3장 보건의료자원 조사결과

제1절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

2009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16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병의원은 29,279개로 36.5%, 그리고 약국은 21,351개로 26.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치과 병의원은 14,215개로 17.7%, 한방 병의원은 11,855개로 14.8%, 보건기관은 3,461개로 4.3%로 나타났다.

[그림 3-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보건의료기관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45%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 25.6%, 경기지역에 19.8%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와 울산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에 1.1%, 울산지역에 1.9%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병의원의 경우 서울 25.1%(7,351), 경기도 20.1%(5,889), 부산 7.8%(2,285)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 병의원이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는 1.1% (311)로 전체 병의원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치과병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30.9% (4,394), 경기도 21.7%(3,084) 순이었고 제주도는 1.0%(1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방병원 또한 서울 28.2%(3,341), 경기도 19.0% (2,258), 부산 8.0%(954)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방병원의 절반(47.2%) 가량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는 보건기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으로 각각 16.2%(561)와 16%(55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남 12%(414), 전북, 경남이 각각 11.8%(409)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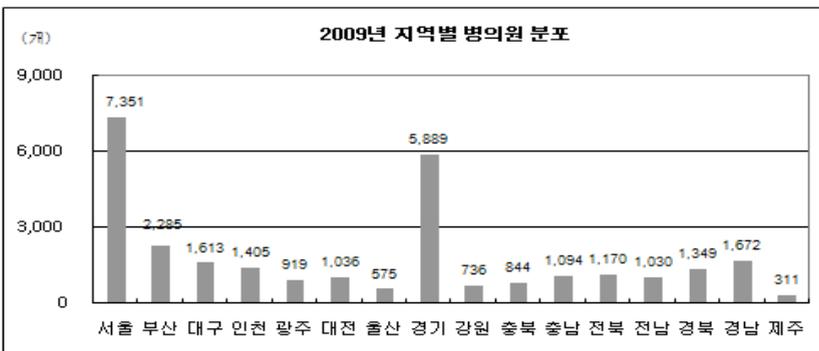
〈표 3-1〉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현황(I)

지역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원	전체	
서울	N	7351	4394	3341	26	5416	6	20534
	지역내%	35.8	21.4	16.3	0.1	26.4	0.0	100.0
	의료기관내%	25.1	30.9	28.2	0.8	25.4	12.0	25.6
부산	N	2285	1030	954	30	1538	13	5850
	지역내%	39.1	17.6	16.3	0.5	26.3	0.2	100.0
	의료기관내%	7.8	7.2	8.0	0.9	7.2	26.0	7.3
대구	N	1613	714	740	26	1171	1	4265
	지역내%	37.8	16.7	17.4	0.6	27.5	0.0	100.0
	의료기관내%	5.5	5.0	6.2	0.8	5.5	2.0	5.3
인천	N	1405	669	504	59	987	1	3625
	지역내%	38.8	18.5	13.9	1.6	27.2	0.0	100.0
	의료기관내%	4.8	4.7	4.3	1.7	4.6	2.0	4.5
광주	N	919	467	307	15	646	4	2358
	지역내%	39.0	19.8	13.0	0.6	27.4	0.2	100.0
	의료기관내%	3.1	3.3	2.6	0.4	3.0	8.0	2.9
대전	N	1036	435	425	21	683	2	2602
	지역내%	39.8	16.7	16.3	0.8	26.2	0.1	100.0
	의료기관내%	3.5	3.1	3.6	0.6	3.2	4.0	3.2
울산	N	575	306	252	26	361		1520
	지역내%	37.8	20.1	16.6	1.7	23.8		100.0
	의료기관내%	2.0	2.2	2.1	0.8	1.7		1.9
경기	N	5889	3084	2258	335	4298	9	15873
	지역내%	37.1	19.4	14.2	2.1	27.1	0.1	100.0
	의료기관내%	20.1	21.7	19.0	9.7	20.1	18.0	19.8
강원	N	736	306	306	245	643	4	2240
	지역내%	32.9	13.7	13.7	10.9	28.7	0.2	100.0
	의료기관내%	2.5	2.2	2.6	7.1	3.0	8.0	2.8
충북	N	844	292	314	268	618	3	2339
	지역내%	36.1	12.5	13.4	11.5	26.4	0.1	100.0
	의료기관내%	2.9	2.1	2.6	7.7	2.9	6.0	2.9
충남	N	1094	414	413	414	854		3189
	지역내%	34.3	13.0	13.0	13.0	26.8		100.0
	의료기관내%	3.7	2.9	3.5	12.0	4.0		4.0
전북	N	1170	426	418	408	863		3285
	지역내%	35.6	13.0	12.7	12.4	26.3		100.0
	의료기관내%	4.0	3.0	3.5	11.8	4.0		4.1
전남	N	1030	356	300	561	847	4	3098
	지역내%	33.2	11.5	9.7	18.1	27.3	0.1	100.0
	의료기관내%	3.5	2.5	2.5	16.2	4.0	8.0	3.9
경북	N	1349	493	547	555	1077		4021
	지역내%	33.5	12.3	13.6	13.8	26.8		100.0
	의료기관내%	4.6	3.5	4.6	16.0	5.0		5.0
경남	N	1672	685	657	409	1122	2	4547
	지역내%	36.8	15.1	14.4	9.0	24.7	0.0	100.0
	의료기관내%	5.7	4.8	5.5	11.8	5.3	4.0	5.7
제주	N	311	144	119	63	227	1	865
	지역내%	36.0	16.6	13.8	7.3	26.2	0.1	100.0
	의료기관내%	1.1	1.0	1.0	1.8	1.1	2.0	1.1
전체	N	29279	14215	11855	3461	21351	50	80211
	지역내%	36.5	17.7	14.8	4.3	26.6	0.1	100.0
	의료기관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 <표 3-2>는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일반 의원이 33.6%, 치과의원 17.5%, 그리고 한의원 14.6%로 전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약국이 26.6%, 약 7.7%가 나머지 의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0.1%로 전체 44개 중에서 17개소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7개소는 울산광역시와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병원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0.3%의 비율로 매우 낮고 서울 및 경기지역이 각각 16%,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1.5%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1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어 서울이 13%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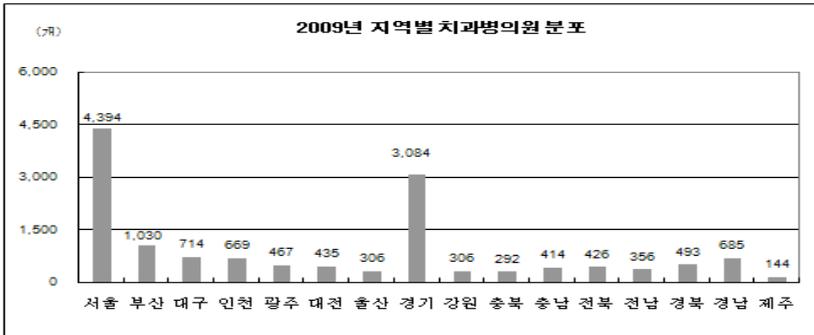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의원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 경기가 20%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체의 46%의 의원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제주가 서울, 경기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인 1%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약 2~8%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 지역별 병의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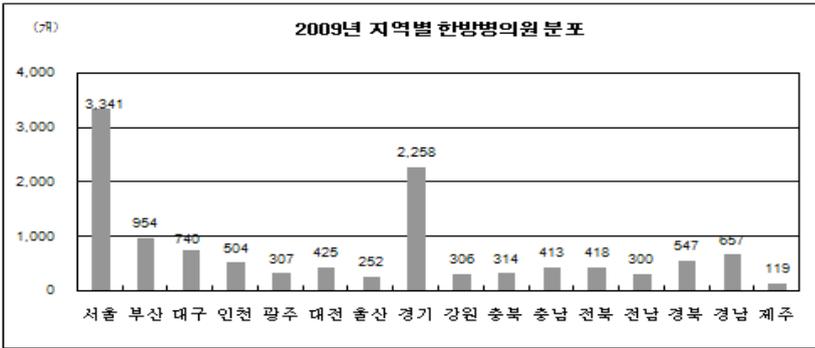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치과병원은 0.2%, 치과의원은 17.5%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도 병원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 및 경기지역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서울(37%)과 경기(19%)지역의 차가 많이 나고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인 대구가 18%로 나타나서 서울이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의원 또한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7%)을 보였으나 서울(21%), 경기(22%)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인데, 치과병원이 전무하고 치과의원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지역별 치과 병원 분포



한방병원은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0.2%를, 한의원은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이 각각 21%와 28%로 가장 많은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지역이 각각 약 1%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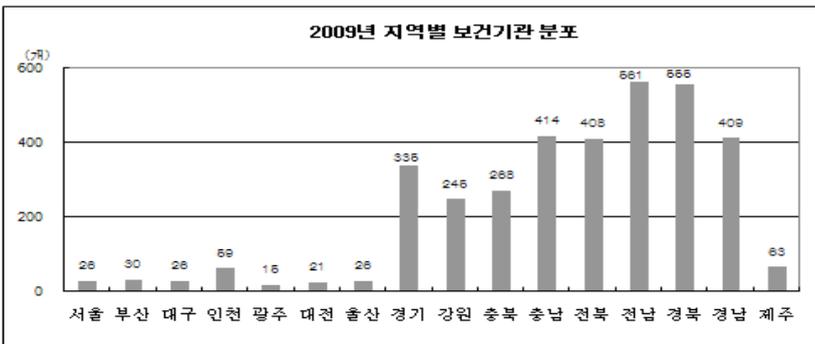
[그림 3-4] 지역별 한방 병의원 분포



보건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는 총 239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0.3%를 차지하며 경기지역이 1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 10%, 경북 9%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6대 광역시에 비해서 기타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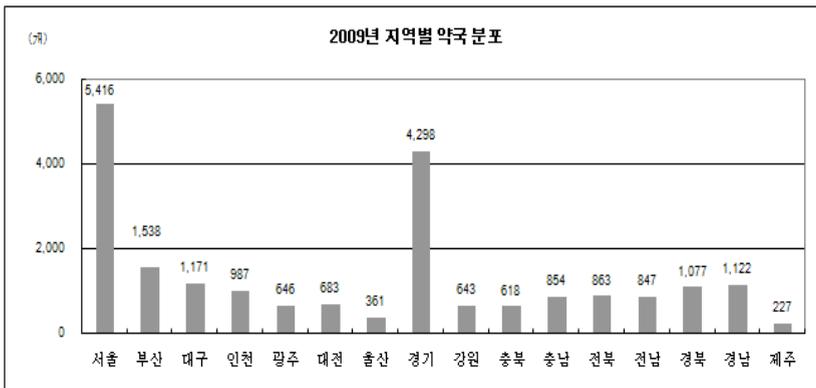
보건지소의 경우 총 1,290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1.6%이며 경북이 17%, 전남지역이 16%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서울이나 인천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경우 약 1% 이하로 보유비율이 매우 낮았다. 보건진료소도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비해 지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남이 17%로 가장 높고 경북이 16%로 그 다음을 이었다.

[그림 3-5] 지역별 보건기관 분포



약국은 전체 의료기관 중 26.6%로 의원(33.6%)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 내에서 약국의 비중은 최고 29%(강원), 최저 24%(울산)로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25%(5,416)로 가장 많은 약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이 227개(1%)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다.

[그림 3-6] 지역별 약국 분포



〈표 3-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종별 분포

지역		전체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의원
서울	N	20,534	17	43	157	2	61	7,069
	지역내%	100	0	0	1	0	0	34
	의료기간내%	26	39	16	13	4	8	26
부산	N	5,850	4	23	89	14	91	2,062
	지역내%	100	0	0	2	0	2	35
	의료기간내%	7	9	8	8	25	12	8
대구	N	4,265	4	7	94	2	35	1,469
	지역내%	100	0	0	2	0	1	34
	의료기간내%	5	9	3	8	4	5	5
인천	N	3,625	2	11	47	2	31	1,310
	지역내%	100	0	0	1	0	1	36
	의료기간내%	5	5	4	4	4	4	5
광주	N	2,358	2	17	48	2	16	832
	지역내%	100	0	1	2	0	1	35
	의료기간내%	3	5	6	4	4	2	3
대전	N	2,602	2	6	32	3	32	961
	지역내%	100	0	0	1	0	1	37
	의료기간내%	3	5	2	3	5	4	4
울산	N	1,520		4	34		28	506
	지역내%	100		0	2		2	33
	의료기간내%	2		1	3		4	2
경기	N	15,873	5	48	228	12	132	5,458
	지역내%	100	0	0	1	0	1	34
	의료기간내%	20	11	18	19	21	18	20
강원	N	2,240	2	14	36	2	16	665
	지역내%	100	0	1	2	0	1	30
	의료기간내%	3	5	5	3	4	2	2
충북	N	2,339	1	10	37		24	772
	지역내%	100	0	0	2		1	33
	의료기간내%	3	2	4	3		3	3
충남	N	3,189	2	9	42	6	42	988
	지역내%	100	0	0	1	0	1	31
	의료기간내%	4	5	3	4	11	6	4
전북	N	3,285	2	12	58	3	60	1,034
	지역내%	100	0	0	2	0	2	31
	의료기간내%	4	5	4	5	5	8	4
전남	N	3,098		19	73	2	32	903
	지역내%	100		1	2	0	1	29
	의료기간내%	4		7	6	4	4	3
경북	N	4,021		18	75		68	1,178
	지역내%	100		0	2		2	29
	의료기간내%	5		7	6		9	4
경남	N	4,547	1	24	130	6	59	1,450
	지역내%	100	0	1	3	0	1	32
	의료기간내%	6	2	9	11	11	8	5
제주	N	865		6	5		8	292
	지역내%	100		1	1		1	34
	의료기간내%	1		2	0		1	1
전체	N	80,211	44	271	1,185	56	735	26,949
	지역내%	100.0	0.1	0.3	1.5	0.1	0.9	33.6
	의료기간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서울	N	65	4,329	30	3,311		25
	지역내%	0	21	0	16		0
	의료기관내%	37	31	21	28		10
부산	N	10	1,020	6	948		16
	지역내%	0	17	0	16		0
	의료기관내%	6	7	4	8		7
대구	N	18	696	8	732		8
	지역내%	0	16	0	17		0
	의료기관내%	10	5	6	6		3
인천	N	4	665	12	492		10
	지역내%	0	18	0	14		0
	의료기관내%	2	5	8	4		4
광주	N	5	462	12	295		5
	지역내%	0	20	1	13		0
	의료기관내%	3	3	8	3		2
대전	N	6	429	5	420		5
	지역내%	0	16	0	16		0
	의료기관내%	3	3	3	4		2
울산	N	4	302	2	250		5
	지역내%	0	20	0	16		0
	의료기관내%	2	2	1	2		2
경기	N	34	3,050	27	2,231	2	44
	지역내%	0	19	0	14	0	0
	의료기관내%	19	22	19	19	11	18
강원	N	1	305	2	304	2	18
	지역내%	0	14	0	14	0	1
	의료기관내%	1	2	1	3	11	8
충북	N	1	291	3	311		13
	지역내%	0	12	0	13		1
	의료기관내%	1	2	2	3		5
충남	N	6	408	6	407	2	14
	지역내%	0	13	0	13	0	0
	의료기관내%	3	3	4	3	11	6
전북	N	3	423	9	409	4	10
	지역내%	0	13	0	12	0	0
	의료기관내%	2	3	6	3	22	4
전남	N	6	350	8	292	4	18
	지역내%	0	11	0	9	0	1
	의료기관내%	3	2	6	2	22	8
경북	N	7	486	10	537	3	22
	지역내%	0	12	0	13	0	1
	의료기관내%	4	3	7	5	17	9
경남	N	7	678	3	654	1	20
	지역내%	0	15	0	14	0	0
	의료기관내%	4	5	2	6	6	8
제주	N		144	1	118		6
	지역내%		17	0	14		1
	의료기관내%		1	1	1		3
전체	N	177	14,038	144	11,711	18	239
	지역내%	0.2	17.5	0.2	14.6	0.0	0.3
	의료기관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부속의원	조산원	약국
서울	N	1		2	6	5,416
	지역내%	0		0	0	26
	의료기관내%	0		5	12	25
부산	N	9	5	2	13	1,538
	지역내%	0	0	0	0	26
	의료기관내%	1	0	5	26	7
대구	N	9	9	2	1	1,171
	지역내%	0	0	0	0	27
	의료기관내%	1	0	5	2	5
인천	N	25	24	2	1	987
	지역내%	1	1	0	0	27
	의료기관내%	2	1	5	2	5
광주	N		10	2	4	646
	지역내%		0	0	0	27
	의료기관내%		1	5	8	3
대전	N	8	8		2	683
	지역내%	0	0		0	26
	의료기관내%	1	0		4	3
울산	N	10	11	3		361
	지역내%	1	1	0		24
	의료기관내%	1	1	8		2
경기	N	126	163	6	9	4,298
	지역내%	1	1	0	0	27
	의료기관내%	10	9	15	18	20
강원	N	94	131	1	4	643
	지역내%	4	6	0	0	29
	의료기관내%	7	7	3	8	3
충북	N	94	161		3	618
	지역내%	4	7		0	26
	의료기관내%	7	8		6	3
충남	N	158	240	5		854
	지역내%	5	8	0		27
	의료기관내%	12	13	13		4
전북	N	149	245	1		863
	지역내%	5	7	0		26
	의료기관내%	12	13	3		4
전남	N	209	330	1	4	847
	지역내%	7	11	0	0	27
	의료기관내%	16	17	3	8	4
경북	N	218	312	10		1,077
	지역내%	5	8	0		27
	의료기관내%	17	16	26		5
경남	N	169	219	2	2	1,122
	지역내%	4	5	0	0	25
	의료기관내%	13	11	5	4	5
제주	N	11	46		1	227
	지역내%	1	5		0	26
	의료기관내%	1	2		2	1
전체	N	1,290	1,914	39	50	21,351
	지역내%	1.6	2.4	0.0	0.1	26.6
	의료기관내%	100.0	100.0	100.0	100.0	100.0

2. 지역별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설립구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89.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공립의 형태가 5.8%로 많았으며 의료법인 1.7%, 사단법인 0.4%, 재단법인 0.3%, 학교법인 0.3%, 사회복지법인 0.2%, 특수법인이 0.2%, 회사 법인이 0.1%, 군병원 0.1%, 기타 1.2%, 국립과 종교 법인이 각각 0.1%와 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개인에 의해 설립된 병원의 경우 서울지역이 27.7%로 가장 많으며 경기지역이 20.4%로 다음으로 많았고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7.7%)을 보였으나, 서울, 경기의 비율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제주는 1.0%의 비율을 보여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비율을 보면 서울(96.7%), 광주(95.6%), 대구(9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경기지역은 총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이 개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9.3%)이며, 다음으로 경북(74.1%)이 낮았다.

반면에 국립의료기관은 20.6%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 15.9%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국립의료기관의 분포는 미미하였다. 공립의료기관은 주로 대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분포가 고른 편으로 조사되었다. 최대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경북으로서 16.2%이며,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울산 지역으로 0.7%의 분포율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교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은 150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이며 서울지역이 31개(20.7%)로 가장 많았다. 특수법인은 129개로 부산지역에 30개(23.3%)가 위치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은 총 140개로 서울(17.9%), 경기(15.0%), 부산(10.7%) 순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은 서울지역이 총 212개중 34개를 보유(16.0%)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바로 뒤이어 부산 지역이 32개를 보유(15.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은 경기(18.1%), 서울(15.6%) 및 부산(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법인은 서울이 28.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산이 14.0%, 경북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은 경기지역이 979개 중 198개인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제주가 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군병원은 군부대가 많은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이 가장 많이 보유하여 각각 10개의 병원(19.2%)로 나타났으며, 경남지역도 52개 중 5개인 9.6%의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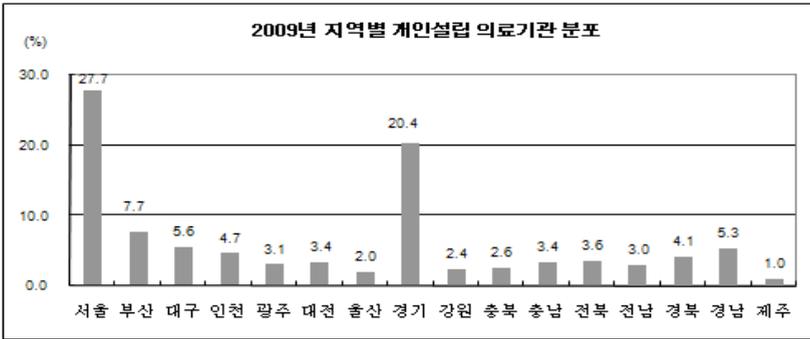
〈표 3-3〉 지역별 보건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약국 제외)

지역	국립	공립	학교 법인	특수 법인	종교 법인	사회복 지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회사 법인	의료 법인	개인	군병원	기타	
서울	N	13	36	31	18	1	25	34	31	21	110	14,623	2	173
	지역내%	0.1	0.2	0.2	0.1	0.0	0.2	0.2	0.2	0.1	0.7	96.7	0.0	1.1
	설립건%	20.6	1.1	20.7	14.0	20.0	17.9	16.0	15.6	28.0	11.2	27.7	3.8	23.8
부산	N	3	32	10	30		15	32	26	3	94	4,042	4	21
	지역내%	0.0	0.7	0.2	0.7		0.3	0.7	0.6	0.1	2.2	93.7	0.1	0.5
	설립건%	3.2	0.9	6.7	23.3		10.7	15.1	13.1	4.0	9.6	7.7	7.7	2.9
대구	N	1	28	8	5		8	10	16	1	40	2,953		24
	지역내%	0.0	0.9	0.3	0.2		0.3	0.3	0.5	0.0	1.3	95.4		0.8
	설립건%	1.6	0.8	5.3	3.9		5.7	4.7	8.0	1.3	4.1	5.6		3.3
인천	N		54	7	7		9	15	2	3	29	2,458	3	51
	지역내%		2.0	0.3	0.3		0.3	0.6	0.1	0.1	1.1	93.2	0.1	1.9
	설립건%		1.6	4.7	5.4		6.4	7.1	1.0	4.0	3.0	4.7	5.8	7.0
광주	N		16	8	3		3	7	7	7	13	1,636		12
	지역내%		0.9	0.5	0.2		0.2	0.4	0.4	0.4	0.8	95.6		0.7
	설립건%		0.5	5.3	2.3		2.1	3.3	3.5	9.3	1.3	3.1		1.7
대전	N		23	8	7		12	10	2	1	36	1,792	4	24
	지역내%		1.2	0.4	0.4		0.6	0.5	0.1	0.1	1.9	93.4	0.2	1.3
	설립건%		0.7	5.3	5.4		8.6	4.7	1.0	1.3	3.7	3.4	7.7	3.3
울산	N		25	3	7		4	7	3	5	22	1,066		17
	지역내%		2.2	0.3	0.6		0.3	0.6	0.3	0.4	1.9	92.0		1.5
	설립건%		0.7	2.0	5.4		2.9	3.3	1.5	6.7	2.2	2.0		2.3
경기	N	7	344	22	11	1	21	28	36	8	198	10,763	10	126
	지역내%	0.1	3.0	0.2	0.1	0.0	0.2	0.2	0.3	0.1	1.7	93.0	0.1	1.1
	설립건%	11.1	10.1	14.7	8.5	20.0	15.0	13.2	18.1	10.7	20.2	20.4	19.2	17.3
강원	N	6	246	4	6	2	3	9	5	1	31	1,253	10	21
	지역내%	0.4	15.4	0.3	0.4	0.1	0.2	0.6	0.3	0.1	1.9	78.5	0.6	1.3
	설립건%	9.5	7.2	2.7	4.7	40.0	2.1	4.2	2.5	1.3	3.2	2.4	19.2	2.9
충북	N	2	262	8	8		9	16	3	1	35	1,354	3	20
	지역내%	0.1	15.2	0.5	0.5		0.5	0.9	0.2	0.1	2.0	78.7	0.2	1.2
	설립건%	3.2	7.7	5.3	6.2		6.4	7.5	1.5	1.3	3.6	2.6	5.8	2.8
충남	N	7	391	12	4		4	6	4	4	53	1,796	4	50
	지역내%	0.3	16.7	0.5	0.2		0.2	0.3	0.2	0.2	2.3	76.9	0.2	2.1
	설립건%	11.1	11.4	8.0	3.1		2.9	2.8	2.0	5.3	5.4	3.4	7.7	6.9
전북	N	6	392	12	4	1	4	12	25		54	1,884	1	27
	지역내%	0.2	16.2	0.5	0.2	0.0	0.2	0.5	1.0		2.2	77.8	0.0	1.1
	설립건%	9.5	11.5	8.0	3.1	20.0	2.9	5.7	12.6		5.5	3.6	1.9	3.7
전남	N	10	547	5	3		2	2	5	3	58	1,559	2	55
	지역내%	0.4	24.3	0.2	0.1		0.1	0.1	0.2	0.1	2.6	69.3	0.1	2.4
	설립건%	15.9	16.0	3.3	2.3		1.4	0.9	2.5	4.0	5.9	3.0	3.8	7.6
경북	N	6	554	11	3		11	5	24	9	99	2,179	4	37
	지역내%	0.2	18.8	0.4	0.1		0.4	0.2	0.8	0.3	3.4	74.1	0.1	1.3
	설립건%	9.5	16.2	7.3	2.3		7.9	2.4	12.1	12.0	10.1	4.1	7.7	5.1
경남	N	5	402	1	11		7	14	8	8	96	2,805	5	63
	지역내%	0.1	11.7	0.0	0.3		0.2	0.4	0.2	0.2	2.8	81.9	0.1	1.8
	설립건%	4.8	11.8	0.7	8.5		5.0	6.6	4.0	10.7	9.8	5.3	9.6	8.7
제주	N		64		2		3	5	2		11	545		6
	지역내%		10.0		0.3		0.5	0.8	0.3		1.7	85.4		0.9
	설립건%		1.9		1.6		2.1	2.4	1.0		1.1	1.0		0.8
전체	N	66	3,416	150	129	5	140	212	199	75	979	52,708	52	727
	지역내%	0.1	5.8	0.3	0.2	0.0	0.2	0.4	0.3	0.1	1.7	89.6	0.1	1.2
	설립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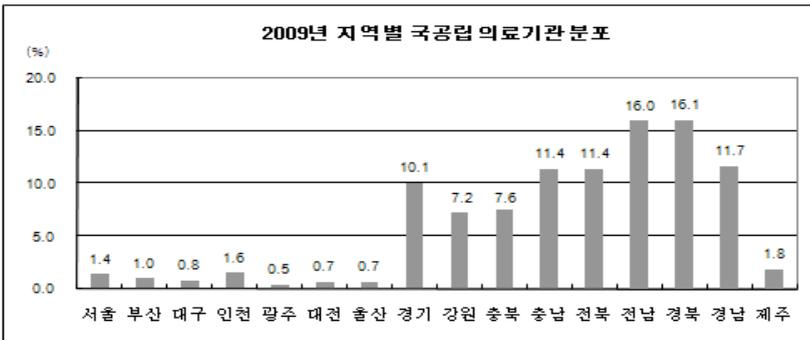
〈표 3-4〉 의료기관 종별 설립형태별 분포 현황(약국 제외)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조산원	계
Count		24	3	2	34		63
국립	설립구분 내%	38.1	4.8	3.2	54.0		100.0
	의료기관 내%	0.1	0.0	0.0	1.0		0.1
	Count	3					3
국립대학	설립구분 내%	100.0					100.0
	의료기관 내%	0.0					0.0
	Count	70	3	5	3,338		3,416
공립	설립구분 내%	2.0	0.1	0.1	97.7		100.0
	의료기관 내%	0.2	0.0	0.0	96.4		5.8
	Count	102	13	35			150
학교법인	설립구분 내%	68.0	8.7	23.3			100.0
	의료기관 내%	0.3	0.1	0.3			0.3
	Count	96	10	23			129
특수법인	설립구분 내%	74.4	7.8	17.8			100.0
	의료기관 내%	0.3	0.1	0.2			0.2
	Count	4	1				5
종교법인	설립구분 내%	80.0	20.0				100.0
	의료기관 내%	0.0	0.0				0.0
	Count	124	3	13			140
사회복지법인	설립구분 내%	88.6	2.1	9.3			100.0
	의료기관 내%	0.4	0.0	0.1			0.2
	Count	163	19	30			212
사단법인	설립구분 내%	76.9	9.0	14.2			100.0
	의료기관 내%	0.6	0.1	0.3			0.4
	Count	155	8	35	1		199
재단법인	설립구분 내%	77.9	4.0	17.6	0.5		100.0
	의료기관 내%	0.5	0.1	0.3	0.0		0.3
	Count	63	11	1			75
회사법인	설립구분 내%	84.0	14.7	1.3			100.0
	의료기관 내%	0.2	0.1	0.0			0.1
	Count	826	51	99	3		979
의료법인	설립구분 내%	84.4	5.2	10.1	0.3		100.0
	의료기관 내%	2.8	0.4	0.8	0.1		1.7
	Count	27,273	13,942	11,439	4	50	52,708
개인	설립구분 내%	51.7	26.5	21.7	0.0	0.1	100.0
	의료기관 내%	93.2	98.1	96.5	0.1	100.0	89.6
	Count	26	7	19			52
군병원	설립구분 내%	50.0	13.5	36.5			100.0
	의료기관 내%	0.1	0.0	0.2			0.1
	Count	349	143	154	81		727
기타	설립구분 내%	48.0	19.7	21.2	11.1		100.0
	의료기관 내%	1.2	1.0	1.3	2.3		1.2
	Count	29,278	14,214	11,855	3,461	50	58,858
설립구분 내%		49.7	24.1	20.1	5.9	0.1	100.0
의료기관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7] 지역별 개인 설립 의료기관 분포



[그림 3-8] 지역별 국공립 의료기관 분포



3. 지역별 진료과 분포

가. 26개 일반 진료과 분포

전국 병의원에 개설되어 있는 총 진료과 수는 119,335개 이었다. 그 중 내과를 개설한 병의원이 19,545개(1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3,419개(11.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서 피부과(10.1%) 이비인후과(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병의원 진료과 현황

순위	진료과	합계(개)	비율(%)
1	내과	19,545	16.4
2	소아청소년과	13,419	11.2
3	피부과	12,062	10.1
4	이비인후과	9,359	7.8
5	정형외과	8,422	7.1
6	외과	8,321	7.0
7	비뇨기과	7,867	6.6
8	가정의학과	5,961	5.0
9	신경외과	4,391	3.7
10	재활의학과	3,798	3.2
11	산부인과	3,782	3.2
12	안과	3,564	3.0
13	영상의학과	3,299	2.8
14	미취통증의학과	3,178	2.7
15	신경과	3,039	2.5
16	성형외과	2,826	2.4
17	정신과	2,072	1.7
18	진단검사의학과	1,657	1.4
19	흉부외과	768	0.6
20	병리과	702	0.6
21	응급의학과	372	0.3
22	결핵과	306	0.3
23	산업의학과	213	0.2
24	예방의학과	213	0.2
25	방사선종양학과	103	0.1
26	핵의학과	96	0.1
	합계	119,335	100.0

이러한 진료과의 순위는 지역별로 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외과 및 비뇨기과의 7개 진료과가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진료과 현황을 보면, 우선 내과는 서울이 18.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기(18.7%), 경남(7.5%)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 지역과 타 지역 간의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는 224개로 전체 내과 중 1.1%를 차지하였다. 26개 진료과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아청소년과는 경기가 22.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20.8%를 차지하고 있었고, 부산이 7.2%로 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피부과도 서울 23.3%, 경기도에 20.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부산(7.8%), 경남(7.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 진료과들을 살펴보면, 성형외과의 경우 서울이 35.9%로 가장 많고 경기가 19.2%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합치면 55.1%가 되어, 절반 이상의 성형외과가 서울 및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의학과는 서울에 22.6%, 경기지역에 1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산이 (8.2%) 광주가 7.8%(6.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사선종양학과는 서울(33.0%), 경기(16.5%), 부산(8.7%)지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서울(360개, 21.7%)지역을 제외하면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및 전남 지역이 약 10% 안팎으로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핵의학과는 경우도 총 96개 중 서울이 30개(31.3%), 경기가 17개(17.7%)로 전체 49.0%를 차지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예방의학과는 경우 다른 과들과는 달리 서울이 아닌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14.1%이며 경남은 11.7%, 서울이 11.3%의 비중을 나타냈고 전남 또한 8.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6〉 지역별 병의원 진료과 현황

지역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서울	N	3,696	630	537	1,556	1,571	790	136	1,015	615	1,007	2,790	787	1,965
	%	18.9	20.7	25.9	18.7	18.7	18.0	17.7	35.9	19.4	26.6	20.8	22.1	21.0
부산	N	1,308	252	142	585	606	361	51	212	266	306	967	190	602
	%	6.7	8.3	6.9	7.0	7.2	8.2	6.6	7.5	8.4	8.1	7.2	5.3	6.4
대구	N	918	166	83	312	365	244	23	127	215	201	722	227	523
	%	4.7	5.5	4.0	3.7	4.3	5.6	3.0	4.5	6.8	5.3	5.4	6.4	5.6
인천	N	917	135	90	437	457	256	35	133	123	172	738	148	484
	%	4.7	4.4	4.3	5.3	5.4	5.8	4.6	4.7	3.9	4.5	5.5	4.2	5.2
광주	N	553	130	100	305	278	158	42	123	136	152	424	154	311
	%	2.8	4.3	4.8	3.7	3.3	3.6	5.5	4.4	4.3	4.0	3.2	4.3	3.3
대전	N	596	138	95	253	266	119	30	80	93	107	447	95	310
	%	3.0	4.5	4.6	3.0	3.2	2.7	3.9	2.8	2.9	2.8	3.3	2.7	3.3
울산	N	363	65	30	141	146	83	18	47	75	72	270	63	195
	%	1.9	2.1	1.4	1.7	1.7	1.9	2.3	1.7	2.4	1.9	2.0	1.8	2.1
경기	N	3,658	531	420	1,600	1,676	859	136	542	551	689	2,946	659	2,028
	%	18.7	17.5	20.3	19.2	19.9	19.6	17.7	19.2	17.3	18.2	22.0	18.5	21.7
강원	N	627	57	41	239	261	115	21	34	87	91	333	81	223
	%	3.2	1.9	2.0	2.9	3.1	2.6	2.7	1.2	2.7	2.4	2.5	2.3	2.4
충북	N	745	102	66	296	295	149	29	51	99	108	406	102	282
	%	3.8	3.4	3.2	3.6	3.5	3.4	3.8	1.8	3.1	2.9	3.0	2.9	3.0
충남	N	1,055	146	86	447	440	190	45	77	137	129	553	138	360
	%	5.4	4.8	4.2	5.4	5.2	4.3	5.9	2.7	4.3	3.4	4.1	3.9	3.8
전북	N	980	124	89	375	392	235	37	59	129	140	501	182	357
	%	5.0	4.1	4.3	4.5	4.7	5.4	4.8	2.1	4.1	3.7	3.7	5.1	3.8
전남	N	1,121	112	70	538	469	232	48	83	175	173	604	200	446
	%	5.7	3.7	3.4	6.5	5.6	5.3	6.2	2.9	5.5	4.6	4.5	5.6	4.8
경북	N	1,323	170	77	495	478	216	48	75	200	163	657	225	507
	%	6.8	5.6	3.7	5.9	5.7	4.9	6.2	2.7	6.3	4.3	4.9	6.3	5.4
경남	N	1,461	246	121	646	619	340	61	150	247	228	914	270	674
	%	7.5	8.1	5.8	7.8	7.3	7.7	7.9	5.3	7.8	6.0	6.8	7.6	7.2
제주	N	224	35	25	96	103	44	8	18	30	44	147	43	92
	%	1.1	1.2	1.2	1.2	1.2	1.0	1.0	0.6	0.9	1.2	1.1	1.2	1.0
전체	N	19,545	3,039	2,072	8,321	8,422	4,391	768	2,826	3,178	3,782	13,419	3,564	9,359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피부과	비뇨 기과	영상 의학 과	방사선 중앙 학과	병리과	진단 검사 학과	결핵 과	재활 학과	핵 학과	가정 학과	응급 학과	산업 학과	예방 학과
서울	N	2,807	1,627	747	34	145	360	73	823	30	1,414	72	28	24
	%	23.3	20.7	22.6	33.0	20.7	21.7	23.9	21.7	31.3	23.7	19.4	13.1	11.3
부산	N	945	625	271	9	59	157	37	286	8	462	16	12	14
	%	7.8	7.9	8.2	8.7	8.4	9.5	12.1	7.5	8.3	7.8	4.3	5.6	6.6
대구	N	553	336	208	6	63	174	6	191	7	283	18	6	9
	%	4.6	4.3	6.3	5.8	9.0	10.5	2.0	5.0	7.3	4.7	4.8	2.8	4.2
인천	N	591	450	167	5	29	56	14	198	2	300	24	15	8
	%	4.9	5.7	5.1	4.9	4.1	3.4	4.6	5.2	2.1	5.0	6.5	7.0	3.8
광주	N	409	281	225	4	57	170	18	197	6	201	15	10	15
	%	3.4	3.6	6.8	3.9	8.1	10.3	5.9	5.2	6.3	3.4	4.0	4.7	7.0
대전	N	403	227	82	4	16	35	7	172	6	215	12	8	9
	%	3.3	2.9	2.5	3.9	2.3	2.1	2.3	4.5	6.3	3.6	3.2	3.8	4.2
울산	N	262	181	62	1	16	19	5	75	2	86	5	7	6
	%	2.2	2.3	1.9	1.0	2.3	1.1	1.6	2.0	2.1	1.4	1.3	3.3	2.8
경기	N	2,433	1,589	568	17	95	209	58	705	17	1,079	72	42	30
	%	20.2	20.2	17.2	16.5	13.5	12.6	19.0	18.6	17.7	18.1	19.4	19.7	14.1
강원	N	256	201	80	3	16	31	6	75	2	119	12	9	4
	%	2.1	2.6	2.4	2.9	2.3	1.9	2.0	2.0	2.1	2.0	3.2	4.2	1.9
충북	N	348	236	68	2	14	23	14	124	1	193	15	8	10
	%	2.9	3.0	2.1	1.9	2.0	1.4	4.6	3.3	1.0	3.2	4.0	3.8	4.7
충남	N	507	342	115	2	11	37	8	183	1	270	18	14	14
	%	4.2	4.3	3.5	1.9	1.6	2.2	2.6	4.8	1.0	4.5	4.8	6.6	6.6
전북	N	452	324	89	4	20	43	12	133	5	374	18	5	7
	%	3.7	4.1	2.7	3.9	2.8	2.6	3.9	3.5	5.2	6.3	4.8	2.3	3.3
전남	N	548	401	223	2	46	139	8	229	-	253	24	10	18
	%	4.5	5.1	6.8	1.9	6.6	8.4	2.6	6.0	-	4.2	6.5	4.7	8.5
경북	N	574	387	148	3	48	90	17	160	2	301	24	16	17
	%	4.8	4.9	4.5	2.9	6.8	5.4	5.6	4.2	2.1	5.0	6.5	7.5	8.0
경남	N	865	591	223	5	60	101	21	211	5	362	22	20	25
	%	7.2	7.5	6.8	4.9	8.5	6.1	6.9	5.6	5.2	6.1	5.9	9.4	11.7
제주	N	109	69	23	2	7	13	2	36	2	49	5	3	3
	%	0.9	0.9	0.7	1.9	1.0	0.8	0.7	0.9	2.1	0.8	1.3	1.4	1.4
전체	N	12,062	7,867	3,299	103	702	1,657	306	3,798	96	5,961	372	213	213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치과 전문 진료과 분포

치과병원의원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1개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11개 진료과의 총 수는 98,117개로 나타났고, 서울에서 29,799개의 진료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진료과 중 30.3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21,154개로 21.56%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병원의원은 일반병의원과는 달리 구강병리와 7.8%와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의 9.7% 사이에서 진료과들이 7.8~9.7%의 비중으로 고르게 나타나 진료과별 비중의 차이는 비교적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모든 진료과에 걸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 중에서 울산과 제주도는 제일 낮은 보유비중을 나타냈다. 치과병원의원의 진료과는 서울 및 경기지역과 부산, 대구 및 인천 등 광역시에서 타지방에 비해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표 3-7〉 치과병의원 진료과 현황

순위	진료과	진료과수(개)	비율(%)
1	치과보철과	9,531	9.7
2	치과보존과	9,490	9.7
3	치주과	9,440	9.6
4	예방치과	9,401	9.6
5	소아치과	9,303	9.5
6	구강악안면외과	8,994	9.2
7	구강내과	8,940	9.1
8	구강악안면방사선과	8,734	8.9
9	치과일반	8,442	8.6
10	치과교정과	8,236	8.4
11	구강병리와	7,606	7.8
합 계		98,117	100.0

〈표 3-8〉 지역별 치과병의원 진료과 현황

지역		치과	구강	치과	치과	소아	치주과	치과	구강	구강	구강	예방
		일반	악안면 외과	보철과	교정과	치과		보존과	내과	악안면 방사선과		
서울	N	2245	2,766	2923	2581	2817	2894	2920	2744	2681	2379	2849
	%	26.6	30.8	30.7	31.3	30.3	30.7	30.8	30.7	30.7	31.3	30.3
부산	N	502	591	618	537	607	611	614	580	573	507	603
	%	5.9	6.6	6.5	6.5	6.5	6.5	6.5	6.5	6.6	6.7	6.4
대구	N	373	479	504	427	490	496	498	473	470	410	494
	%	4.4	5.3	5.3	5.2	5.3	5.3	5.2	5.3	5.4	5.4	5.3
인천	N	271	460	482	428	470	481	478	452	446	387	484
	%	3.2	5.1	5.1	5.2	5.1	5.1	5.0	5.1	5.1	5.1	5.1
광주	N	267	320	337	305	336	333	341	326	318	281	335
	%	3.2	3.6	3.5	3.7	3.6	3.5	3.6	3.6	3.6	3.7	3.6
대전	N	279	297	325	277	312	319	321	304	291	263	319
	%	3.3	3.3	3.4	3.4	3.4	3.4	3.4	3.4	3.3	3.5	3.4
울산	N	173	171	192	161	184	190	189	177	171	150	188
	%	2.0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경기	N	1714	1,954	2063	1812	2028	2049	2057	1922	1889	1623	2043
	%	20.3	21.7	21.6	22.0	21.8	21.7	21.7	21.5	21.6	21.3	21.7
강원	N	302	176	189	139	189	185	188	178	165	129	193
	%	3.6	2.0	2.0	1.7	2.0	2.0	2.0	2.0	1.9	1.7	2.1
충북	N	224	195	194	172	195	193	195	192	186	156	199
	%	2.7	2.2	2.0	2.1	2.1	2.0	2.1	2.1	2.1	2.1	2.1
충남	N	377	276	300	233	291	299	298	269	263	211	294
	%	4.5	3.1	3.1	2.8	3.1	3.2	3.1	3.0	3.0	2.8	3.1
전북	N	295	307	320	279	316	321	322	310	299	283	327
	%	3.5	3.4	3.4	3.4	3.4	3.4	3.4	3.5	3.4	3.7	3.5
전남	N	364	224	239	205	239	234	233	209	206	159	222
	%	4.3	2.5	2.5	2.5	2.6	2.5	2.5	2.3	2.4	2.1	2.4
경북	N	425	318	335	266	329	328	329	324	315	271	334
	%	5.0	3.5	3.5	3.2	3.5	3.5	3.5	3.6	3.6	3.6	3.6
경남	N	529	377	421	344	412	417	419	396	382	329	427
	%	6.3	4.2	4.4	4.2	4.4	4.4	4.4	4.4	4.4	4.3	4.5
제주	N	102	83	89	70	88	90	88	84	79	68	90
	%	1.2	0.9	0.9	0.8	0.9	1.0	0.9	0.9	0.9	0.9	1.0
전체	N	8442	8,994	9531	8236	9303	9440	9490	8940	8734	7606	9401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한방 전문 진료과 분포

한방 병의원의 진료과는 한방내과, 한방 부인과를 포함하여 총 10개 진료과로 분류하였으며, 한방병의원 중 가장 많이 설치된 진료과는 한방내과로 총 10,939개, 1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응급 및 한방일반을 제외한 8개과의 보유비율의 차이는 9.6~11.6% 사이로 그리 크지 않다. 각 한방 진료과의 비중을 아래 <표 3-8>와 같다.

<표 3-9>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현황

순위	진료과	진료과수(개)	비율(%)
1	한방내과	10,939	11.6
2	침구과	10,770	11.4
3	한방부인과	10,628	11.3
4	한방소아과	10,545	11.2
5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480	11.1
6	한방신경정신과	10,286	10.9
7	한방재활의학과	9,410	10.0
8	사상체질과	9,011	9.6
9	한방응급	6,531	6.9
10	한방일반	5,548	5.9
	합 계	94,148	100.0

한방병의원은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 3-9>와 같으며, 대부분의 진료과는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한방내과는 서울이 27.4%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이 18.6%로 그 다음을 이었다. 세 번째로 부산지역은 7.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0.9%에 그쳤다. 또한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는 모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의 순으로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방응급은 총 6,531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1.7%), 경기(22.6%), 부산(7.6%)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구가 7.5%, 인천이 4.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10〉 지역별 한방병의원 진료과 현황

지역		한방 일반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 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 의학과	사상 체질과	한방 응급
서울	N	1184	2994	2971	2956	2943	2927	2983	2766	2739	2068
	%	21.3	27.4	28.0	28.0	28.1	28.5	27.7	29.4	30.4	31.7
부산	N	352	834	816	806	804	774	830	717	659	495
	%	6.3	7.6	7.7	7.6	7.7	7.5	7.7	7.6	7.3	7.6
대구	N	303	697	688	685	683	680	691	623	606	490
	%	5.5	6.4	6.5	6.5	6.5	6.6	6.4	6.6	6.7	7.5
인천	N	189	476	463	460	460	453	469	420	414	308
	%	3.4	4.4	4.4	4.4	4.4	4.4	4.4	4.5	4.6	4.7
광주	N	123	300	287	289	290	273	301	237	211	76
	%	2.2	2.7	2.7	2.7	2.8	2.7	2.8	2.5	2.3	1.2
대전	N	237	399	382	384	375	371	385	346	317	224
	%	4.3	3.6	3.6	3.6	3.6	3.6	3.6	3.7	3.5	3.4
울산	N	102	248	233	231	226	223	243	187	177	85
	%	1.8	2.3	2.2	2.2	2.2	2.2	2.3	2.0	2.0	1.3
경기	N	967	2031	2000	1991	1990	1954	2014	1834	1764	1473
	%	17.4	18.6	18.8	18.9	19.0	19.0	18.7	19.5	19.6	22.6
강원	N	226	278	263	261	263	247	269	228	207	157
	%	4.1	2.5	2.5	2.5	2.5	2.4	2.5	2.4	2.3	2.4
충북	N	187	296	281	280	278	267	288	234	206	161
	%	3.4	2.7	2.6	2.7	2.7	2.6	2.7	2.5	2.3	2.5
충남	N	334	405	371	368	362	359	376	317	288	158
	%	6.0	3.7	3.5	3.5	3.5	3.5	3.5	3.4	3.2	2.4
전북	N	221	411	383	381	370	368	395	345	324	200
	%	4.0	3.8	3.6	3.6	3.5	3.6	3.7	3.7	3.6	3.1
전남	N	288	307	286	277	269	259	296	216	198	74
	%	5.2	2.8	2.7	2.6	2.6	2.5	2.7	2.3	2.2	1.1
경북	N	375	524	486	475	464	452	508	370	360	231
	%	6.8	4.8	4.6	4.5	4.4	4.4	4.7	3.9	4.0	3.5
경남	N	377	636	617	601	600	583	620	483	462	282
	%	6.8	5.8	5.8	5.7	5.7	5.7	5.8	5.1	5.1	4.3
제주	N	83	103	101	100	103	96	102	87	79	49
	%	1.5	0.9	1.0	0.9	1.0	0.9	0.9	0.9	0.9	0.8
전체	N	5548	10939	10628	10545	10480	10286	10770	9410	9011	6531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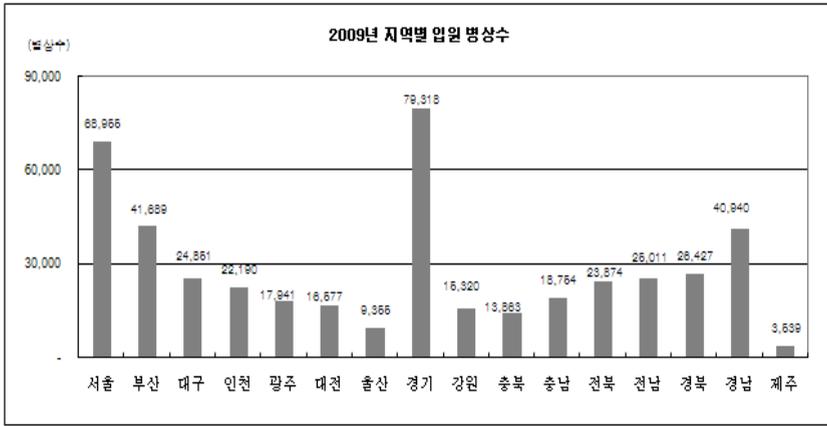
4. 지역별 병상분포

우리나라 입원병상은 448,604병상이며 이 중 상급병상이 88,104병상과 일반병상이 360,500병상으로 조사되었다. 입원병상 외에도 낫 병상은 3,762병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입원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79,318병상(17.7%)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부산, 경남지역 순으로 서울지역이 68,955병상(15.4%), 부산지역이 41,689병상(9.3%), 그리고 경남지역이 40,940병상(9.1%)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0.8%인 3,539병상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병상 수 분포

지역		기준병상	상급병상	총 입원병상	낮병상
서울	병상수	49,399	19,556	68,955	972
	%	13.7	22.2	15.4	25.8
부산	병상수	31,917	9,772	41,689	226
	%	8.9	11.1	9.3	6.0
대구	병상수	20,642	4,209	24,851	128
	%	5.7	4.8	5.5	3.4
인천	병상수	17,942	4,248	22,190	184
	%	5.0	4.8	4.9	4.9
광주	병상수	13,607	4,334	17,941	186
	%	3.8	4.9	4.0	4.9
대전	병상수	12,948	3,629	16,577	159
	%	3.6	4.1	3.7	4.2
울산	병상수	7,418	1,937	9,355	39
	%	2.1	2.2	2.1	1.0
경기	병상수	64,198	15,120	79,318	765
	%	17.8	17.2	17.7	20.3
강원	병상수	13,276	2,044	15,320	71
	%	3.7	2.3	3.4	1.9
충북	병상수	11,529	2,334	13,863	33
	%	3.2	2.6	3.1	0.9
충남	병상수	16,224	2,530	18,754	138
	%	4.5	2.9	4.2	3.7
전북	병상수	20,781	3,093	23,874	358
	%	5.8	3.5	5.3	9.5
전남	병상수	21,128	3,883	25,011	189
	%	5.9	4.4	5.6	5.0
경북	병상수	22,759	3,668	26,427	121
	%	6.3	4.2	5.9	3.2
경남	병상수	34,106	6,834	40,940	193
	%	9.5	7.8	9.1	5.1
제주	병상수	2,626	913	3,539	-
	%	0.7	1.0	0.8	-
전체	병상수	360,500	88,104	448,604	3,762
	%	100.0	100.0	100.0	100.0

[그림 3-9] 지역별 입원 병상 수



<표 3-12>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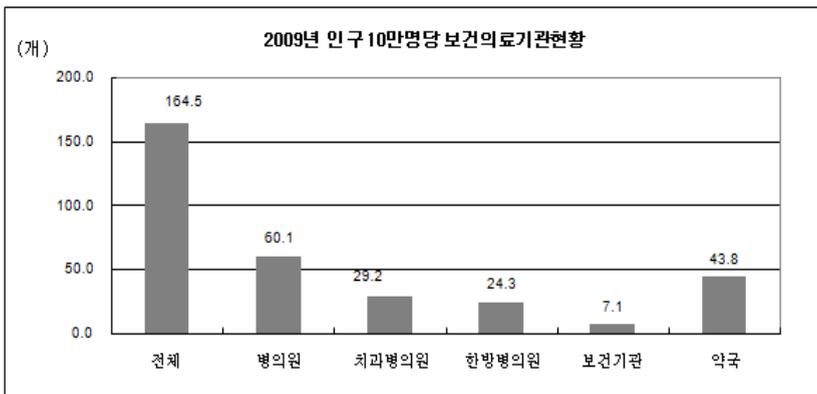
지역		기준병상	상급병상	총 입원병상	낮병상
병의원	병상수	351,701	84,938	436,639	3,728
	%	97.8	96.5	97.6	99.1
치과병의원	병상수	212	52	264	7
	%	0.1	0.1	0.1	0.2
한방병의원	병상수	7,129	2,919	10,048	25
	%	2.0	3.3	2.2	0.7
보건기관	병상수	417	52	469	-
	%	0.1	0.1	0.1	-
조산원	병상수	40	49	89	-
	%	0.0	0.1	0.0	-
전체	병상수	359,499	88,010	447,509	3,760
	%	100.0	100.0	100.0	100.0

5. 지역별 인구대비 의료시설 분포

가.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 수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4.5개이며 병의원은 60.1개, 치과병의원은 29.2개, 한방병의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1개, 약국 43.8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4.6개로 인구대비 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대비 병상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로 인구 10만 명 당 137.0개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각 보건의료기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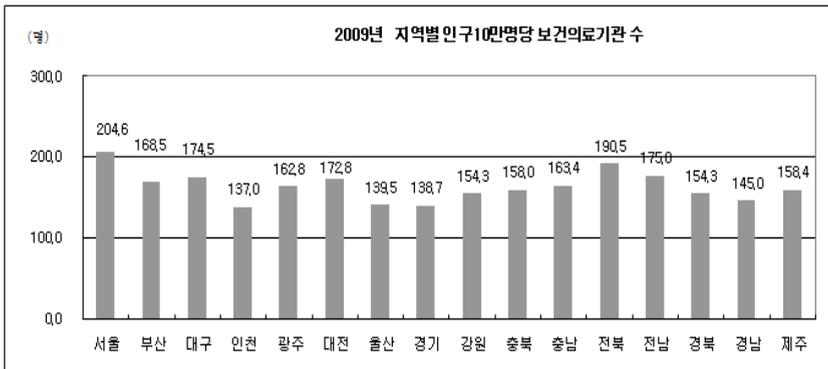
[그림 3-10]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표 3-1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 의료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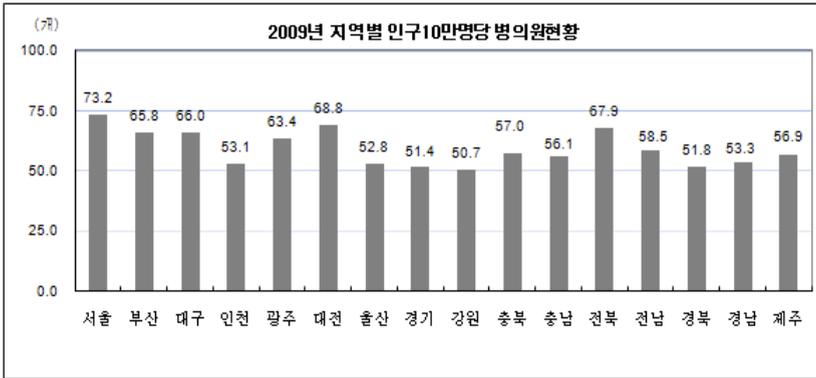
구분	전체	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기관	약국
전체	164.5	60.1	29.2	24.3	7.1	43.8
서울	204.6	73.2	43.8	33.3	0.3	54.0
부산	168.5	65.8	29.7	27.5	0.9	44.3
대구	174.5	66.0	29.2	30.3	1.1	47.9
인천	137.0	53.1	25.3	19.1	2.2	37.3
광주	162.8	63.4	32.2	21.2	1.0	44.6
대전	172.8	68.8	28.9	28.2	1.4	45.4
울산	139.5	52.8	28.1	23.1	2.4	33.1
경기	138.7	51.4	26.9	19.7	2.9	37.5
강원	154.3	50.7	21.1	21.1	16.9	44.3
충북	158.0	57.0	19.7	21.2	18.1	41.7
충남	163.4	56.1	21.2	21.2	21.2	43.8
전북	190.5	67.9	24.7	24.2	23.7	50.1
전남	175.8	58.5	20.2	17.0	31.8	48.1
경북	154.3	51.8	18.9	21.0	21.3	41.3
경남	145.0	53.3	21.8	20.9	13.0	35.8
제주	158.4	56.9	26.4	21.8	11.5	41.6

〔그림 3-11〕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 의료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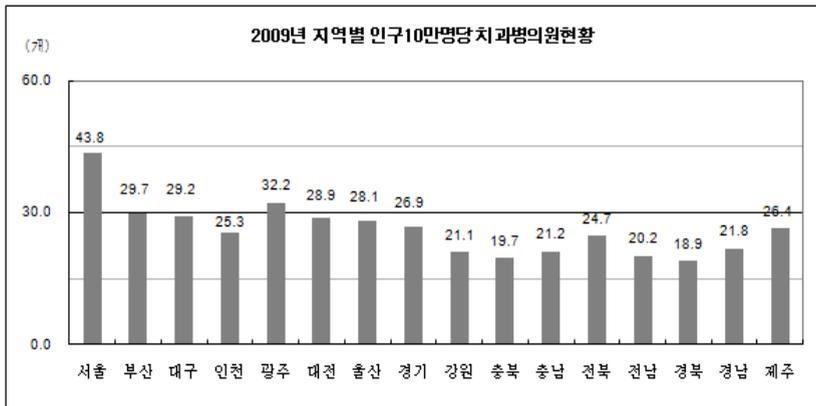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병의원 수는 60.1개소로 나타났으며, 인구대 비 병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인구 10만 명 당 73.2개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지역으로 인구 10만 명 당 50.7개소로 파악되었다.

[그림 3-12]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병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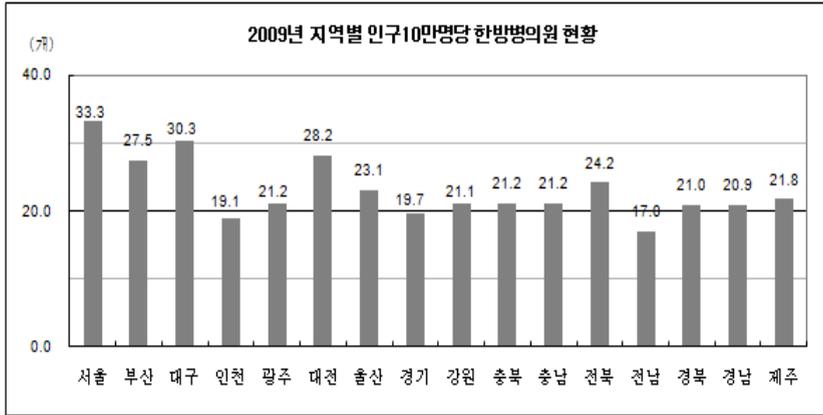
치과병원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29.2개소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지역으로 인구 10만 명 당 각각 19.7개소와 18.9개소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3.8개소로 가장 적은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이 2.3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치과병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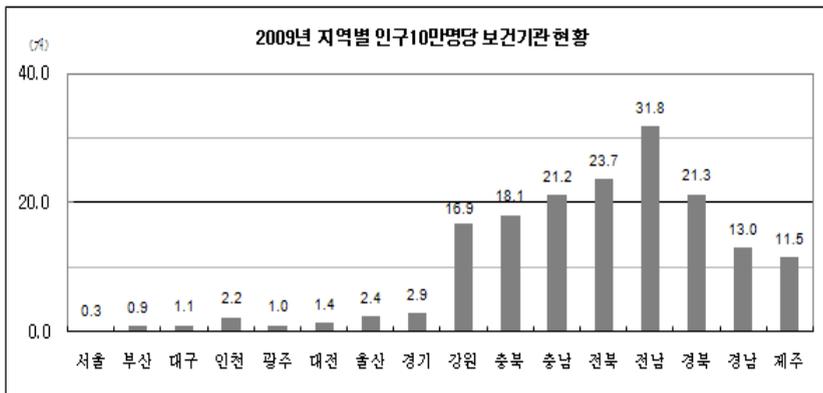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인구10만 명 당 24.3개소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7.0개소였고,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3.3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3-1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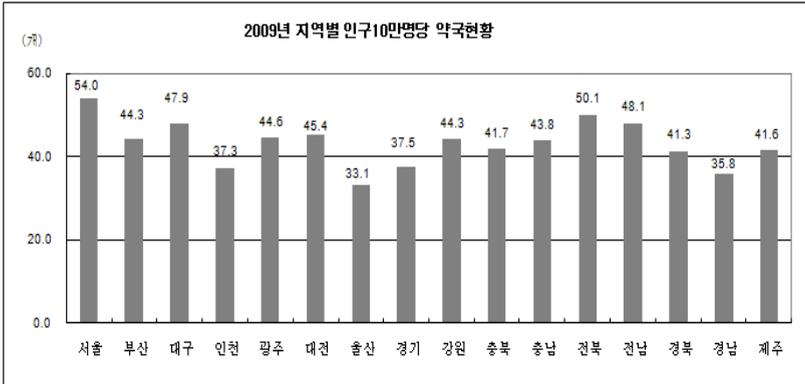
보건기관은 인구10만 명 당 7.1개소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전북지역이 인구 10만 명 당 보건기관수가 각각 31.8%와 23.7%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기관 현황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약국 수는 서울이 54.0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북이 50.1개소로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울산이 33.1개소로 조사되었다.

[그림 3-16]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약국 현황



나.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과

양방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26개 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과목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인구 10만 명당 내과가 40.1개 그리고 소아청소년과가 27.5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과 24.7개, 이비인후과 19.2개, 정형외과 17.3개, 외과 17.1개, 비뇨기과 16.1개 순으로 나타났다. 일차 진료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를 합한 일차 진료과목은 인구 10만 명당 77.2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개설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18.3개였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60.7개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지역은 108.4개과로 나타나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학과는 경우도 가장 많이 개설된 곳은 전남 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1.4개로 가장 적은 지역인 울산이나 부산(0.5개소)에 비해 2.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병의원 진료과 분포

지역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 의학과
전체	40.1	6.2	4.3	17.1	17.3	9.0	1.6	5.8	6.5
서울	36.8	6.3	5.4	15.5	15.7	7.9	1.4	10.1	6.1
부산	37.7	7.3	4.1	16.9	17.5	10.4	1.5	6.1	7.7
대구	37.6	6.8	3.4	12.8	14.9	10.0	0.9	5.2	8.8
인천	34.7	5.1	3.4	16.5	17.3	9.7	1.3	5.0	4.6
광주	38.2	9.0	6.9	21.1	19.2	10.9	2.9	8.5	9.4
대전	39.6	9.2	6.3	16.8	17.7	7.9	2.0	5.3	6.2
울산	33.3	6.0	2.8	12.9	13.4	7.6	1.7	4.3	6.9
경기	32.0	4.6	3.7	14.0	14.6	7.5	1.2	4.7	4.8
강원	43.2	3.9	2.8	16.5	18.0	7.9	1.4	2.3	6.0
충북	50.3	6.9	4.5	20.0	19.9	10.1	2.0	3.4	6.7
충남	54.1	7.5	4.4	22.9	22.6	9.7	2.3	3.9	7.0
전북	56.8	7.2	5.2	21.8	22.7	13.6	2.1	3.4	7.5
전남	63.6	6.4	4.0	30.5	26.6	13.2	2.7	4.7	9.9
경북	50.8	6.5	3.0	19.0	18.3	8.3	1.8	2.9	7.7
경남	46.6	7.8	3.9	20.6	19.7	10.8	1.9	4.8	7.9
제주	41.0	6.4	4.6	17.6	18.9	8.1	1.5	3.3	5.5

지역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 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전체	7.8	27.5	7.3	19.2	24.7	16.1	6.8	0.2	1.4
서울	10.0	27.8	7.8	19.6	28.0	16.2	7.4	0.3	1.4
부산	8.8	27.9	5.5	17.3	27.2	18.0	7.8	0.3	1.7
대구	8.2	29.5	9.3	21.4	22.6	13.7	8.5	0.2	2.6
인천	6.5	27.9	5.6	18.3	22.3	17.0	6.3	0.2	1.1
광주	10.5	29.3	10.6	21.5	28.2	19.4	15.5	0.3	3.9
대전	7.1	29.7	6.3	20.6	26.8	15.1	5.4	0.3	1.1
울산	6.6	24.8	5.8	17.9	24.0	16.6	5.7	0.1	1.5
경기	6.0	25.7	5.8	17.7	21.3	13.9	5.0	0.1	0.8
강원	6.3	22.9	5.6	15.4	17.6	13.8	5.5	0.2	1.1
충북	7.3	27.4	6.9	19.0	23.5	15.9	4.6	0.1	0.9
충남	6.6	28.3	7.1	18.5	26.0	17.5	5.9	0.1	0.6
전북	8.1	29.1	10.6	20.7	26.2	18.8	5.2	0.2	1.2
전남	9.8	34.3	11.4	25.3	31.1	22.8	12.7	0.1	2.6
경북	6.3	25.2	8.6	19.5	22.0	14.9	5.7	0.1	1.8
경남	7.3	29.1	8.6	21.5	27.6	18.8	7.1	0.2	1.9
제주	8.1	26.9	7.9	16.8	20.0	12.6	4.2	0.4	1.3

	진단검사의 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 의학과	응급 의학과	산업 의학과	예방 의학과
전체	3.4	0.6	7.8	0.2	12.2	0.8	0.4	0.4
서울	3.6	0.7	8.2	0.3	14.1	0.7	0.3	0.2
부산	4.5	1.1	8.2	0.2	13.3	0.5	0.3	0.4
대구	7.1	0.2	7.8	0.3	11.6	0.7	0.2	0.4
인천	2.1	0.5	7.5	0.1	11.3	0.9	0.6	0.3
광주	11.7	1.2	13.6	0.4	13.9	1.0	0.7	1.0
대전	2.3	0.5	11.4	0.4	14.3	0.8	0.5	0.6
울산	1.7	0.5	6.9	0.2	7.9	0.5	0.6	0.6
경기	1.8	0.5	6.2	0.1	9.4	0.6	0.4	0.3
강원	2.1	0.4	5.2	0.1	8.2	0.8	0.6	0.3
충북	1.6	0.9	8.4	0.1	13.0	1.0	0.5	0.7
충남	1.9	0.4	9.4	0.1	13.8	0.9	0.7	0.7
전북	2.5	0.7	7.7	0.3	21.7	1.0	0.3	0.4
전남	7.9	0.5	13.0	-	14.4	1.4	0.6	1.0
경북	3.5	0.7	6.1	0.1	11.6	0.9	0.6	0.7
경남	3.2	0.7	6.7	0.2	11.5	0.7	0.6	0.8
제주	2.4	0.4	6.6	0.4	9.0	0.9	0.5	0.5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11개 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예방치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인구 10만 명당 19.6, 19.5, 19.4, 19.3개소가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진료과로는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로 각 인구 10만 명 당 17.9~19.1개 정도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치과병의원 진료과 분포

구분	치과 일반	구강악안 면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소아 치과	치주과	치과 보존과	구강 내과	구강악 인면방사선과	구강 병리과	예방 치과
전체	17.3	18.5	19.6	16.9	19.1	19.4	19.5	18.3	17.9	15.6	19.3
서울	22.4	27.6	29.1	25.7	28.1	28.8	29.1	27.3	26.7	23.7	28.4
부산	14.5	17.0	17.8	15.5	17.5	17.6	17.7	16.7	16.5	14.6	17.4
대구	15.3	19.6	20.6	17.5	20.0	20.3	20.4	19.4	19.2	16.8	20.2
인천	10.2	17.4	18.2	16.2	17.8	18.2	18.1	17.1	16.9	14.6	18.3
광주	18.4	22.1	23.3	21.1	23.2	23.0	23.5	22.5	21.9	19.4	23.1
대전	18.5	19.7	21.6	18.4	20.7	21.2	21.3	20.2	19.3	17.5	21.2
울산	15.9	15.7	17.6	14.8	16.9	17.4	17.3	16.2	15.7	13.8	17.3
경기	15.0	17.1	18.0	15.8	17.7	17.9	18.0	16.8	16.5	14.2	17.8
강원	20.8	12.1	13.0	9.6	13.0	12.7	12.9	12.3	11.4	8.9	13.3
충북	15.1	13.2	13.1	11.6	13.2	13.0	13.2	13.0	12.6	10.5	13.4
충남	19.3	14.1	15.4	11.9	14.9	15.3	15.3	13.8	13.5	10.8	15.1
전북	17.1	17.8	18.6	16.2	18.3	18.6	18.7	18.0	17.3	16.4	19.0
전남	20.7	12.7	13.6	11.6	13.6	13.3	13.2	11.9	11.7	9.0	12.6
경북	16.3	12.2	12.9	10.2	12.6	12.6	12.6	12.4	12.1	10.4	12.8
경남	16.9	12.0	13.4	11.0	13.1	13.3	13.4	12.6	12.2	10.5	13.6
제주	18.7	15.2	16.3	12.8	16.1	16.5	16.1	15.4	14.5	12.4	16.5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10개 중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이 개설된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로 각각 인구 10만 명 당 22개 정도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진료과로는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로 각각 인구 10만 명 당 21개 정도가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의원 진료과 분포

구분	한방 일반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신경 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 의학과	사상 체질과	한방응급
전체	11.4	22.4	21.8	21.6	21.5	21.1	22.1	19.3	18.5	13.4
서울	11.8	29.8	29.6	29.5	29.3	29.2	29.7	27.6	27.3	20.6
부산	10.1	24.0	23.5	23.2	23.2	22.3	23.9	20.7	19.0	14.3
대구	12.4	28.5	28.2	28.0	27.9	27.8	28.3	25.5	24.8	20.0
인천	7.1	18.0	17.5	17.4	17.4	17.1	17.7	15.9	15.7	11.6
광주	8.5	20.7	19.8	19.9	20.0	18.8	20.8	16.4	14.6	5.2
대전	15.7	26.5	25.4	25.5	24.9	24.6	25.6	23.0	21.0	14.9
울산	9.4	22.8	21.4	21.2	20.7	20.5	22.3	17.2	16.2	7.8
경기	8.4	17.7	17.5	17.4	17.4	17.1	17.6	16.0	15.4	12.9
강원	15.6	19.1	18.1	18.0	18.1	17.0	18.5	15.7	14.3	10.8
충북	12.6	20.0	19.0	18.9	18.8	18.0	19.5	15.8	13.9	10.9
충남	17.1	20.8	19.0	18.9	18.6	18.4	19.3	16.2	14.8	8.1
전북	12.8	23.8	22.2	22.1	21.5	21.3	22.9	20.0	18.8	11.6
전남	16.3	17.4	16.2	15.7	15.3	14.7	16.8	12.3	11.2	4.2
경북	14.4	20.1	18.6	18.2	17.8	17.3	19.5	14.2	13.8	8.9
경남	12.0	20.3	19.7	19.2	19.1	18.6	19.8	15.4	14.7	9.0
제주	15.2	18.9	18.5	18.3	18.9	17.6	18.7	15.9	14.5	9.0

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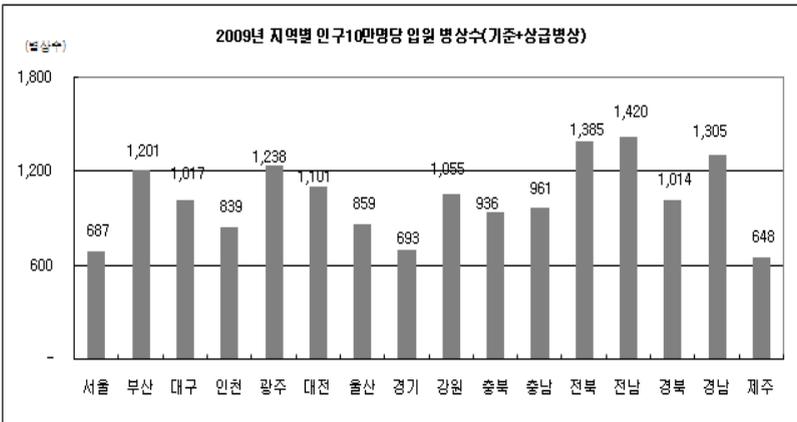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입원 병상 수는 921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대비 입원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인구 10만 명 당 1,420 병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648병상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지역과 가장 많은 지역 간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급 입원병상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부산, 대전 순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299병상, 282병상, 241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상급병상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으로 각각 인구 10만 명당 132병상과 130병상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입원 병실 수 및 입원 병상 수 분포

구분	입원 병상 계	상급 입원병상	일반 입원병상
전체	921	181	740
서울	687	195	492
부산	1,201	282	919
대구	1,017	172	845
인천	839	161	678
광주	1,238	299	939
대전	1,101	241	860
울산	859	178	681
경기	693	132	561
강원	1,055	141	914
충북	936	158	779
충남	961	130	831
전북	1,385	179	1,205
전남	1,420	220	1,199
경북	1,014	141	873
경남	1,305	218	1,087
제주	648	167	481

[그림 3-17]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입원 병상 수



제2절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1.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아래 표는 지역별 의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 의료 인력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 의료 인력으로 의사는 81,324명이고, 치과의사는 20,474명, 한의사수는 15,564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124,025명, 간호조무사 115,981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2,071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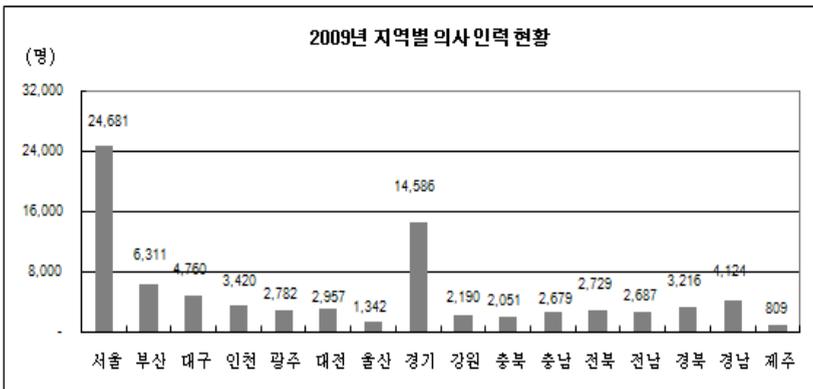
〈표 3-18〉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지역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약사	임상병리사
서울	인원수	24,681	6,255	4,160	33,632	23,740	8,524	4,832
	%	30.3	30.6	26.7	27.1	20.5	26.6	28.1
부산	인원수	6,311	1,407	1,190	9,358	10,486	2,321	1,314
	%	7.8	6.9	7.6	7.5	9.0	7.2	7.6
대구	인원수	4,760	1,062	838	7,206	6,005	1,770	1,111
	%	5.9	5.2	5.4	5.8	5.2	5.5	6.5
인천	인원수	3,420	919	666	5,059	5,848	1,468	670
	%	4.2	4.5	4.3	4.1	5.0	4.6	3.9
광주	인원수	2,782	788	415	4,805	3,555	1,022	662
	%	3.4	3.8	2.7	3.9	3.1	3.2	3.8
대전	인원수	2,957	590	535	4,241	4,176	1,068	602
	%	3.6	2.9	3.4	3.4	3.6	3.3	3.5
울산	인원수	1,342	389	306	2,587	2,593	575	349
	%	1.7	1.9	2.0	2.1	2.2	1.8	2.0
경기	인원수	14,586	4,058	2,840	21,438	22,514	6,594	2,832
	%	17.9	19.8	18.2	17.3	19.4	20.6	16.5
강원	인원수	2,190	583	492	3,912	3,261	899	435
	%	2.7	2.8	3.2	3.2	2.8	2.8	2.5
충북	인원수	2,051	437	472	2,817	3,850	905	417
	%	2.5	2.1	3.0	2.3	3.3	2.8	2.4
충남	인원수	2,679	772	622	3,522	5,372	1,171	526
	%	3.3	3.8	4.0	2.8	4.6	3.7	3.1
전북	인원수	2,729	724	690	4,059	4,938	1,226	727
	%	3.4	3.5	4.4	3.3	4.3	3.8	4.2
전남	인원수	2,687	628	555	5,836	4,974	1,160	702
	%	3.3	3.1	3.6	4.7	4.3	3.6	4.1
경북	인원수	3,216	745	770	6,221	5,911	1,408	779
	%	4.0	3.6	4.9	5.0	5.1	4.4	4.5
경남	인원수	4,124	940	868	7,611	7,802	1,648	1,052
	%	5.1	4.6	5.6	6.1	6.7	5.1	6.1
제주	인원수	809	177	145	1,721	956	312	191
	%	1.0	0.9	0.9	1.4	0.8	1.0	1.1
전체	인원수	81,324	20,474	15,564	124,025	115,981	32,071	17,20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직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 기록사	영양사	조리사
서울	인원수	4,559	3,724	444	649	6,689	830	647	696
	%	26.2	17.5	20.5	26.6	28.7	24.0	14.7	12.0
부산	인원수	1,297.0	1,431.0	149.0	181.0	921.0	321.0	395.0	538.0
	%	7.4	6.7	6.9	7.4	4.0	9.3	9.0	9.3
대구	인원수	1,087.0	1,026.0	133.0	189.0	1,392.0	204.0	264.0	438.0
	%	6.2	4.8	6.2	7.8	6.0	5.9	6.0	7.6
인천	인원수	837.0	1,150.0	128.0	74.0	797.0	119.0	149.0	201.0
	%	4.8	5.4	5.9	3.0	3.4	3.4	3.4	3.5
광주	인원수	601.0	684.0	63.0	98.0	1,058.0	107.0	182.0	249.0
	%	3.5	3.2	2.9	4.0	4.5	3.1	4.1	4.3
대전	인원수	621.0	766.0	104.0	88.0	757.0	192.0	150.0	240.0
	%	3.6	3.6	4.8	3.6	3.3	5.6	3.4	4.1
울산	인원수	286.0	395.0	20.0	57.0	425.0	56.0	119.0	162.0
	%	1.6	1.9	0.9	2.3	1.8	1.6	2.7	2.8
경기	인원수	3,268.0	4,491.0	660.0	408.0	4,662.0	548.0	827.0	1,093.0
	%	18.8	21.1	30.5	16.7	20.0	15.9	18.8	18.9
강원	인원수	449.0	586.0	30.0	47.0	572.0	78.0	116.0	158.0
	%	2.6	2.8	1.4	1.9	2.5	2.3	2.6	2.7
충북	인원수	459.0	799.0	29.0	31.0	483.0	86.0	145.0	186.0
	%	2.6	3.8	1.3	1.3	2.1	2.5	3.3	3.2
충남	인원수	573.0	1,026.0	87.0	143.0	759.0	155.0	181.0	245.0
	%	3.3	4.8	4.0	5.9	3.3	4.5	4.1	4.2
전북	인원수	653.0	1,021.0	43.0	76.0	892.0	221.0	264.0	353.0
	%	3.7	4.8	2.0	3.1	3.8	6.4	6.0	6.1
전남	인원수	638.0	1,299.0	70.0	86.0	807.0	110.0	264.0	254.0
	%	3.7	6.1	3.2	3.5	3.5	3.2	6.0	4.4
경북	인원수	857.0	1,220.0	55.0	153.0	967.0	180.0	267.0	373.0
	%	4.9	5.7	2.5	6.3	4.2	5.2	6.1	6.4
경남	인원수	1,037.0	1,355.0	113.0	140.0	1,784.0	201.0	383.0	549.0
	%	6.0	6.4	5.2	5.7	7.7	5.8	8.7	9.5
제주	인원수	195.0	300.0	34.0	16.0	324.0	47.0	49.0	63.0
	%	1.1	1.4	1.6	0.7	1.4	1.4	1.1	1.1
전체	인원수	17,417.0	21,273.0	2,162.0	2,436.0	23,289.0	3,455.0	4,402.0	5,798.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부분의 의료 인력은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2009년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4,681명이 분포되어 있어서 전체 의사인력의 약 3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이 14,586명으로 나타나 전체 의사 인력의 약 18%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 거의 50% 정도의 의사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1.0%)을 제외하면 의사 인력이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울산지역으로서 1,342명으로 나타나 전체 의사인력에서 1.7%에 지나지 않아 집중 지역인 서울지역과는 18.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2,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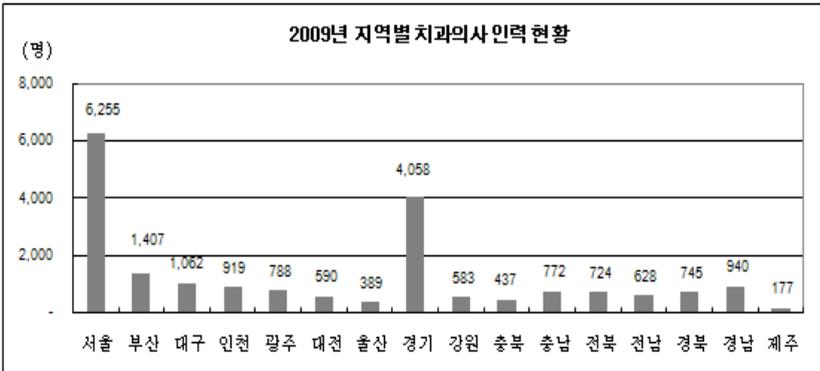
[그림 3-18]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치과 의사인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치과의사인력 20,474명 중에서 6,255명(약 31%)이 서울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지역은 4,058명(약 20%)가 분포되어 있어서, 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0.9%)을 제외하면 치과의사인력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389명(약 2%)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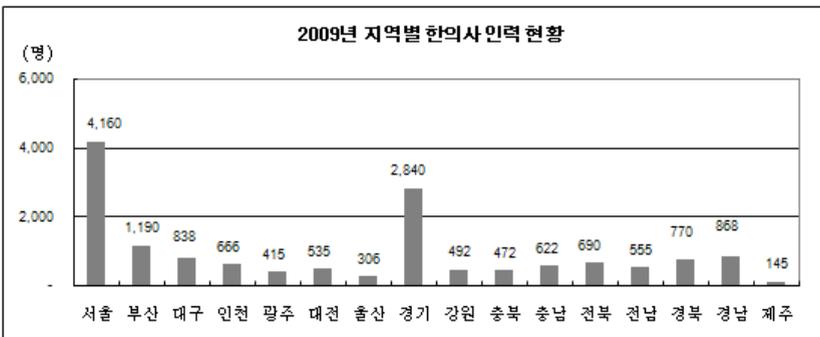
분포되어 있고 서울지역과 울산지역이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9] 지역별 치과의사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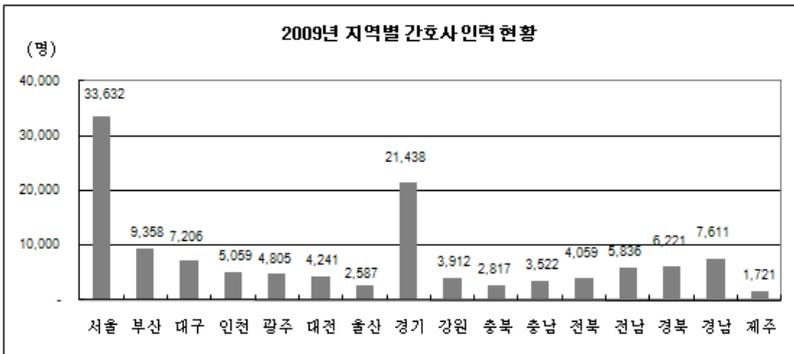
전체 한의사의 수는 15,564명이고 이 중 4,160명(약 27%)이 서울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경기지역에는 2,840명(약 18%)이 분포되어 있어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을 합한 경우 45%의 한의사가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의사의 경우에도 제주지역(0.9%)을 제외하면 울산지역이 가장 적은 305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정도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의 차는 약 13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0] 지역별 한의사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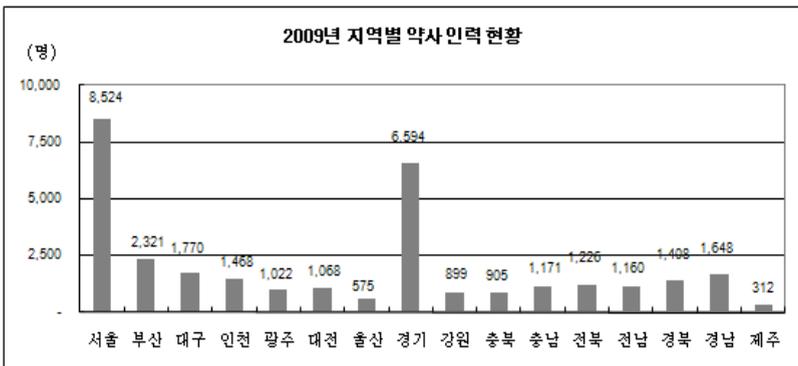


전체 간호사인력은 124,025명이며 아래 그림은 간호사 인력 또한 서울 지역과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지역은 33,632명이 분포되어 있어 27%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21,438명이 분포되어 있어 17%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의 합한 분포율은 44%로서 간호사 인력 역시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 1.4%~7.5% 사이의 비교적 고른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울산의 경우 2,587명이 분포되어 2.1%의 분포율을 보임으로써 제주 지역(1.4%)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서울지역과는 8배가 넘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21] 지역별 간호사 인력 현황



[그림 3-22] 지역별 약사 인력 현황



2. 지역별 인구대비 보건의료인력

아래 표는 인구 10만 명 당 보건 의료 인력 현황을 보여준다. 인구 10만 명 당 평균 보건의료 인력을 구분해 보면, 의사 166.8명, 치과의사 42.0명, 한의사 31.9명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지원보건 의료 인력은 간호사 254.4명, 약사(병원약사와 개업약사 포함) 65.8명, 간호조무사 237.9명, 임상병리사 35.3명, 방사선사 35.7명, 물리치료사 43.6명, 작업치료사 4.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5.0명과 47.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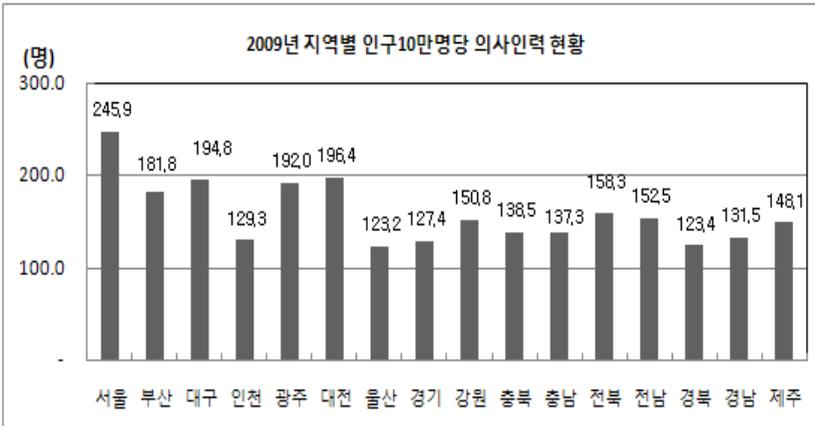
종합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약사계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전체	166.8	42.0	31.9	254.4	237.9	65.8	35.3	35.7	43.6
서울	245.9	62.3	41.4	335.1	236.5	84.9	48.1	45.4	37.1
부산	181.8	40.5	34.3	269.6	302.1	66.9	37.9	37.4	41.2
대구	194.8	43.5	34.3	294.8	245.7	72.4	45.5	44.5	42.0
인천	129.3	34.7	25.2	191.3	221.1	55.5	25.3	31.6	43.5
광주	192.0	54.4	28.6	331.6	245.4	70.5	45.7	41.5	47.2
대전	196.4	39.2	35.5	281.6	277.3	70.9	40.0	41.2	50.9
울산	123.2	35.7	28.1	237.5	238.0	52.8	32.0	26.3	36.3
경기	127.4	35.5	24.8	187.3	196.7	57.6	24.7	28.5	39.2
강원	150.8	40.1	33.9	269.4	224.6	61.9	30.0	30.9	40.4
충북	138.5	29.5	31.9	190.3	260.0	61.1	28.2	31.0	54.0
충남	137.3	39.6	31.9	180.5	275.3	60.0	27.0	29.4	52.6
전북	158.3	42.0	40.0	235.4	286.4	71.1	42.2	37.9	59.2
전남	152.5	35.6	31.5	331.2	282.3	65.8	39.8	36.2	73.7
경북	123.4	28.6	29.5	238.7	226.8	54.0	29.9	32.9	46.8
경남	131.5	30.0	27.7	242.6	248.7	52.5	33.5	33.1	43.2
제주	148.1	32.4	26.5	315.1	175.0	57.1	35.0	35.7	54.9

종합	작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 기록사	영양사	조리사	사회 복지사
전체	4.4	5.0	47.8	7.1	9.0	11.9	4.3
서울	4.4	6.5	66.6	8.3	6.4	6.9	3.2
부산	4.3	5.2	26.5	9.2	11.4	15.5	4.4
대구	5.4	7.7	57.0	8.3	10.8	17.9	4.2
인천	4.8	2.8	30.1	4.5	5.6	7.6	3.7
광주	4.3	6.8	73.0	7.4	12.6	17.2	7.1
대전	6.9	5.8	50.3	12.7	10.0	15.9	4.9
울산	1.8	5.2	39.0	5.1	10.9	14.9	3.4
경기	5.8	3.6	40.7	4.8	7.2	9.5	3.6
강원	2.1	3.2	39.4	5.4	8.0	10.9	3.8
충북	2.0	2.1	32.6	5.8	9.8	12.6	4.3
충남	4.5	7.3	38.9	7.9	9.3	12.6	5.2
전북	2.5	4.4	51.7	12.8	15.3	20.5	6.9
전남	4.0	4.9	45.8	6.2	15.0	14.4	8.1
경북	2.1	5.9	37.1	6.9	10.2	14.3	4.9
경남	3.6	4.5	56.9	6.4	12.2	17.5	5.2
제주	6.2	2.9	59.3	8.6	9.0	11.5	6.4

종합	응급구조사1급	응급구조사2급	안경사	자원봉사자	의료정보 (전산정보)	일반직
전체	2.5	0.4	1.2	13.4	5.8	227.7
서울	1.0	0.2	2.0	14.3	9.7	294.0
부산	1.1	0.1	1.8	23.1	6.4	246.4
대구	1.1	0.7	0.7	32.5	5.5	225.7
인천	3.3	0.1	1.3	20.5	2.2	164.8
광주	8.4	0.7	0.6	11.8	8.7	262.1
대전	1.3	0.4	2.4	2.1	4.0	254.2
울산	3.6	0.8	1.9	0.6	5.3	247.2
경기	1.5	0.3	0.7	10.7	3.4	151.6
강원	1.2	0.4	0.7	0.8	4.6	224.5
충북	5.6	0.3	0.7	5.6	6.1	211.3
충남	2.8	0.4	0.7	20.1	4.4	235.7
전북	2.0	0.6	1.7	8.8	3.5	287.7
전남	7.0	0.5	0.6	3.2	6.4	257.5
경북	2.7	0.5	0.3	10.7	5.8	232.2
경남	4.7	0.6	0.9	18.0	6.5	246.5
제주	17.6	0.9	0.9	-	3.5	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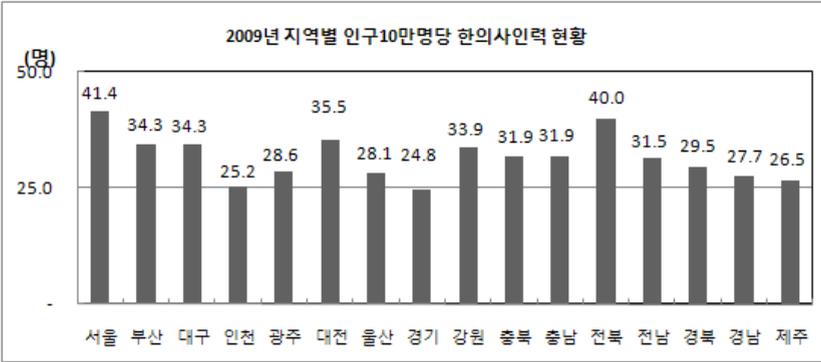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의사는 서울이 24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전 196.4명, 대구 19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23.2명으로 조사되어서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의사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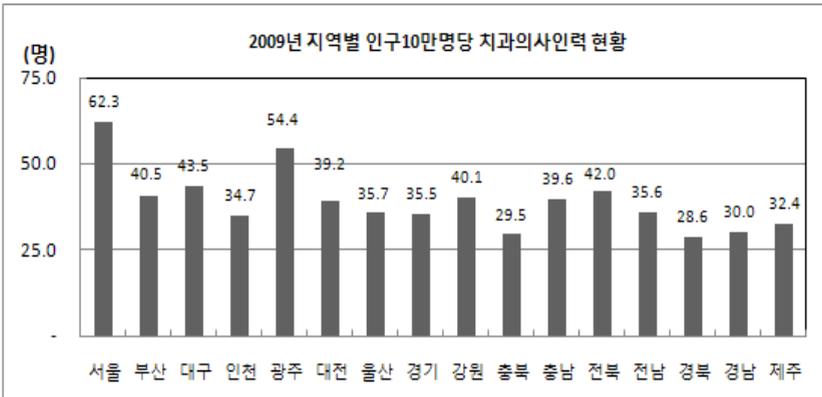
한의사의 경우는 서울과 전북이 각각 41.4명과 4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대전이 35.5명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경기지역이 24.8명, 인천지역이 25.2명으로 나타나 적은 지역들 간의 차이도 근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은 약 1.7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10만 명 당 한의사 수는 다른 의료 인력에 비해서 지역 별 차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한의사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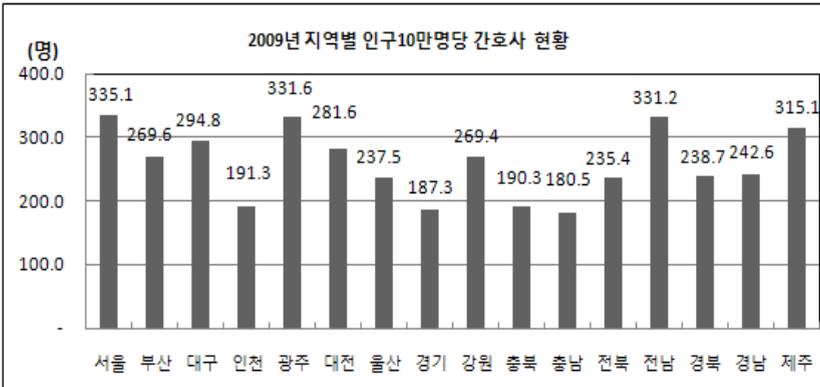
치과의사의 경우는 서울이 6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광주가 54.4명이었다. 반면 경북이 28.6명, 충북이 29.5명으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30명~43명 사이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치과의사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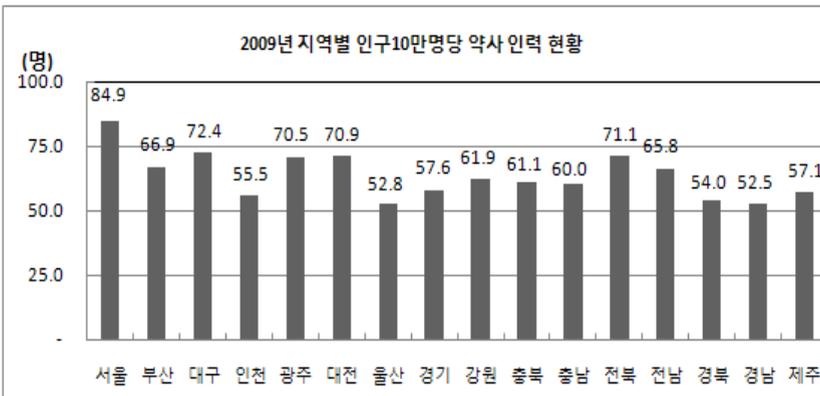
간호사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3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180.5명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부산이 3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75.0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3-26]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인력 현황



약사의 경우에는 서울지역이 8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 지역이 72.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경남지역으로 52.5명으로 나타났다. 약사인력은 다른 보건 의료 인력에 비해서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7]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약사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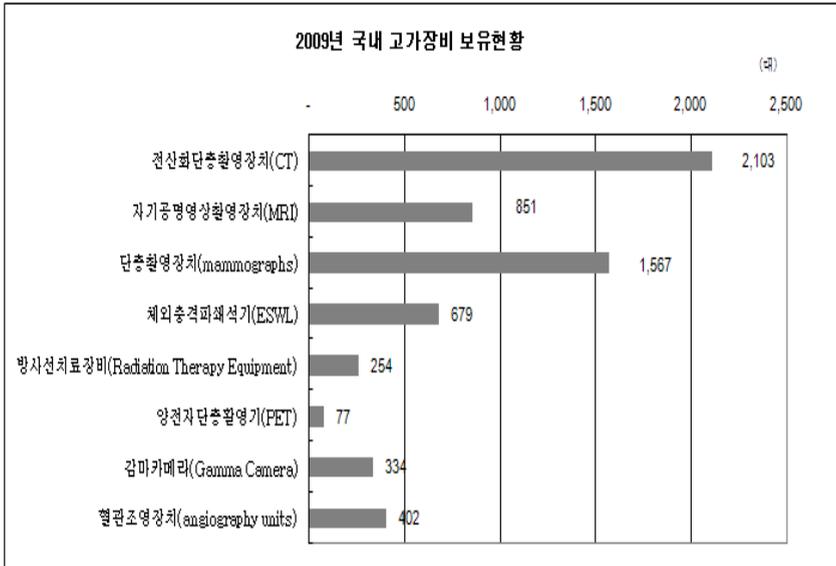


제3절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1.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분포

고가의료장비는 OECD 통계에 나와 있는 5개 장비를 포함해서 총 9개 장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고가의료장비의 수는 보건의료기관이 많이 위치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그리고 대도시에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가의료장비별로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는 402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334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7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10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851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679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¹⁾ 1,567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254대로 조사되었다.

[그림 3-28] 국내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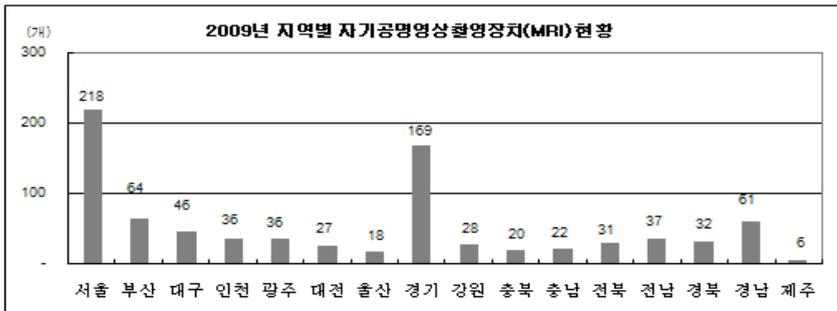
1) 2008년 조사에서 단층촬영장치 (Mammographs)에는 Tomography도 포함되었음.

〈표 3-20〉 지역별 고가장비 현황

지역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MRI)	유방촬영장치 (Mammographs)	체외충격파 쇄석기 (ESWL)	방사선치료 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양전자단층 촬영기 (PET)	감마카메라 (Gamma Camera)	혈관조영 장치 (Angiography units)
서울	장비수	384	218	283	140	83	33	124	130
	%	18.3	25.6	18.1	20.6	32.7	42.9	37.1	32.3
부산	장비수	165	64	93	55	20	4	23	41
	%	7.8	7.5	5.9	8.1	7.9	5.2	6.9	10.2
대구	장비수	144	46	82	45	16	5	19	19
	%	6.8	5.4	5.2	6.6	6.3	6.5	5.7	4.7
인천	장비수	80	36	68	25	10	3	10	15
	%	3.8	4.2	4.3	3.7	3.9	3.9	3.0	3.7
광주	장비수	88	36	77	25	8	1	11	12
	%	4.2	4.2	4.9	3.7	3.1	1.3	3.3	3.0
대전	장비수	68	27	66	23	13	3	16	16
	%	3.2	3.2	4.2	3.4	5.1	3.9	4.8	4.0
울산	장비수	48	18	33	16	3	1	5	5
	%	2.3	2.1	2.1	2.4	1.2	1.3	1.5	1.2
경기	장비수	379	169	299	138	43	15	52	73
	%	18.0	19.9	19.1	20.3	16.9	19.5	15.6	18.2
강원	장비수	67	28	66	20	3	1	13	12
	%	3.2	3.3	4.2	2.9	1.2	1.3	3.9	3.0
충북	장비수	65	20	42	17	6	2	7	9
	%	3.1	2.4	2.7	2.5	2.4	2.6	2.1	2.2
충남	장비수	89	22	68	29	7	1	4	11
	%	4.2	2.6	4.3	4.3	2.8	1.3	1.2	2.7
전북	장비수	104	31	56	24	13	2	18	8
	%	4.9	3.6	3.6	3.5	5.1	2.6	5.4	2.0
전남	장비수	99	37	89	29	8	4	6	11
	%	4.7	4.3	5.7	4.3	3.1	5.2	1.8	2.7
경북	장비수	118	32	83	29	7	1	13	15
	%	5.6	3.8	5.3	4.3	2.8	1.3	3.9	3.7
경남	장비수	186	61	144	58	9	-	11	21
	%	8.8	7.2	9.2	8.5	3.5	-	3.3	5.2
제주	장비수	19	6	18	6	5	1	2	4
	%	0.9	0.7	1.1	0.9	2.0	1.3	0.6	1.0
전체	장비수	2,103	851	1,567	679	254	77	334	402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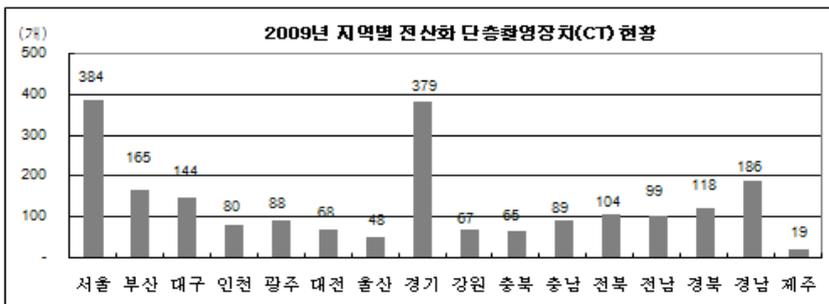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전체 장비수가 851대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 218대, 경기 169대가 설치되어 전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장비 중 45.5%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3-29] 지역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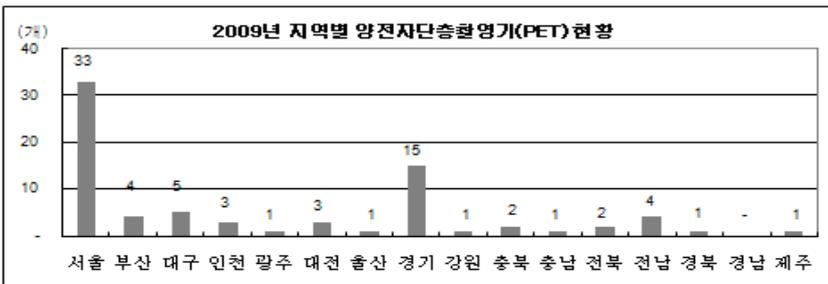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는 전체 장비 2,103대 중에서 서울이 384대 (1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지역이 379대(18%)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이어 경남, 부산 대구 순으로 각각 186, 165, 14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과 제주 지역으로 각각 48대와 1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지역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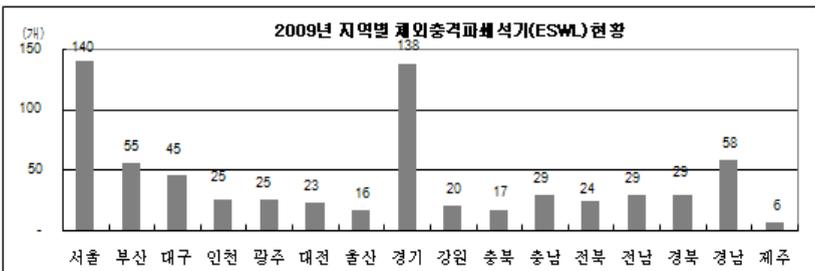
전체 77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서울이 33대(42.9%) 경기지역에 15대(19.5%)가 설치되어 62.4%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설치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은 1대~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보유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한 특수의료장비 중에서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한 장비로 조사되었다.

[그림 3-31] 지역별 양전자단층촬영기(PE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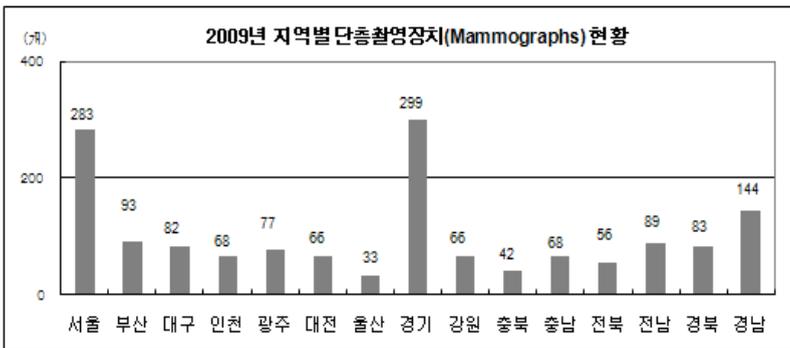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전국적으로 679대가 있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각각 140대(20.6%), 138대(20.3%)로 나타나 약 반 정도의 장비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남과 부산이 각각 58대(8.5%), 55대(8.1%)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울산과 충북이 각각 16대(2.4%), 17대(2.5%)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는 제주가 6대(0.9%)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림 3-32] 지역별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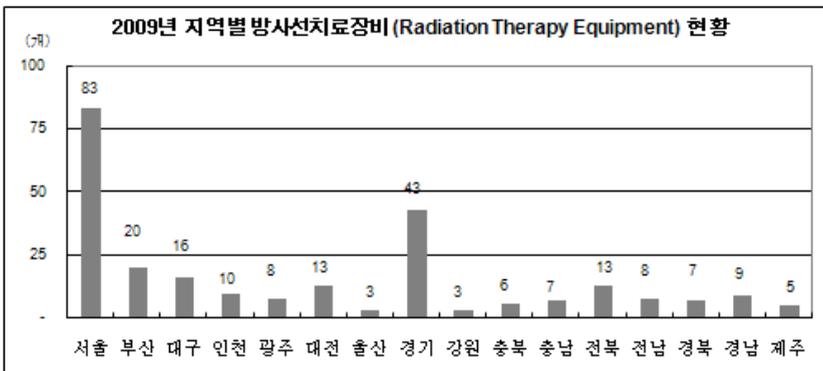
단층촬영장치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283대, 299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했지만 다른 장비들과는 다르게 경기지역의 보유대수가 서울보다 많았다. 경남지역이 144대로 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울산지역이 33대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와 서울, 경남 지역을 제외하면 33-93대의 사이에서 장비의 지역별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지역별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현황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코발트 치료기, 선형가속 치료장치, 후장전 치료장치, 이리디움 치료기, 및 혈액 방사선 조사기를 합한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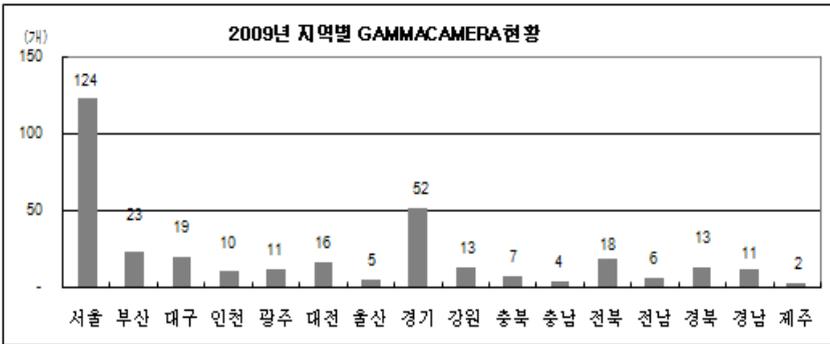
[그림 3-34] 지역별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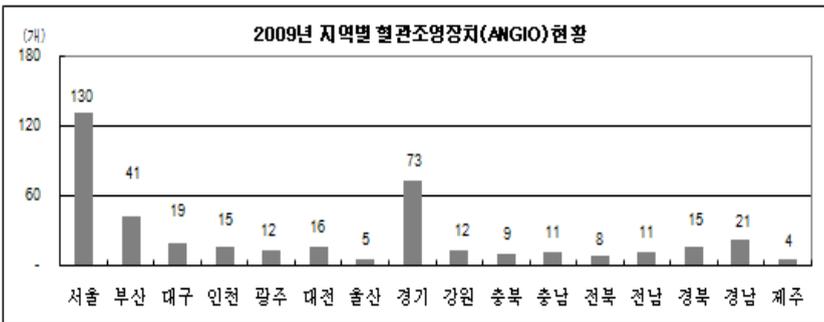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전체 대수가 254대로 이 중 서울지역이 83대로 32.7%를 보유하고 있고 경기지역이 43대로 16.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두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보유율이 49.6%에 이르러서 장비의 지역 집중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장비를 가장 적게 보유한 지역은 울산과 강원지역으로서 각각 3대로 1.2%의 보유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6개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감마 카메라와 혈관 조영장치)에 대한 그림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장비 역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장비 보유가 저조하며 지역별 차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5] 지역별 감마카메라(Gamma Camer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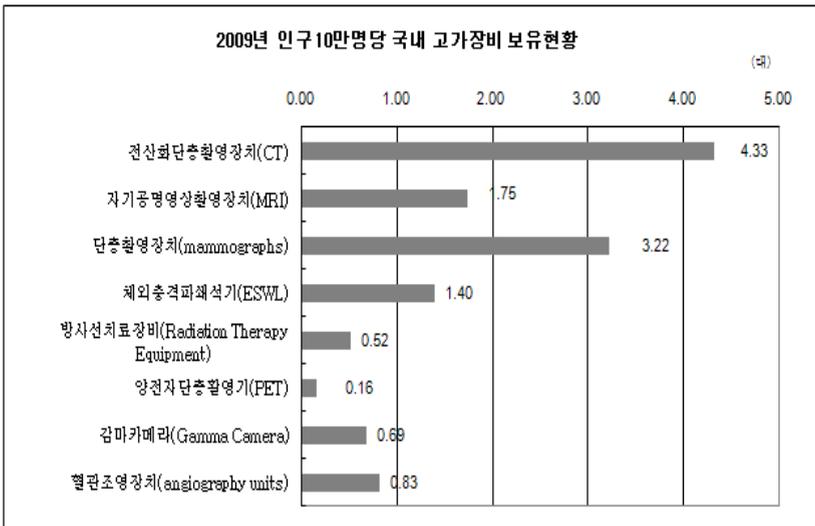
[그림 3-36] 지역별 혈관조영장치(ANGIO) 현황



2. 지역별 인구대비 고가의료장비 분포

인구 10만 명 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83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0.69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16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4.3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7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1.40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3.22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2대로 나타났다.

[그림 3-37] 인구 10만 명 당 국내 고가장비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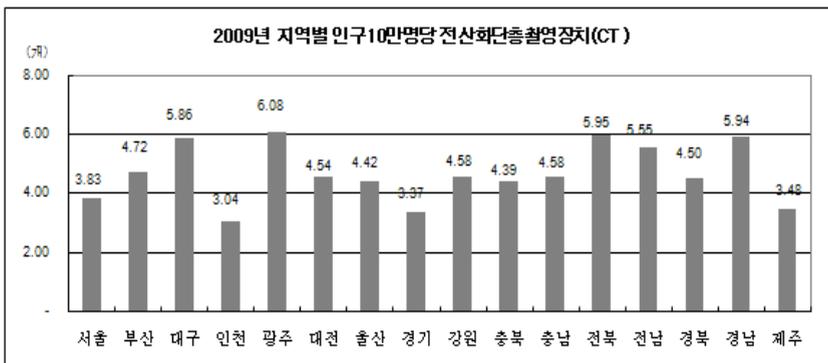


〈표 3-21〉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고가장비 현황

지역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양전자단층촬영기(PET)	감마카메라(Gamma Camera)	혈관조영장치(Angiography units)
서울	3.83	2.17	2.82	1.40	0.83	0.33	1.24	1.30
부산	4.72	1.83	2.66	1.57	0.57	0.11	0.66	1.17
대구	5.86	1.87	3.34	1.83	0.65	0.20	0.77	0.77
인천	3.04	1.37	2.59	0.95	0.38	0.11	0.38	0.57
광주	6.08	2.49	5.32	1.73	0.55	0.07	0.76	0.83
대전	4.54	1.80	4.41	1.54	0.87	0.20	1.07	1.07
울산	4.42	1.66	3.04	1.47	0.28	0.09	0.46	0.46
경기	3.37	1.50	2.66	1.23	0.38	0.13	0.46	0.65
강원	4.58	1.92	4.52	1.37	0.21	0.07	0.89	0.82
충북	4.39	1.35	2.83	1.15	0.40	0.13	0.47	0.61
충남	4.58	1.13	3.50	1.49	0.36	0.05	0.21	0.57
전북	5.95	1.77	3.21	1.37	0.74	0.11	1.03	0.46
전남	5.55	2.07	4.99	1.63	0.45	0.22	0.34	0.62
경북	4.50	1.22	3.17	1.11	0.27	0.04	0.50	0.57
경남	5.94	1.95	4.60	1.85	0.29	0.00	0.35	0.67
제주	3.48	1.10	3.30	1.10	0.92	0.18	0.37	0.73
전체	4.33	1.75	3.22	1.40	0.52	0.16	0.69	0.83

지역별로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인구 10만 명 당 보유대수는 광주가 6.08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북, 경남, 대구지역이 각각 5.95, 5.94, 5.8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대수가 적은 지역으로는 인천, 경기, 제주 각각 3.04, 3.37, 3.4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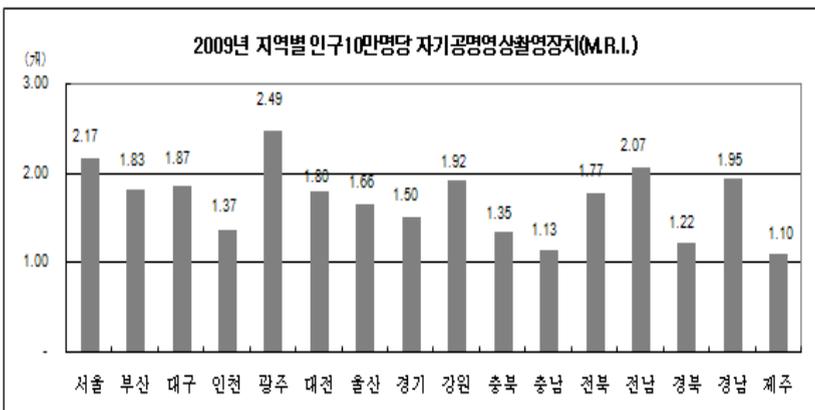
〔그림 3-38〕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현황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은 전장에서 보았던 장비보유의 단순 지역별 비교에서 보였던 서울과 경기지역의 장비의 집중정도가 인구대비 지역별 비교에서는 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대비 특수장비의 보유의 지역별 비교는 서울과 경기지역 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울산과 제주 지역과 같이 절대적인 보유대수가 항상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던 지역의 인구대비 보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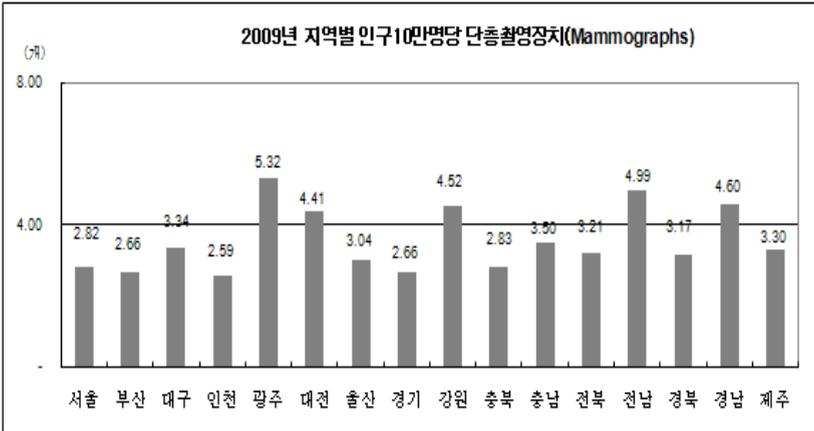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인구 10만 명당 보유대수가 광주에서 2.49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서울과 전남의 보유대수(각각 2.17, 2.07)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1.10대로 나타났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한 인구대비 장비의 보유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가 약 2배 정도 나고 있어서 여전히 장비 보유의 지역차가 나긴 하지만, 인구대비 지역별 비교는 단순 지역별 비교가 보이는 정도의 심한 차이가 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9]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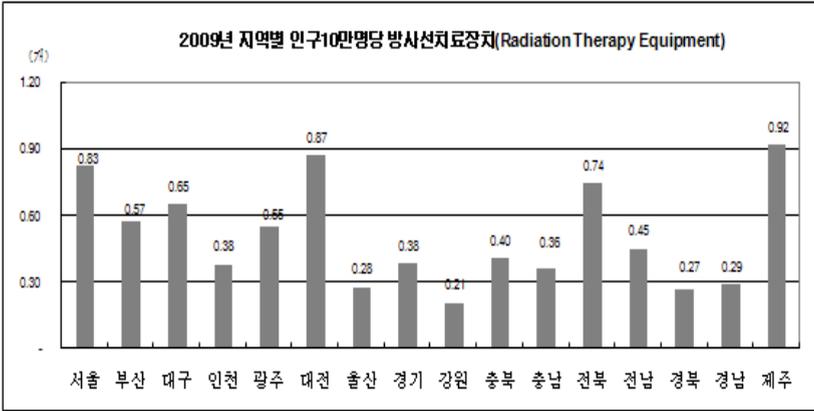
단층촬영장치의 경우도 광주에서 인구 10만 명 당 5.32대로 가장 높은 반면, 인천이 2.59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 보았던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인구대비 지역별 분포는 몇몇 지역(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외하면 대부분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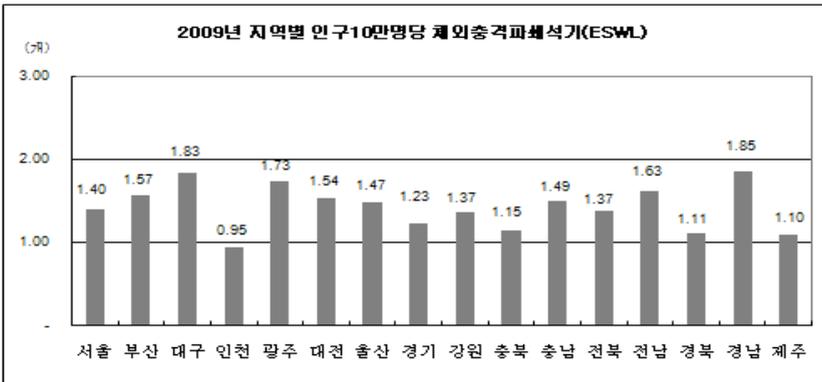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제주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0.92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강원지역이 0.21대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인구대비 지역 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제주지역과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강원지역의 차이는 4배가 넘었으며 다른 지역들 간에도 0.27-0.87대로 그 분산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1]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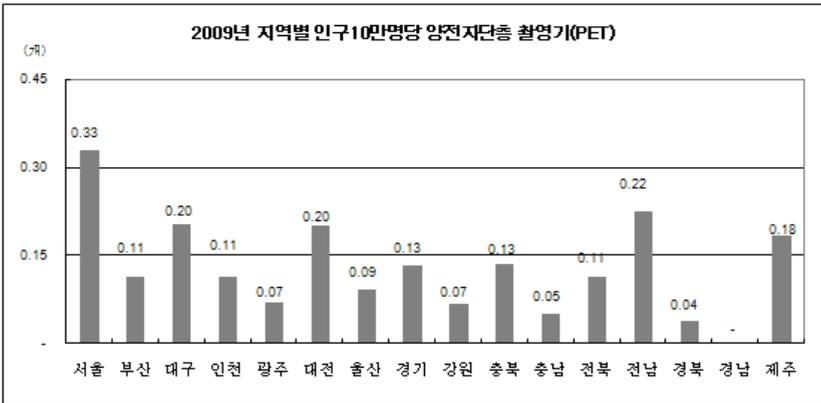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경남지역과 대구지역이 각각 1.85대, 1.83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이 0.95대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인천 경북(1.11대), 그리고 제주(1.10대) 이 3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장비의 분포가 1.15-1.85대 사이로 그 분산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도 대략 2배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42]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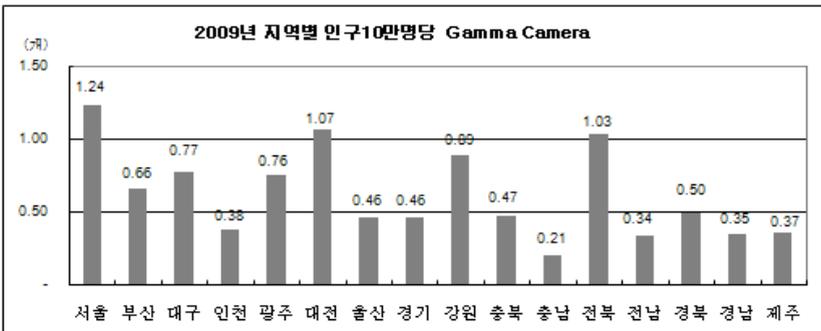


인구대비 장비 분포 비교조사에서 지역별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장비가 양전자단층촬영기(PET)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로 0.33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남지역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양전자단층촬영기의 경우는 원래 병원에서 보유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이 장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기 보다는 전체장비수가 77대이고 인구 10만 명 당 보유대수는 0.16대인 것을 감안 하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기타 감마카메라와 혈관조영장치에 대한 인구대비 지역별 장비의 분포현황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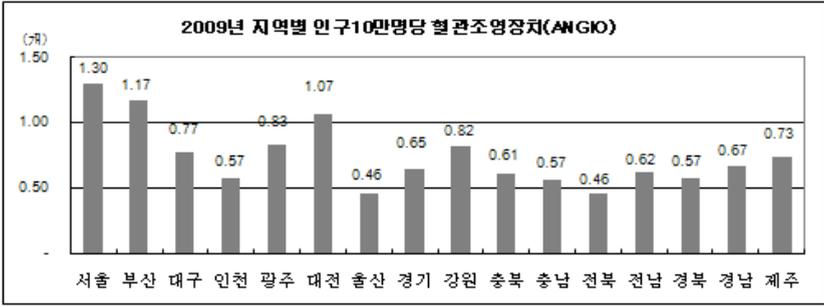
[그림 3-43]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양전자단층촬영기(PET) 현황



[그림 3-44]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감마카메라(Gamma Camer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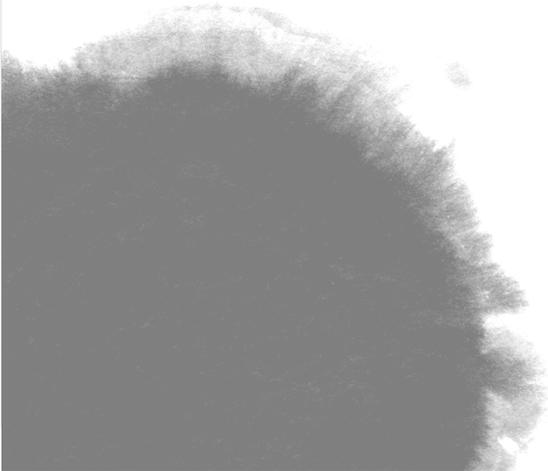


[그림 3-45]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혈관조영장치(ANGIO)현황



04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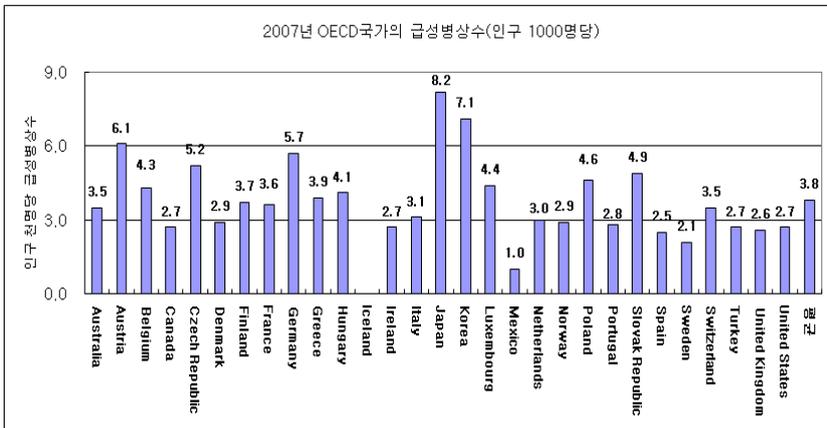


제4장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 분석

제1 절 보건의료시설의 국제 비교

병상은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²⁾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2007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7.1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2.7)이나 영국(2.6)보다는 각각 2.6배와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급성 병상 수



2) 우리나라의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은 2008년 OECD통계에 제시된 2006년 통계수치를 적용하였음.

〈표 4-1〉 OECD 국가의 급성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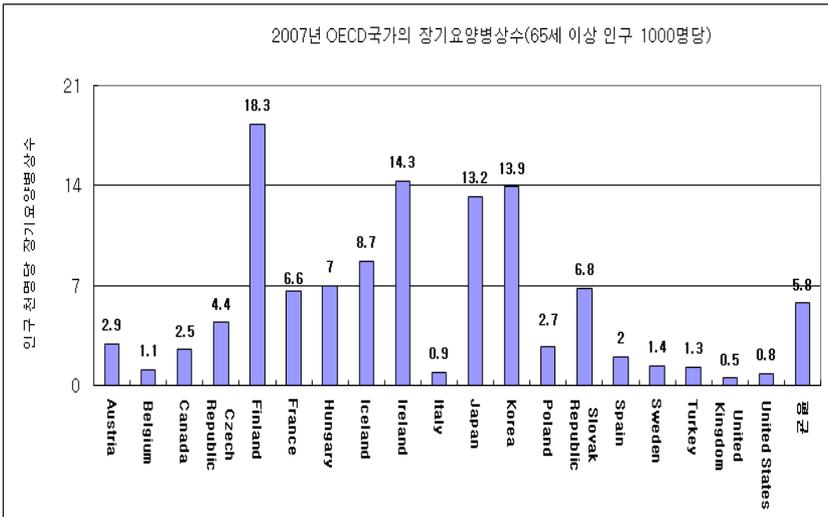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6.4	5.3		4.1	3.6	3.5	3.5	
Austria			7.5	6.8	6.3	6.1	6.1	6.1
Belgium			5.2	5	4.7	4.4	4.3	4.3
Canada	4.6	4.4	4	3.9	3.2	2.8	2.7	
Czech Republic	8.1	8.2	8.1	6.9	5.7	5.3	5.3	5.2
Denmark	5.3	4.7	4.1	3.9	3.5	3.1	3	2.9
Finland	4.9	4.8	4.3	4.1	4	3.9	3.8	3.7
France	6.2	5.7	5.2	4.6	4.1	3.7	3.7	3.6
Germany				6.9	6.4	5.9	5.7	5.7
Greece	4.9	4.3		3.9	3.8	3.9	3.9	
Hungary	6.6	6.8	7.1	6.5	5.8	5.5	5.5	4.1
Iceland								
Ireland	4.3	4.1	3.2	3.1	2.8	2.8	2.7	2.7
Italy	8	7	6.2	5.6	4.1	3.3	3.3	3.1
Japan				12	9.6	8.2	8.2	8.2
Korea			2.7	3.8	5.2	6.6	6.8	7.1
Luxembourg						4.6	4.5	4.4
Mexico			1	1.1	1	1	1	1
Netherlands	5.2	4.7	4.3	3.8	3.5	3.1	3	3
New Zealand								
Norway	5.2	4.7	3.8	3.3	3.1	3	3	2.9
Poland	5.6	5.7	6.3	5.8	5.2	4.7	4.7	4.6
Portugal	4.1	3.5	3.4	3.3	3.2	3	2.9	2.8
Slovak Republic					5.8	5	4.9	4.9
Spain	3.8	3.7	3.6	3.5	2.8	2.5	2.5	
Sweden	5.1	4.6	4.1	3	2.4	2.2	2.2	2.1
Switzerland	7.2	6.8	6.5	5.5	4.1	3.6	3.5	3.5
Turkey	1.5	1.6	2	2.1	2.2	2.5	2.5	2.7
United Kingdom					3	2.9	2.8	2.6
United States	4.4	4.2	3.7	3.4	2.9	2.7	2.7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8병상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장기 요양 병상 수



〈표 4-2〉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병상 수

(단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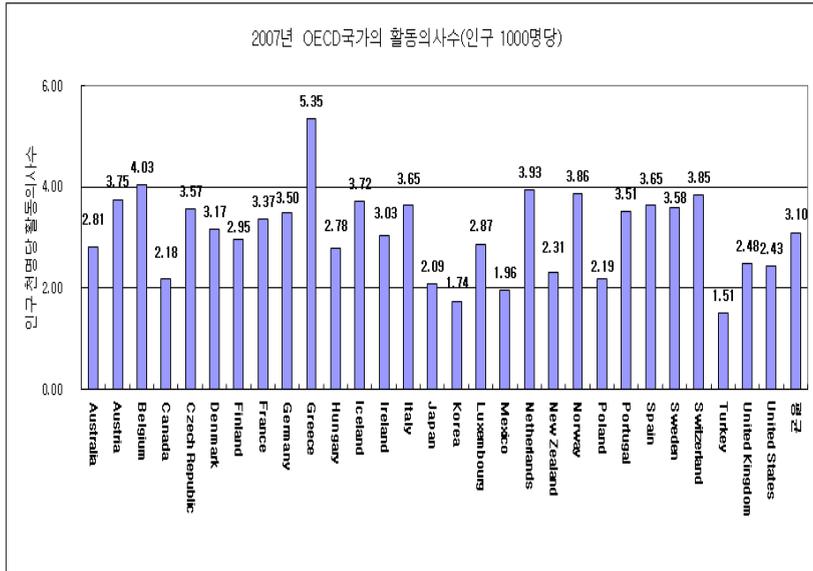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Austria			3	2.7	2.7	2.8	2.8	2.9
Belgium			3.3	1.1	1.1	1.1	1	1.1
Canada	22.7	22.7	17.2	2.6	1.7	1.8	2.5	
Czech Republic				0.3	3.4	4.7	4.6	4.4
Denmark								
Finland				28	23.5	20	19.7	18.3
France	5.1	7.7	8.5	9.1	8.8	7.2	6.7	6.6
Germany								
Greece								
Hungary				4.7	4.5	4.8	4.9	7
Iceland			28.3	23	13.5	9.8	10	8.7
Ireland			18.3	16.9	16.3	15	14.3	
Italy					1	0.9	0.9	0.9
Japan					12	14.9	14	13.2
Korea						5.8	9.5	13.9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0	0	0
New Zealand								
Norway								
Poland						3	2.8	2.7
Portugal								
Slovak Republic					10	8.1	6.9	6.8
Spain		2.3	2.3	2.1	1.9	2	2	
Sweden			7.6	3.3	2.1	1.5	1.5	1.4
Switzerland								
Turkey						1.5	1.5	1.3
United Kingdom					0.7	0.5	0.5	0.5
United States				1	0.9	0.8	0.8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제2절 보건의료인력의 국제 비교

의료인력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통계치는 2008년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였고, OECD 국가의 자료는 2008년 OECD 통계자료에서 나온 2006년 통계치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3.10명으로 우리나라의 1.8배에 달한다.

[그림 4-3]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표 4-3〉 OECD 국가의 활동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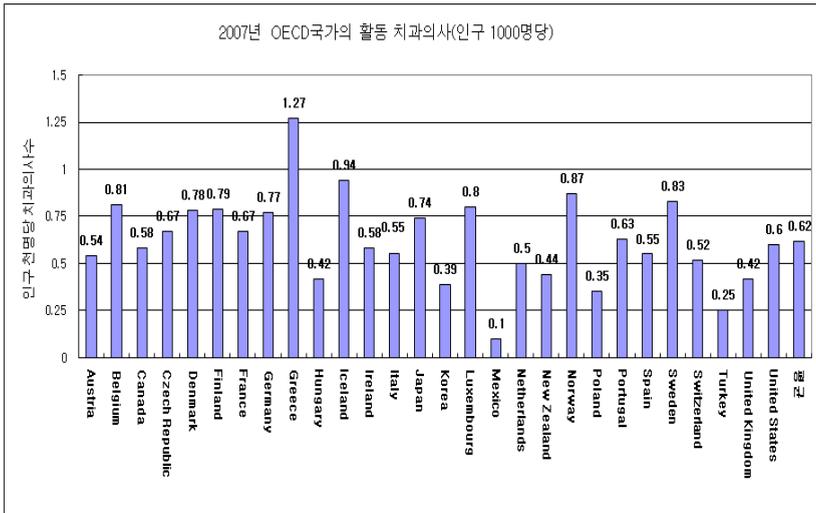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1.85	1.91	2.17	2.47	2.47	2.75	2.81	
Austria	1.66	1.88	2.21	2.66	3.12	3.54	3.66	3.75
Belgium	2.31	2.84	3.27	3.54	3.86	4.02	4.02	4.03
Canada	1.77	1.97	2.09	2.09	2.06	2.14	2.15	2.18
Czech Republic	2.26	2.58	2.71	3	3.37	3.56	3.57	3.57
Denmark				2.5	2.7	3.09	3.17	
Finland				2.21	2.67	2.91	2.95	
France	2.01	2.77	3.09	3.26	3.32	3.4	3.39	3.37
Germany				3.07	3.26	3.41	3.45	3.5
Greece	2.43	2.93	3.4	3.86	4.33	5	5.35	
Hungary	2.29	2.51	2.8	2.96	3.13	2.78	3.04	2.78
Iceland	2.14	2.59	2.85	3.03	3.44	3.73	3.68	3.72
Ireland				2.1	2.23	2.77	2.93	3.03
Italy				3.89	4.14	3.82	3.69	3.65
Japan	1.27	1.47	1.65		1.93		2.09	
Korea		0.61	0.83	1.12	1.3	1.63	1.69	1.74
Luxembourg	1.7	1.81	1.99	2.21	2.15	2.43	2.73	2.87
Mexico			0.97	1.65	1.63	1.79	1.92	1.96
Netherlands	1.91	2.22	2.51		3.19	3.71	3.82	3.93
New Zealand	1.55	1.7	1.88	2.05	2.23	2.12	2.28	2.31
Norway	1.97	2.21		2.79	2.85	3.68	3.75	3.86
Poland	1.79	1.97	2.15	2.34	2.22	2.14	2.18	2.19
Portugal	1.91	2.4	2.77	2.9	3.1	3.35	3.42	3.51
Slovak Republic					3.14			
Spain				2.46	3.16	3.77	3.63	3.65
Sweden	2.2	2.59	2.87	2.89	3.08	3.49	3.58	
Switzerland	2.47	2.73	2.98	3.16	3.51	3.8	3.85	3.85
Turkey	0.61	0.72	0.9	1.12	1.26	1.48	1.43	1.51
United Kingdom	1.32	1.43	1.62	1.75	1.94	2.38	2.44	2.48
United States				2.19	2.29	2.43	2.42	2.43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치과의사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0.39명으로 멕시코, 터키,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치과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0.62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5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치과의사수



〈표 4-4〉 OECD 국가의 활동 초과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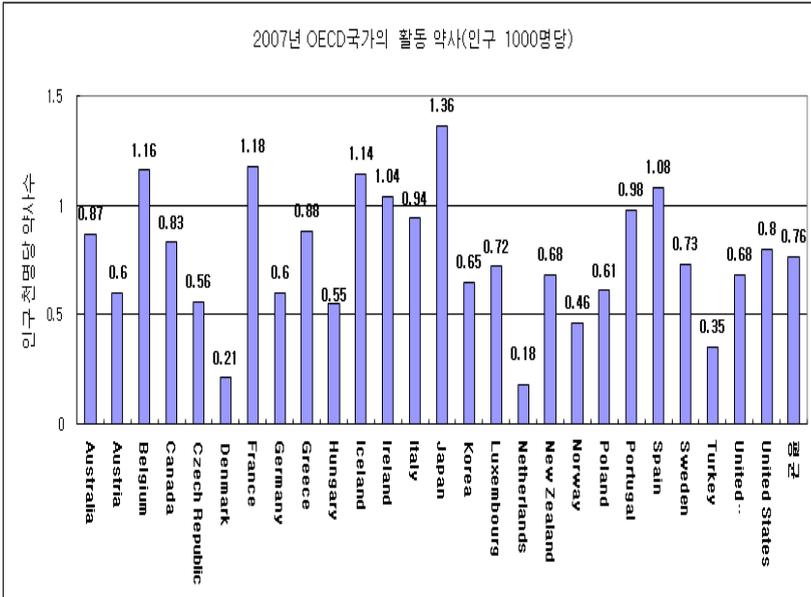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초과의사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0.43	0.43	0.42	0.43	0.47	0.49		
Austria	0.41	0.41	0.43	0.46	0.46	0.51	0.54	0.54
Belgium	0.44	0.63	0.72	0.77	0.83	0.83	0.83	0.81
Canada	0.45	0.5	0.52	0.53	0.56	0.58	0.58	0.58
Czech Republic	0.46	0.52	0.54	0.6	0.65	0.68	0.68	0.67
Denmark				0.79	0.79	0.79	0.78	
Finland			0.85	0.81	0.82	0.81	0.79	
France	0.59	0.63	0.67	0.68	0.68	0.68	0.68	0.67
Germany				0.71	0.73	0.76	0.76	0.77
Greece	0.79	0.88	0.99	1	1.13	1.21	1.27	
Hungary	0.22	0.26	0.37	0.4	0.46	0.45	0.5	0.42
Iceland	0.74	0.82	0.9	1.01	1.01	0.98	0.94	0.94
Ireland	0.3	0.33	0.37	0.44	0.5	0.56	0.57	0.58
Italy				0.41	0.56	0.6	0.63	0.55
Japan	0.44	0.53	0.58		0.7		0.74	
Korea		0.11	0.18	0.25	0.31	0.37	0.38	0.39
Luxembourg	0.36	0.46	0.52	0.54	0.6	0.71	0.78	0.8
Mexico			0.05	0.1	0.1	0.1	0.1	0.1
Netherlands	0.4	0.49	0.5	0.47	0.46	0.49	0.49	0.5
New Zealand	0.36	0.36	0.36	0.37	0.41	0.4	0.41	0.44
Norway		0.82	0.82	0.82	0.8	0.84	0.88	0.87
Poland	0.47	0.47	0.48	0.47	0.31	0.32	0.33	0.35
Portugal	0.11	0.13	0.17	0.26	0.43	0.58	0.62	0.63
Slovak Republic					0.51			
Spain	0.11	0.13	0.27	0.36	0.44	0.51	0.53	0.55
Sweden	0.99	1.06	1.04	0.87	0.81	0.82	0.83	
Switzerland	0.45	0.48	0.49	0.49	0.48	0.51	0.52	0.52
Turkey	0.16	0.17	0.19	0.19	0.24	0.26	0.25	0.25
United Kingdom								0.42
United States	0.54	0.56	0.59	0.6	0.59	0.6	0.6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약사수의 경우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약사 수는 0.65명으로 네덜란드, 터어키, 노르웨이, 헝가리, 덴마크, 독일보다는 높은 반면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는 낮았고, OECD국가의 평균 약사인 0.76명과도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약사 수



〈표 4-5〉 OECD 국가의 활동 약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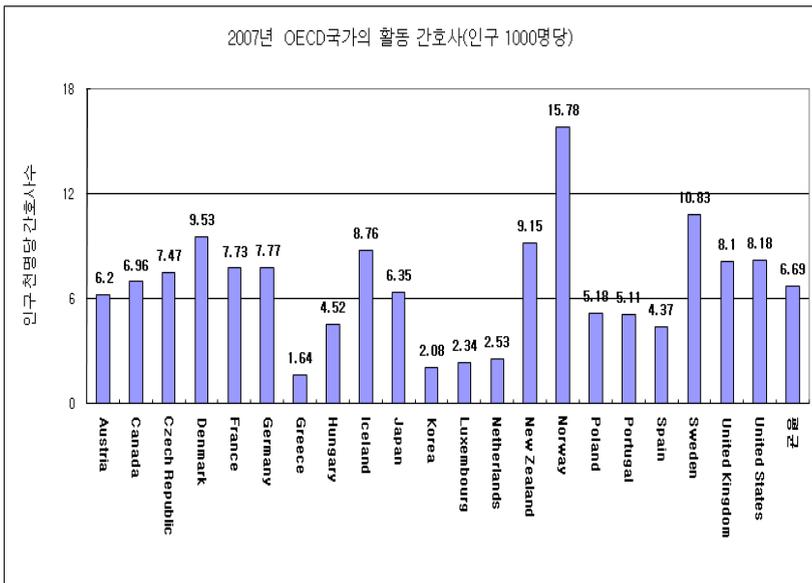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 약사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0.53	0.59	0.8	0.73	0.79	0.87
Austria	0.39	0.41	0.45	0.51	0.56	0.62	0.6	
Belgium	0.98	1.09	1.24	0.99	1.05	1.13	1.15	1.16
Canada		0.62	0.68	0.7	0.77	0.79	0.81	0.83
Czech Republic	0.38	0.39	0.38	0.36	0.49	0.56	0.57	0.56
Denmark				0.23	0.22	0.21	0.21	
Finland					0.96	1.03	1.05	
France	0.73	0.86	0.93	1.02	1.11	1.16	1.16	1.18
Germany				0.55	0.58	0.58	0.59	0.6
Greece	0.54	0.6	0.74	0.79	0.82	0.86	0.88	
Hungary	0.32	0.33	0.33	0.33	0.48	0.53	0.53	0.55
Iceland	0.66	0.74	0.88	1.1	0.96	1.12	1.12	1.14
Ireland	0.61	0.58	0.62	0.68	0.8	0.92	0.97	1.04
Italy	0.76	0.9	0.97	1.02	1.1	0.86	0.75	0.94
Japan	0.54	0.63	0.73		1.13		1.36	
Korea						0.64	0.65	0.65
Luxembourg	0.61	0.69	0.8	0.57	0.64	0.71	0.72	0.72
Mexico								
Netherlands	0.11	0.13	0.15	0.17	0.17	0.17	0.17	0.18
New Zealand		1	1.03	0.96	0.98	0.67	0.67	0.68
Norway						0.41	0.44	0.46
Poland	0.43	0.43	0.4	0.51	0.58	0.58	0.59	0.61
Portugal	0.49	0.48	0.55	0.67	0.79	0.91	0.94	0.98
Slovak Republic					0.36			
Spain				0.63	0.81	0.95	0.94	1.08
Sweden	0.48	0.49	0.59	0.67		0.73	0.73	
Switzerland	0.4		0.54		0.55			
Turkey	0.27	0.24	0.28	0.31	0.35		0.34	0.35
United Kingdom			0.58	0.63		0.65	0.68	
United States					0.75	0.78	0.8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8명으로 OECD 평균인 6.69 명과는 3.2배에 달하는 차이가 났다 특히, 간호사수가 가장 적은 나라인 그리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간호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노르웨이보다는 무려 7.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OECD국가의 인구 천 명 당 활동 간호사 수



〈표 4-6〉 OECD 국가의 활동 간호사 수

(단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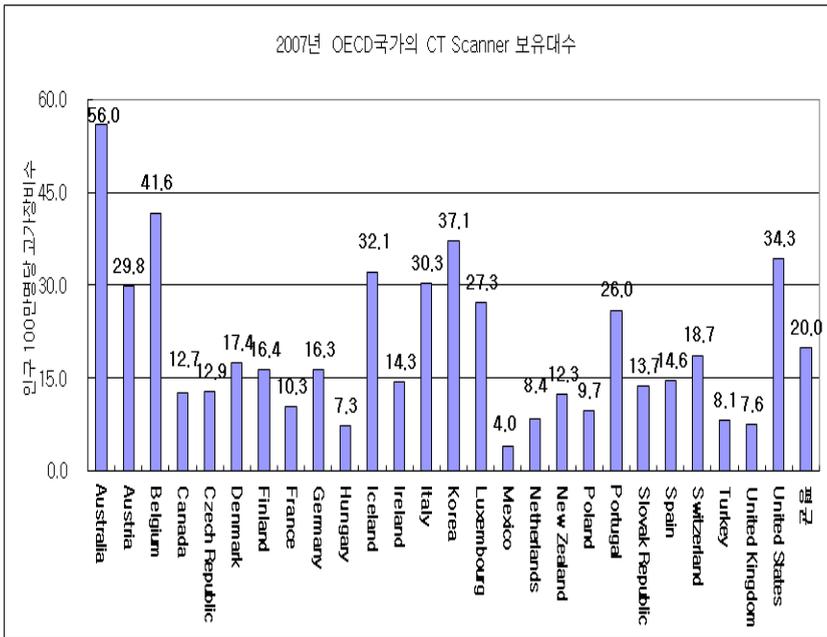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7.81	7.64		
Austria	2.94	3.52	4	5.06	5.7	5.99	6.13	6.2
Belgium								
Canada	6.33	7.52	8.09	8.13	7.75	6.78	6.84	6.96
Czech Republic						7.54	7.48	7.47
Denmark				8.55	9.33	9.66	9.53	
Finland								
France	4.63	5.32	5.43	5.94	6.73	7.69	7.88	7.73
Germany					7.3	7.59	7.7	7.77
Greece					1.29	1.59	1.64	
Hungary			4.18	4.21	3.77	4.47	4.72	4.52
Iceland	5.09	6.48	7.04	7.61	7.96	8.61	8.43	8.76
Ireland								
Italy								
Japan							6.35	
Korea				1.15	1.38	1.9	1.99	2.08
Luxembourg				1.65	1.66	2.33	2.34	
Mexico								
Netherlands						2.81	2.56	2.53
New Zealand					8.57	9.18	9.05	9.15
Norway					10.27	15.28	15.65	15.78
Poland	4.41	4.83	5.46	5.53	4.96	5.09	5.09	5.18
Portugal	2.26	2.46	2.8	3.41	3.68	4.57	4.83	5.11
Slovak Republic								
Spain				2.96	3.57	4.18	4.09	4.37
Sweden	7.02	8.67	9.17	9.66	9.92	10.69	10.83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7.03	8.14	8.05	8.1
United States	5.6	6.46	7.17	7.95	7.76	8	8.09	8.18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제3절 주요의료장비의 국제 비교

2008년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 실태조사 결과를 가장 최근자료인 OECD 국가(2006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100만 명당 37.1대로 2006년 통계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벨기에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국가보다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0.0대보다 거의 1.86배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OECD국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보유대수



〈표 4-7〉 OECD 국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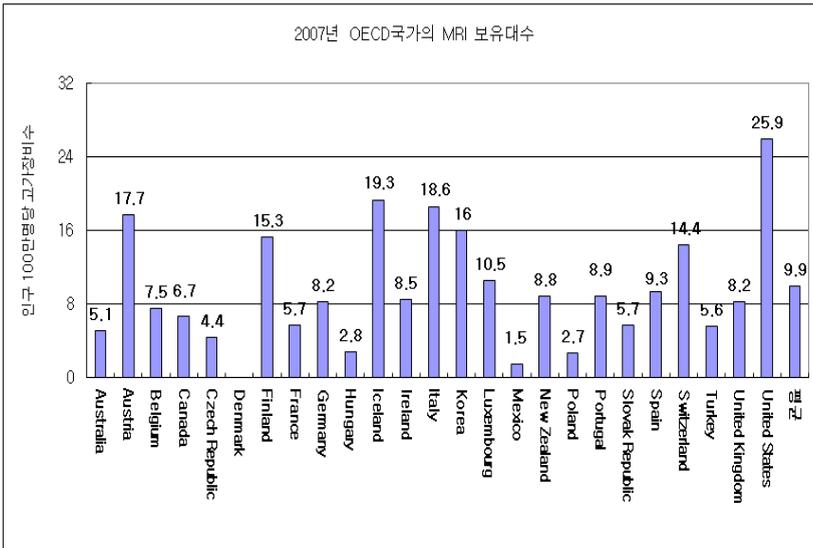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0.7	8.2	13.8	20.5	26.1	51	56	
Austria					25.8	29.6	29.8	29.8
Belgium			16.1		21.8	38.7	39.8	41.6
Canada			7.1	8		11.5	12	12.7
Czech Republic				6.7	9.6	12.3	13.1	12.9
Denmark	0.2	1.6	4.3	7.3	11.4	13.8	15.8	17.4
Finland	1.5	5.3	9.8	11.7	13.5	14.7	14.8	16.4
France		2.3	6.7	9.2	9.5	9.8	10	10.3
Germany				8.6	12.2	15.4	15.8	16.3
Greece	0.6	1.5	6.5			25.8		
Hungary	0.3	0.3	1.9	4.6	5.7	7.1	7.2	7.3
Iceland	0	8.3	11.8	18.7	21.3	23.7	26.3	32.1
Ireland			4.3			10.6	12.8	14.3
Italy			6		21	27.7	29.1	30.3
Japan			55.2					
Korea				15.5	28.4	32.3	33.7	37.1
Luxembourg	2.7	5.4	5.2	26.6	25.2	28.2	27.7	27.3
Mexico						3.3	3.4	4
Netherlands			7.3			8.2	8.4	
New Zealand			3.6		8.8			12.3
Norway								
Poland					4.4	7.9	9.2	9.7
Portugal			4.6			26.2	25.8	26
Slovak Republic						11.3	12.1	13.7
Spain				8.3	12	13.5	13.9	14.6
Sweden	1.9	4.9	10.5					
Switzerland					18.5	18.2	18.7	18.7
Turkey			1.6				7.8	8.1
United Kingdom					4.5	7.5	7.6	
United States							34	34.3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 당 16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9대보다 1.6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5.9대와 아일랜드 19.3대, 이탈리아 18.6대, 오스트리아 17.7대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OECD국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보유대수



〈표 4-8〉 OECD 국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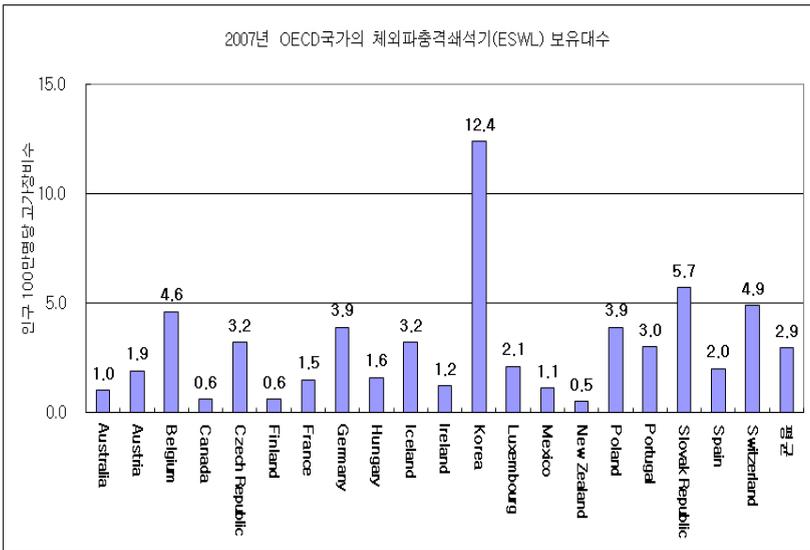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0.6	2.9	3.5	4.2	4.8	5.1
Austria					10.9	16.2	16.8	17.7
Belgium			2	3.3	6	7	7.1	7.5
Canada		0.2	0.7	1.4	2.5	5.7	6.2	6.7
Czech Republic				1	1.7	3.1	3.8	4.4
Denmark			2.5		5.4			
Finland		0.4	1.8	4.3	9.9	14.7	15.2	15.3
France			0.8	2.1	2.6	4.7	5.3	5.7
Germany				2.3	4.9	7.1	7.7	8.2
Greece			0.4			13.2		
Hungary		0.1	0.1	1	1.8	2.6	2.6	2.8
Iceland			3.9	7.5	10.7	20.3	19.7	19.3
Ireland							8	8.5
Italy			1.3		7.7	15	16.9	18.6
Japan			6.1			40.1		
Korea				3.9	5.4	12.1	13.6	16
Luxembourg			2.6	2.4	2.3	10.8	10.7	10.5
Mexico						1.3	1.4	1.5
Netherlands			0.9	3.9		6.6		
New Zealand								8.8
Norway								
Poland						2	1.9	2.7
Portugal			0.8				5.8	8.9
Slovak Republic						4.3	4.5	5.7
Spain				2.7	4.8	8.1	8.8	9.3
Sweden		0.2	1.5	6.8				
Switzerland					12.9	14.4	14	14.4
Turkey							3.5	5.6
United Kingdom					4.7	5.4	5.6	8.2
United States				12.3			26.5	25.9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 당 12.4 대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2.9대 보다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5.7대로서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여전히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심지어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 등 3개국이나 되었다.

[그림 4-9] OECD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보유대수



〈표 4-9〉 OECD 국가의 체외총격파쇄석기(ESWL)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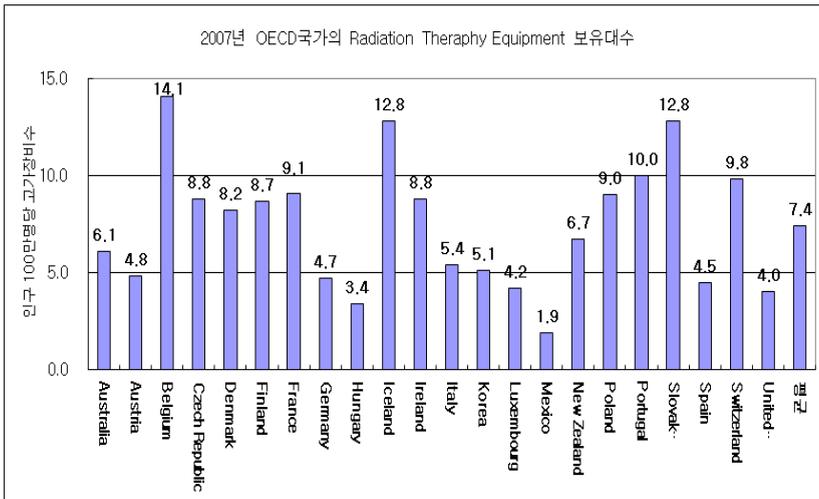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0.3	1	1.3	1.1	1	
Austria					1.7	1.9	1.9	1.9
Belgium					4.8	4.7	4.6	4.6
Canada		0	0.4	0.4		0.5	0.5	0.6
Czech Republic				2.4	2.8	3.1	3.3	3.2
Denmark								
Finland			0.2	0.2	0.4	0.4	0.6	0.6
France		0.1	0.7	0.8	0.9	0.8	1.2	1.5
Germany				1.9	3	3.7	3.8	3.9
Greece						1.4		
Hungary			0.3	0.7	0.9	1.1	1.1	1.6
Iceland					3.6	3.4	3.3	3.2
Ireland						1.7	1.7	1.2
Italy			1.7	2.4				
Japan			2.5			7.1		
Korea				3.5	4.4	9.2	10.7	12.4
Luxembourg				2.4	2.3	2.2	2.1	2.1
Mexico						1.3	1.2	1.1
Netherlands								
New Zealand								0.5
Norway								
Poland						3.3	3.5	3.9
Portugal						2.2	2.2	3
Slovak Republic						5.6	5.2	5.7
Spain				1.7	1.8	1.9	2.1	2
Sweden								
Switzerland					4.5	4.7	4.9	4.9
Turkey				0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출처: OECD(2009). HEALTH DATA.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 당 5.1대로 OECD 평균인 7.4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페인, 미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보유대수가 적은 나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5-10대 사이에 분포하였다.

[그림 4-10] OECD국가의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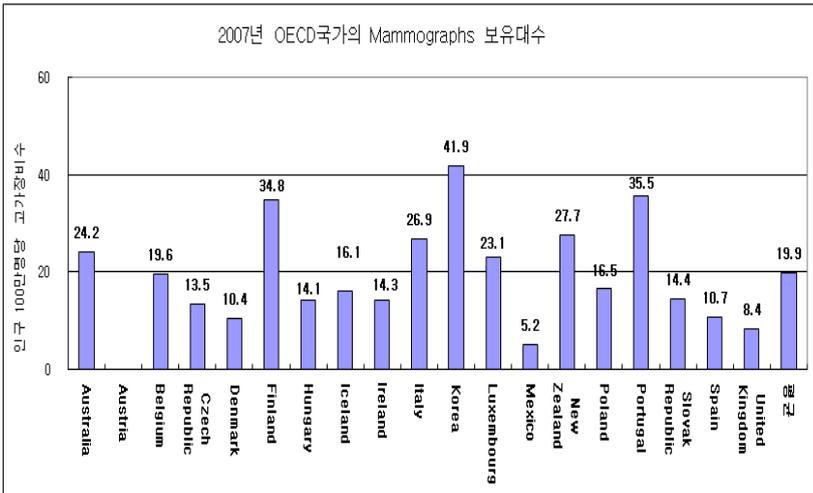
〈표 4-10〉 OECD 국가의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hy Equipment)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2.5	2.9	4.4	5.2	6	6.1	
Austria					4.2	4.6	4.8	4.8
Belgium				6.1	12.5	12.8	12.8	14.1
Canada				6.9				
Czech Republic				4.9	8.5	8.6	9	8.8
Denmark					5.4	6.8	7.7	8.2
Finland	11.3	10	10	8.6	8.7	8.8	8.9	8.7
France	5.7	5.9	6	6.2	6.1	14.9	8.9	9.1
Germany				4.5	4.8	4.7	4.7	4.7
Greece			5.4	5.7				
Hungary	0.7	1	1.5		2.3	2.7	2.8	3.4
Iceland	17.5	16.6	23.5	15	14.2	13.5	13.1	12.8
Ireland						7	8	8.8
Italy			1.3		3.7	5	5.2	5.4
Japan						6.8		
Korea				4.1	5.3	4.5	4.7	5.1
Luxembourg					4.6	4.3	4.3	4.2
Mexico						1.3	1.3	1.9
Netherlands				7.1				
New Zealand					9.9		6.7	
Norway								
Poland							7	9
Portugal						6	6.2	10
Slovak Republic						9.8	10.2	12.8
Spain				3.3	3.7	4.2	4.3	4.5
Sweden								
Switzerland					10.4	9.8	10.2	9.8
Turkey								
United Kingdom						4.1	4	4
United States								

출처: OECD(2009). HEALTH DATA.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41.9대로 2006년 통계를 제시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19.9대보다 2.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치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정도이고 나머지는 평균을 많이 밑돌았다 이것을 고려하면 단층촬영장치는 국가별 편차가 심하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4-11] OECD국가의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보유대수



〈표 4-11〉 OECD 국가의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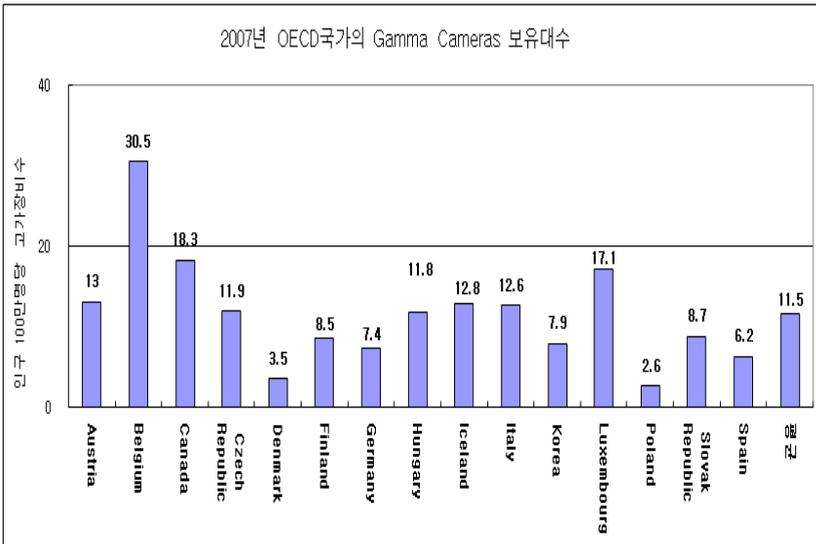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만 명 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25	24.4	24.2
Austria								
Belgium						20.6	19.4	19.6
Canada						21.3		
Czech Republic				8.4	10.6	14.1	14.3	13.5
Denmark						10	10.5	10.4
Finland			29.3	37.6		37.7	38.5	34.8
France	5.7		23.8	42	42.5			
Germany								
Greece						36.5		
Hungary					9.4	13.1	13.4	14.1
Iceland	4.4	4.1	15.7	18.7	17.8	16.9	16.4	16.1
Ireland						12.6	13.9	14.3
Italy								26.9
Japan								
Korea					13.3	28.8	34.1	41.9
Luxembourg				24.2	22.9	21.7	21.3	23.1
Mexico						4.5	5.1	5.2
Netherlands						3.9		
New Zealand								27.7
Norway								
Poland					11	15.9	15.3	16.5
Portugal						34.6	35.2	35.5
Slovak Republic						13.6	12.8	14.4
Spain							9.3	10.7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5	6.1	8.4	8.4	8.4
United States								

출처: OECD(2009). HEALTH DATA.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OECD국가의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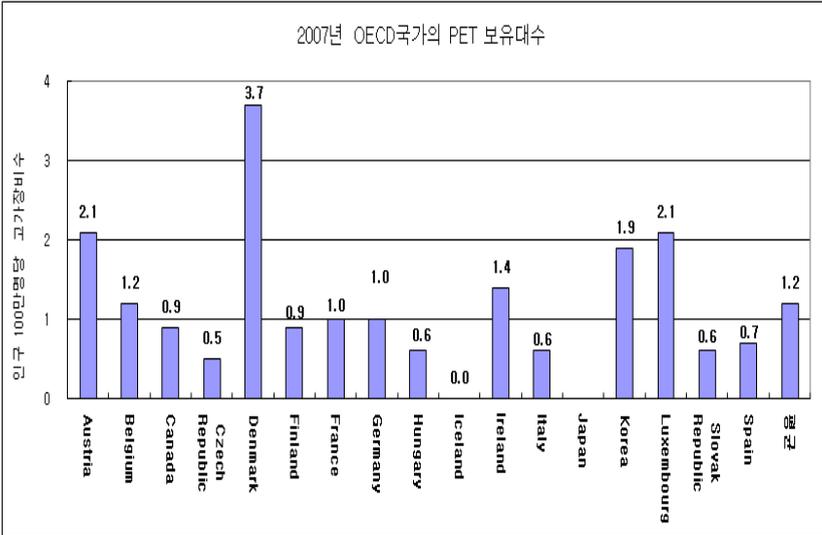
〈표 4-12〉 OECD 국가의 감마카메라(Gamma cameras)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 명 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Austria						13.4	13	
Belgium					28.5	32	30.8	30.5
Canada						19.3	18.8	18.3
Czech Republic					9.5	11.6	12.3	11.9
Denmark								3.5
Finland							8.5	
France								
Germany						7.4	7.4	7.4
Greece								
Hungary					8.2	10.2	10.7	11.8
Iceland					14.2	13.5	13.1	12.8
Ireland								
Italy					15.3	12.6	12.7	12.6
Japan						21.9		
Korea						5.7	5.9	7.9
Luxembourg					11.5	15.2	17.1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2.3	2.6	2.6
Portugal								
Slovak Republic					6.5	8.4	8.3	8.7
Spain				4.6	5.3	5.3	5.9	6.2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5.5					
United States								

출처: OECD(2009). HEALTH DATA.

[그림 4-13] OECD국가의 양전자단층촬영기(PET)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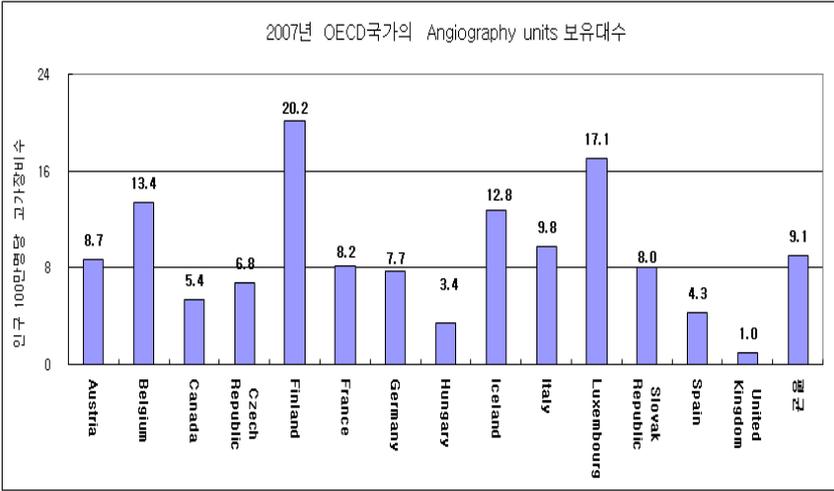
〈표 4-13〉 OECD 국가의 양전자단층촬영기(PET)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 명 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Austria						2.2	2.1	
Belgium						1.2	1.2	
Canada						0.6	0.8	0.9
Czech Republic					0.1	0.5	0.5	0.5
Denmark						4.1		3.7
Finland					0.4	1	0.9	
France						0.8	0.9	1
Germany					0.5	0.8	0.9	1
Greece								
Hungary					0.1	0.5	0.6	0.6
Iceland					0	0	0	0
Ireland								1.4
Italy								0.6
Japan						2.2		
Korea						0.7	1.3	1.9
Luxembourg					0	2.2	2.1	2.1
Mexico								
Netherlands						1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0.2	0.6	0.6	0.6
Spain							0.6	0.7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0.5		
United States								

출처: OECD(2009). HEALTH DATA.

[그림 4-14] OECD국가의 혈관조영장치(Angiography Units) 보유대수



〈표 4-14〉 OECD 국가의 혈관조영장치(Angiography Units)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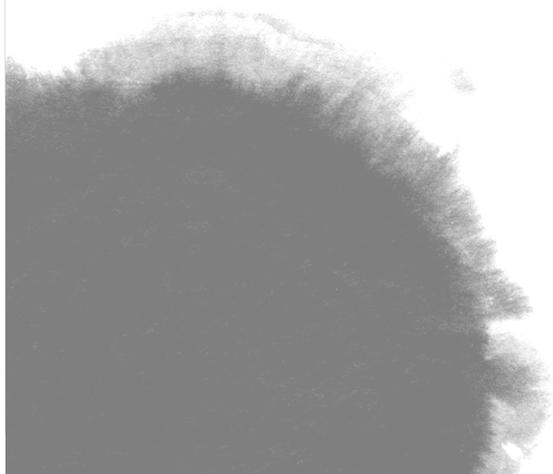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Australia								
Austria						8.7	8.7	
Belgium						14	13.8	13.4
Canada						5.5	5.4	5.4
Czech Republic					4.6	5.8	6.3	6.8
Denmark								
Finland								20.2
France						8	8	8.2
Germany						7.2	7.6	7.7
Greece								
Hungary					2.3	2.9	3.1	3.4
Iceland					14.2	13.5	13.1	12.8
Ireland								
Italy								9.8
Japan								
Korea								
Luxembourg					11.5	10.8	17.1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5.6	7.8	7.2	8
Spain					3.7	4.2	4.3	4.3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0.7	1
United States								

출처: OECD(2009). HEALTH DATA.

05

요약 및 정색 과제



제5장 요약 및 정책 과제

제1절 요약

1. 지역별 보건의료시설현황

가.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2008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16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고, 병원은 29,279개로 36.5%, 그리고 약국은 21,351개로 26.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과병원이 14,215개(17.7%), 한방병원 11,855개(14.8%), 보건기관은 3,461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4.5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원은 60.1개, 치과병원은 29.2개, 한방병원은 24.3개, 보건기관은 7.1개, 약국 43.8개로 조사되었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4.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였는데 137.0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6%와 19.8%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병원의 분포는 서울 7,351개, 경기도 5,889개, 부산 2,285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치과병원도 마찬가지로 서울 4,394개, 경기도 3,084개의 순으로 주로 수도

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3.2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50.7개로 조사되었다. 치과병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 당 서울이 43.8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과 경북으로 각각 19.7개소와 18.9개소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서울이 33.3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7개소로 나타났다.

나. 진료과 분포

병원에 개설된 진료과 종류는 내과, 소아과 등을 포함하여 26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119,335개이며, 그 중 내과가 19,545개로 16.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13,419개 (11.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 당 일차진료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는 77.2개였으며,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118.3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60.7개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는 전남지역이 인구 10만 명 당 1.4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부산지역이 0.5개로 가장 적었다.

치과병원의 진료과는 구강안면외과를 포함하여 11개로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98,117개이고, 이 중 서울에 29,799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전체에서 3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21,154개로 21.56%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50%이상 개설되어 있다. 한방병원의 진료과는 10개로 한방내과를 포함하여 전국에 개설된 총 진료과수는 총 94,148개이며, 이 중 서울에 26,531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으로 18,018개로 19.1%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47%정도가 개설되어 있다.

다. 지역별 병상분포

우리나라 총 입원병상은 448,604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79,515병상(17.7%)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이 다음으로 많은 68,955병상(15.4%)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인구대비 병상의 보유를 보면 전남이 인구 10만 명 당 1,4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인구 10만 명당 648개로 나타났다.

2.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가.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비상근 포함)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수는 총 81,324명이고, 치과의사는 20,474명, 한의사수는 15,564명이었으며, 간호직의 경우는 간호사가 총 124,025명, 간호조무사 115,981명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하여 32,071명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10만 명 당 주요 보건 의료 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66.8명, 치과의사 42.0명, 한의사 31.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의사는 서울이 2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전 196.4명, 대구 194.8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123.2명이었다. 한의사의 경우는 서울과 전북이 각각 41.4명과 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는 서울이 6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8.6 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만 명 당 지원 보건 의료 인력은 간호사 254.4명, 약사(병원 및 개업약사 포함) 65.8, 간호조무사 237.9명, 임상병리사 35.3명, 방사선사 35.7명, 물리치료사 43.6명, 작업치료사 4.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5.0명과 47.8명이었고, 인구 10만 명 당 의료 인력을 지역별로 보면 간호사의 경우 서울이 3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80.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부산이 3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75.0명으로 가장 적었다.

3. 지역별 보건의료장비 현황

가.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현황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중 혈관조영장치(ANGIO)는 402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334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7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10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851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679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1,567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254대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서울 219대, 경기 169대가 설치되어 전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장비 중 45.6%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서울에서 384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와 경남 순으로 각각 379대와 186대가 설치되어 있다. 양전자단층촬영기(PET)는 서울이 33대 경기지역에 15대가 설치되어 약 60%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체외충격파쇄석기(ESWL)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각각 140대, 138대로 나타났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58대, 55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 지역별 인구10만 명 당 고가의료장비 현황

인구 10만 명 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83대, 감마카메라(Gamma Camera) 0.69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16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4.3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75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40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3.22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2대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광주가 6.08대로 가장 많고 인천이 3.04대로 가장 적었으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전남 광주에서 2.49대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10대로 나타났다. 단층촬영장치는 전남 광주에서 5.32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역이 2.59대로 가장 적었으며,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제주지역이 0.92대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이 0.21대로 가장 적었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경남지역이 1.85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0.95대로 가장 적었다.

4.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자원 비교분석

가.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2007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7.1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6배와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8병상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보건의료인력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1.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3.1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1.8배정도 많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0.39명으로 멕시코, 터키,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평균은 0.62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1.59배 높았다. 약사 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0.65명으로 OECD국가평균인 0.76명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8명으로 OECD 평균인 6.69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요 의료장비 국제비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100만 명당 37.1대로 OECD 국가평균인 20.0대보다 거의 두 배정도 많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 당 16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9대보다 1.6배 정도 많았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 당 12.4대로 가장 많았고, OECD 평균보다는 4배 이상 많았다.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 당 5.1대로 OECD 평균인 7.4보다는 다소 낮았고,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41.9대로 OECD 평균인 19.9대보다 2.1배 이상 높았다.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 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았다.

제2절 정책 과제

1.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공급조절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7.1병상으로 2007년 OECD국가의 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그동안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기대로 인해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8병상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장비 적정공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 변화

5개의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들 중에서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에 대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

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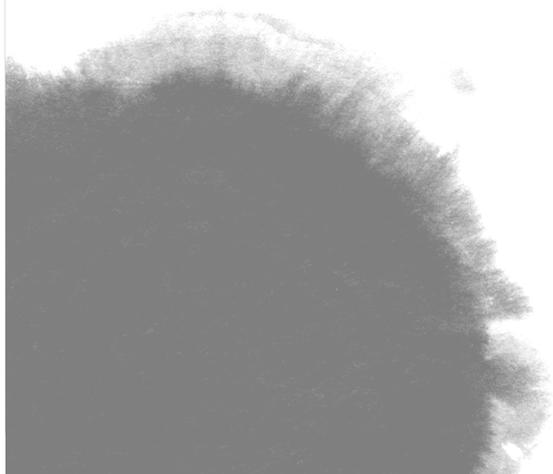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주도의 자유개업이 허용되고 있고 의료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주도인 시장 하에서는 단기적인 정책은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자원배분 정책에 있어서는 일차 진료 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 인력의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관련정책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 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규·김은주(1994). **진료권별 의료자원의 적정배분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모임(1987). **우리나라 보건전문인력의 현황, 수요 및 교육. 보건전문인력의 교육 방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pp.1-46.
- 문옥륜(1998).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연재집).
- 명재일 외(1992). **의료전달체계 운영평가와 진료권별 병상수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하청 외(1980).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생활권**, 한국개발연구원.
- 오영호 외(2002).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달선 외(1990). **입원의료 진료권별 자체 충족도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23권, 제3호
- Bergwall DF, Reeves PN, Woodside NB(1974). *Introduction to Health Planning*. Washington, D. C.: Information Resources Press, p.161.
- Bui Dang Ha Doan(1986 Sep.). Health Manpower Imbalances in the '90s: A Worldwide Panorama. Health Manpower out of Balance. XXth CIOMS conference, *Acapulco*, Mexico, 7-12, pp.77-86.
- CIOMS(1986 Sep.). Health Manpower Out of Balance: Conflicts and Prospects. XXth CIOMS Conference, *Acapulco*, Mexico, 7-12.

- Fulop T, Roemer MI(1987). Reviewing Health Manpower Development: A Method of Improving National Health System. *Public Health Papers* 83, Geneva, WHO.
- Gershon, S.K., Cultice, J.M., & Knapp, K.K., "How Many Pharmacists Are in Our Future"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s Projects Supply to 2020", *Journal of the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00, 40(6), pp.757-764.
- Netherlands Institute of Primary Health Care(1993). *Health Care and General Practice across Europe*.
- OECD(2006). *OECD Health Data*.
- OECD(2009). *OECD Health Data*.
- Petrou, S. and Wolstenholme, J.(2000). A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Healthcare Resource Allocation, *Pharmacoeconomics*, 18(1), pp.33-43.

부 록



[부록 1: 조사표]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2009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보건 의료기관
1) 의료기관 기본정보

구분		현황	
일련번호 ¹⁾		□□□□□ - [1] (자동부여) -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	
운영현황		정상운영/휴업/폐업(뒤쪽 휴폐업신고현황에 따라 자동입력)	
개원연월일		년 월 일	
종별	병의원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전문요양기관(3차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의원		
	치과병·의원 <input type="checkbox"/> ⑤ 치과병원 <input type="checkbox"/> ⑥ 치과의원		
	한방병·의원 <input type="checkbox"/> ⑦ 한방병원 <input type="checkbox"/> ⑧ 한의원		
	보건기관 <input type="checkbox"/> ⑨ 보건의료원 <input type="checkbox"/> ⑩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⑪ 보건지소 <input type="checkbox"/> ⑫ 보건진료소		
	특수병원 <input type="checkbox"/> ⑬ 결핵병원 <input type="checkbox"/> ⑭ 한센병원 <input type="checkbox"/> ⑮ 정신병원 <input type="checkbox"/> ⑯ 재활병원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⑰ 치매병원 <input type="checkbox"/> ⑱ 노인전문병원 <input type="checkbox"/> ⑲ 요양병원		
	기타 <input type="checkbox"/> ⑳ 부속의료기관 ²⁾ <input type="checkbox"/> ㉑ 조산원		
소재지	주소	주소검색으로 행정망코드 자동부여 나머지주소는 직접입력	
	전화번호	□□□ - □□□□ - □□□□	
면적 ³⁾	대지면적	(※ 1평 = 3.3㎡)	
	건물 연면적	일반시설	㎡ (※ 1평 = 3.3㎡)
		주차장	㎡ (※ 1평 = 3.3㎡)
개설자	개설자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번호)		
	면허종별	자격종별	전문과목 자동부여(별첨1)
	면허번호	6자리	자격번호 6자리
의료기관 유형	특수(전문)병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결핵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한센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재활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정신병원 <input type="checkbox"/> ⑤ 심장병원 <input type="checkbox"/> ⑥ 척추병원	
	응급의료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④ 지역응급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⑤ 지역응급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⑥ 비지정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국립 <input type="checkbox"/> ② 국립대학 <input type="checkbox"/> ③ 공립 <input type="checkbox"/> ④ 학교법인 <input type="checkbox"/> ⑤ 특수법인 <input type="checkbox"/> ⑥ 종교법인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⑧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⑨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⑩ 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⑪ 의료법인 <input type="checkbox"/> ⑫ 개인 <input type="checkbox"/> ⑬ 군병원 <input type="checkbox"/> ⑭ 기타()	
운영현황		<input type="checkbox"/> ① 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응급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개방병원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input type="checkbox"/> ⑥ 촉탁기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or 해당없음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의무기록 보관 및 이용형태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중의무기록 <input type="checkbox"/> 영상의무기록(영상화된 의무기록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진료시 이용하는 경우 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전자의무기록(EMR)	
	ocs운영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관할보건소 ⁴⁾			

- 주) 1) 일련번호는 행정망코드 및 보건의료기관구분(5자리 및 1자리 - 자동부여) + 의료기관 일련번호(5자리 - '00001'부터 시작, 보건소부여)
- 2) 부속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함. 대학부속병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 3)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면적을 말하며,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 의과대학, 강의를, 간호대학, 학생기숙사 등 교육관련 시설은 제외함
- 4) 정확한 의료기관 정보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관할보건소가 정확해야 함. 관할 보건소가 정확하게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주소를 확인한 후 잘못된 주소는 정확한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

2) 시설 및 진료지원부문

가. 진료과

진료과명	코드	진료과명	코드	진료과명	코드
일반의	<input type="checkbox"/> 00	마취통증의학과	<input type="checkbox"/> 09	병리과	<input type="checkbox"/> 18
내과	<input type="checkbox"/> 01	산부인과	<input type="checkbox"/> 10	진단검사의학과	<input type="checkbox"/> 19
신경과	<input type="checkbox"/> 02	소아청소년과	<input type="checkbox"/> 11	결핵과	<input type="checkbox"/> 20
정신과	<input type="checkbox"/> 03	안과	<input type="checkbox"/> 12	재활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1
외과	<input type="checkbox"/> 04	이비인후과	<input type="checkbox"/> 13	핵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2
정형외과	<input type="checkbox"/> 05	피부과	<input type="checkbox"/> 14	가정외과	<input type="checkbox"/> 23
신경외과	<input type="checkbox"/> 06	비뇨기과	<input type="checkbox"/> 15	응급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4
흉부외과	<input type="checkbox"/> 07	영상의학과	<input type="checkbox"/> 16	산업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5
성형외과	<input type="checkbox"/> 08	방사선종양학과	<input type="checkbox"/> 17	예방의학과	<input type="checkbox"/> 26
치과 일반	<input type="checkbox"/> 60	소아치과	<input type="checkbox"/> 53	구강악안면방사선과	<input type="checkbox"/> 57
구강악안면외과	<input type="checkbox"/> 50	치주과	<input type="checkbox"/> 54	구강병리과	<input type="checkbox"/> 58
치과보철과	<input type="checkbox"/> 51	치과보존과	<input type="checkbox"/> 55	예방치과	<input type="checkbox"/> 59
치과교정과	<input type="checkbox"/> 52	구강내과	<input type="checkbox"/> 56		
한방 일반	<input type="checkbox"/> 90	한방소아과	<input type="checkbox"/> 82	침구과	<input type="checkbox"/> 85
한방내과	<input type="checkbox"/> 8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	<input type="checkbox"/> 83	한방재활의학과	<input type="checkbox"/> 86
한방부인과	<input type="checkbox"/> 81	신경정신과	<input type="checkbox"/> 84	사상체질과	<input type="checkbox"/> 87
				한방응급	<input type="checkbox"/> 88

주) 복합진료과는 중복체크

나. 진료지원 시설 및 기타 시설 부문

구 분	시설수	시설별 총면적(m)
간호과		
영양과		
약제과(조제실)		
의무기록실(의무기록과)		
사회사업과		
의지 및 보조기 제작실		
중앙공급실		
혈액은행		
일반병실		
신생아실		
미숙아실		
전염병실		
격리병실		
수술실		
중환자실		
회복실		
분만실 ¹⁾		
응급실		
집중치료실		
무관치료실		
인공신장실		
조혈모세포치치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진료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실)		
한방용법실		
병리해부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처리시설		
자기발전시설		
구급자동차보유현황	특수	
	일반	
가족분만실(LDR)		
낮병동		
의료정보실(전산정보실)		
기타		

1) 가족분만실(LDR)을 제외한 일반 분만실

2) ‘과’는 ‘팀’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실’은 ‘센터’라 칭할 수 있음.

다. 병상 현황

구 분			병상수	
일반병상	입원실	기준병실		
		상급병실		
		LDR ¹⁾		
	중환자실 ²⁾	소아·신 생아	성인	
			병상	
			베시넷	
		인큐베이트 ³⁾		
	신생아실 (베시넷)			
	무균치료실			
	격리실			
소계		자동계산		
재활병상	-			
요양병상	-			
정신병상	-			
한방병상	-			
계		자동계산		

주: * 실제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환자의 요구시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침대 없이 온돌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전염병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병상, 폐쇄 조치된 병동내 병상은 제외됨

1) LDR은 진통, 분만 뿐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입원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입원실을 말함

2) 세부 구분이 없는 경우, 성인란에 기재

3) 별도의 신생아중환자실 없는 경우, 신생아실에 설치된 인큐베이트 수를 포함함

※ 병상구분

- “일반병상”이라 함은 주로 30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하는 것으로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의 병상을 포함한다.
 - 일반 입원실 병상 외에 1일(24시간) 이상의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병실 내 병상을 모두 포함함
 - 입원의료서비스 목적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인 경우, 재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일부 병상도 포함
 - 신생아실의 bassinets 및 incubator는 모두 포함
 -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외래진료실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병상은 제외
- “재활병상”이라 함은 주로 신체장애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입원의료서비스의 목적이 질병 회복과 재활로써 “일반병상”에서의 조기 퇴원환자 중 회복 치료 필요자가 해당
 - 병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재활병원 및 재활병동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재활병상”
- “요양병상”이라 함은 의료법제3조2항에 의한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제34조6항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기타 일반 의료기관내 요양병동에서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회복 불가능자 중 의료·간호·재활서비스를 요하는 장기 재원환자
 - 병원내 병상 또는 병동내 병상, 병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요양병동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요양병상”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대상 병상은 제외
 - 호스피스 병상 포함
 -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도 대상에 포함
- “정신병상”이라 함은 정신보건법제3조3항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주로 정신질환에 의한 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이 일반 병의원내 정신과를 포함함에 따라, 정신병원 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내 정신병상도 포함
 - 단, 병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신병원 및 정신병동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정신병상”
- “한방병상”이라 함은 의료법제3조2항에 의한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 일반병원내 한방진료부(과)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한방병상으로 인정
 - 한방병의원 및 한방병동내 설치된 “일반병상”은 모두 “한방병상”
- “기타병상”이라 함은 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병상을 제외한 병상

라. 입원실 현황

※ 기준병실 기준() 인실

구분	병실수	병상수	병실별 총면적
1인실 ¹⁾		자동계산	m ²
2인실		자동계산	m ²
3인실		자동계산	m ²
4인실		자동계산	m ²
5인실		자동계산	m ²
6인실		자동계산	m ²
7인실		자동계산	m ²
8인실		자동계산	m ²
9인실		자동계산	m ²
10인실		자동계산	m ²
11인실		자동계산	m ²
12인실		자동계산	m ²
기타		직접입력	m ²
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

주) *병실의 제반 여건에 관계없이 실제 병실에 설치된 병상수를 기준으로 함

1) 특실 등을 모두 포함함

3) 인력 현황

구 분		증사자수			구 분		증사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의사	일반의	상근 비상근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일반간호사	상근 비상근		
	인턴	상근 비상근					보건의료	상근 비상근		
	레지던트	상근 비상근					마취전문	상근 비상근		
	전문의	상근 비상근					정신전문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가정전문	상근 비상근		
치과 의사	일반의	상근 비상근					응급전문	상근 비상근		
	인턴	상근 비상근					산업전문	상근 비상근		
	레지던트	상근 비상근					노인전문	상근 비상근		
	전문의	상근 비상근					감염관리전문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호스피스전문	상근 비상근		
한의 사	일반의	상근 비상근					중환자전문	상근 비상근		
	일반수련의	상근 비상근					종양전문	상근 비상근		
	전문수련의	상근 비상근					임상전문	상근 비상근		
	전문의	상근 비상근					아동전문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치과기공사	상근 비상근		
약사	약사	상근 비상근			치과위생사	상근 비상근				
	한약사	상근 비상근			응급의료 기사	1급 2급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의무기록사	상근 비상근				
조산사	상근 비상근			안경사	상근 비상근					
간호조무사 (보조원)	상근 비상근			영양사	상근 비상근					
임상병리사	상근 비상근			조리사	상근 비상근					
방사선사	상근 비상근			사회복지사	상근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비상근			일반직 및 기타	상근 비상근					
작업치료사	상근 비상근			자원봉사자	상근 비상근					
의료정보(전산정보)	상근 비상근									

【기입요령】

- 정규직임시직, 상근자비상근자를 불문하고, 귀 보건의료기관 소속으로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인원수(위탁업체 종사자 포함)를 기입
- 근로형태 구분
 - 상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통산 45일 이상 근로한 인력
 - 비상근: 위의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

【가입요령】

1. 정규직·임시직, 상근자·비상근자를 불문하고, 귀 보건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료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력가입
2.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 가입함.
3. '면허종별'란에는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 5. 간호사 6. 임상병리사
 7. 방사선사 8. 물리치료사 9. 작업치료사 10. 치과기공사 11. 치과위생사 12. 응급구조사 (1,2급)
 13. 간호조무사 14. 의무기록사 15. 안경사 16. 조산사 17. 영양사
 18. 사회복지사 19. 건강보험담당 20. 원무담당 21. 간호보조원 22. 기타
 중 해당사항을 번호로 기입. (시스템을 이용한 입력시에는 코드번호가 아닌 항목명으로 입력)
4. '구분'란에는 면허종별이

의사, 치과의사 : 1. 전문의 2. 레지던트 3. 인턴 4. 일반의

한의사 : 1. 일반의 2. 일반수련의 3. 전문수련의 4. 전문의

약사 : 1. 약사 2. 한약사

간호사 : 1. 일반간호사 2. 보건전문간호사 3. 마취전문간호사 4. 정신전문간호사

5. 가정전문간호사 6. 응급전문간호사 7. 산업전문간호사 8. 노인전문간호사

9. 강령전문간호사 10. 호스피스전문간호사 11. 중환자전문간호사 12. 종양전문간호사

13. 임상전문간호사 14. 아동전문간호사 중 해당사항을 번호로 기입.

(시스템을 이용한 입력시에는 코드번호가 아닌 항목명으로 입력)
5. '전문과'란에는 면허종별이

의사 : 1.내과 2.소아청소년과 3.신경과 4.정신과 5.피부과 6.외과 7.흉부외과 8.정형외과

9.신경외과 10.성형외과 11.산부인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비뇨기과 15.결핵과

16.재활의학과 17.마취통증의학과 18.영상의학과 19.방사선종양학과 20.진단검사의학과

21.병리과 22.가정의학과 23.응급의학과 24.핵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치과의사 : 1. 구강악안면외과 2. 치과보철과 3. 치과교정과 4. 소아치과 5. 치주과

6. 치과보존과 7. 구강내과 8. 구강악안면방사선과 9. 구강병리과 10. 예방치과

한의사 : 1. 한방내과 2. 한방부인과 3. 한방소아과 4. 한방안·이비인후과 5. 한방신경정신과

6. 침구과 7. 한방재활의학과 8. 사상체질과 9. 한방응급 중에서 해당사항을 번호로 기입.

(시스템을 이용한 입력시에는 코드번호가 아닌 항목명으로 입력)
6. '주민번호'란은 의료인력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7. '성별'란은 남자는 1, 여자는 2 를 기입. (시스템을 이용한 입력시에는 코드번호가 아닌 항목명으로 입력)
8. '전문이자격번호'에서 2가지 이상의 전문이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된 1가지만을 기입.
9. '상근직'란에는 상근은 1, 비상근은 2 를 기입.

(시스템을 이용한 입력시에는 코드번호가 아닌 항목명으로 입력)

 - ① 상 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통산 45일 이상 근로한 인력
 - ② 비상근: 위의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
10. '발령일자'란은 의료인력별 귀 보건의료기관 발령일자(연.월.일)를 기입

4) 장비 현황

※ 2009년 조사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수량을 기재

(검사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	Urine Analyzer		28	자기청력계기		55	Nephelometer	
2	분광광도계(Spectro Photometer)		29	임피던스청력계기		56	기립경사테이블 (Tilt Table)	
3	자동혈구계산기(Automatic Cell Counter)		30	관절경(Arthroscope)		57	지각계	
4	Hct 원심분리기		31	자보현수후두경(Suspension Laryngoscope)		58	Scheimplug Camera	
5	혈액화학자동분석기		32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59	안내형광분석기	
6	전해질분석기		33	기관지경(Bronchoscope)		60	위전도기기	
7	칼슘분석기		34	흉강경, 종격동경		61	삭제	
8	혈중가스분석기		35	식도경(Esophagoscope)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9	자동혈액응고기(Automatic Coagulyzer)		36	위경(Gastro(fiber)scope)		63	이내시경	
10	CO-Oximeter		37	십이지장경(Duodenscope)		64	자궁경부확대촬영기(Cervicoscope)	
11	전기영동기(Electrophoresis)		38	담도경(Choledochoscope)		65	요관경(Ureteroscopy)	
12	Flow Cytometer		39	대장경(Colonscope)		66	Mapping장비	
13	ELISA Process		40	직장경(Rectoscopy)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14	형광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e)		41	S상결장경		68	뇌유발전위검사기(EP)	
15	동결절편기		42	복강경(Laparoscope)		69	의료용광도계	
16	Drug Monitoring System		43	골반경(Culdoscope)		70	요류역학검사기	
17	Gamma-Counter		44	자궁경(Hysteroscope)		71	방광내입(요관계통)측정기	
18	근전도검사장비(EMG)		45	질확대경(Colposcope)		72	전기안진검사기	
19	호흡기능검사장비(Spirometer)		46	방광경(Cystoscope)		73	이음형방사검사기	
20	심전도기(EKG)		47	요도경(Urethroscope)		74	형광안저촬영기	
21	EKG Monitor		48	초음파영상진단기		75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22	Holter Monitor		49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76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23	뇌파검사기(EEG,아날로그)		50	조직형(HLA Typing)검사용		77	각막지형도	
24	뇌파검사기(EEG,디지털)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78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25	EMG & EP		52	질량분석기(Isotope Radio Mass Spectrometer)			검사장비기타	
26	안저카메라		53	비기압계(Rhinomanometer)				
27	순음청력계기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 기타 위 장비 이외에 필요시 추가할 것

(방사선진단및치료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71	X-Ray 촬영 장치		82	Scan용 Gamma Camera		93	골밀도검사기	
72	X-Ray 촬영 · 투시장치		83	Spect용 Gamma Camera		94	원자흡광광도기	
73	혈관조영장치 (Single)		84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기(Spect)		95	혈액 방사선조사기	
74	혈관조영장치(Bi-plane)		85	방사성동위원소 (Scanner)		96	양전자단층촬영기(PET)	
75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86	CT scanner (두 부 용)		9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76	C - Arm 형 장 치		87	CT scanner (전 신 용)		98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77	Tomography		88	M · R · I 장 비		99	양방사선(광자)골밀도 검사기	
78	Mammography		89	코 발 트 치 료 기		100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79	영상촬영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90	선형가속치료장치(Linear Accelerator)		101	의료영상상출력기	
80	치과용방사선장치		91	후장전치료장치(After Loading System)			기 타	
81	치과근관장축정기		92	이리디움치료기				

(이학요법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11	보 행 풀		124	Laser 치료기		137	S S P	
112	전 신 풀		125	표층열치료기(TDP, Hot pack)		138	운 동 기 구	
113	Whirl Pool Bath (수족치용)		126	적외선치료기 (Infra Red)		139	냉 동 치 료 기	
114	Whirl Pool Bath (전 신 용)		127	적외선체열 진단기		140	대 조 욕 (Contrast Bath)	
115	Hubbard Tank		128	초음파치료기(Ultra Sound, Micro Wave)		141	등속성운동치료기 (Isokinetic)	
116	간헐적전인장치		129	초 단 파 치 료 기		142	파동형공기압치료기	
117	전자자극치료기 (EST)		130	극 초 단 파 치 료 기		143	Fluidotherapy Unit	
118	저주파치료기 (TENS)		131	증 기 욕		144	미이식형전기배뇨역제기(자기장)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132	자 외 선 치 료 기		145	미이식형전기배뇨역제기(전기)	
120	피부광화학치료기		133	정 규 욕 조		146	Nanocure	
121	Phototherapy Unit		134	파 라 핀 욕		147	Iontophoresis	
122	간헐적양압흡입기		135	F E S 장 비		148	기능적연하장애건기자극기	
123	보 욕 기		136	E D I T			이학요법장비 기타	

(수술 및 처치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51	전 신 마 취 기		159	대동맥폐문선립포기(LARP System)		167	인 공 신 장 기	
152	인공호흡기 (Volume)		160	Pheresis 기		168	조혈모세포냉동기	
153	인공호흡기(Pressure)		161	Cryosurgery Unit		169	Nebulizer	
154	Resuscitator		162	Laser 수 술 장 비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155	고압산소치료기		163	수술용현미경(Operating Microscope)		171	Liquid Nitrogen Storage Tank	
156	Oxygen tent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172	엑시머레이저	
157	Defibrillator		165	온열암치료기(Hyperthermia System)		173	아르곤레이저	
158	인 공 심 폐 기		166	뇌종양치료기 (Gamma Knife)			수술 및 처치장비 기타	

(한방장비)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81	양 도 락		187	적외선체열진단기		193	견 인 장 치	
182	맥 전 도		188	색 채 요 법 기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183	전 기 침 시 술 기		189	체 성분 분석 기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184	레이저침시술기		190	맥 파 기		196	혈맥레이저침시술기	
185	전 자 침 시 술 기		191	가 속 도 맥 파 기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186	경락기능검사기		192	추 나 치 료 대		198	한방장비 기타	

* 기타 위 장비 이외에 필요시 추가할 것

장비별 형식 및 규격 번호

번호	장비명	형식 및 규격 번호	내역	수량
23	뇌파검사기 (EEG)	23-1	EEG 아날로그(18채널 이상)	
		23-2	EEG 아날로그(18채널 미만)	
		23-3	Video EEG 64채널 이상	
		23-4	Video EEG 64채널 미만	
		23-5	EEG 디지털(18채널 이상)	
		23-6	EEG 디지털(18채널 미만)	
79	치과용 방사선장치	79-1	치과용방사선장치(일반)	
		79-2	치과용방사선장치(디지털)	
80	치과방사선 파노라마장치	80-1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일반)	
		80-2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디지털)	
93	골밀도검사기	93-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 (QCT or PQCT)	
		93-3	단광자 골밀도 측정기 (SPA)	
		93-4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측정기(PDEXA)	
		93-5	단에너지 골밀도 측정기(SXA)	
		93-6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QUS)	
		93-7	방사선 흡수 측정기	
		93-8	기타	
77	단층촬영장치	77-1	단층촬영(Tomography)	
		77-3	유방(Mammography)	
165	온열암치료기 (Hyperthermia System)	165-1	Prostron	
		165-2	Prostalase	
		165-3	ND Yag Laser	
		165-4	Diode Laser	
		165-5	TUNA	
		165-6	Thermex I	
		165-7	Thermex II	
		165-8	Microfocus	
		165-9	Prostacare	
		165-10	Proststhermer	
		165-11	Primus	
		165-12	BSD50	
166	뇌종양치료기	166-1	감마나이프(GammaKnife)	
		166-2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5) 진료실적 현황

※ 연간 총진료실적에 한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기준연도: 년)

급여종류	외래환자 연환자수 (총방문횟수)	입원환자수(DRG 포함)											
		실환자수					연환자수(총재원일수)						
		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	계	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	계
1. 건강보험							자						자
2. 의료급여							동						동
3. 산재보험							계						계
4. 자동차보험							산						산
5. 일반 및 기타							”						”
합 계	자	동	계	산	자	동	계	산	자	동	계	산	자

- 주: 1. 입원실인원은 기간 중 실제 입원수속하고 병실에 입원한 환자수를 기재함
 2. 입원연인원은 입원환자 총재원일수를 기재하며, 단입법으로 계산. 예를 들어 7월1일 입원, 7월3일 퇴원의 경우 입원연인원은 총 2일
 3. 입원환자에는 DRG환자를 포함
 4. 입원환자 구분은 각 병상에 재원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일반병상에 재원한 환자는 '일반'란에 기재하고 재활병상에 재원환자는 '재활'란에 기재. 재원도중 별도의 퇴원조치없이 병상을 바꾼 경우, 나누어서 산정. 예를 들어 홍길동이 7월1일 일반병상 입원하여 7월7일 재활병상으로 전환하여 7월10일 퇴원한 경우, 실환자수 일반 및 재활 각1명, 총재원일수 일반 6일, 재활 3일로 산정
 5.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외래진료실 등의 재원환자는 포함하지 않음
 6.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자수는 포함하지 않음
 7. 신생아는 산모와 별도로 계산. 예를 들어 산모가 7월1일 입원하여 7월2일 분만하고 7월4일 퇴원하였을 경우, 입원실인원은 2명, 연인원은 산모 3일, 신생아 2일로 계산
 8. 급여종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개인당 급여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일반 및 기타는 전액 자비 등 상기 4대 보험 이외의 환자를 말함

■ 의료인력당 진료실적 (자동 집계창)

구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의료인력당 진료실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인 ※외래환자3인은 입원환자1인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인 ※외래환자12인은 입원환자1인

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는 각각의 연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임

6) 휴·폐업·재개업 신고

연번	신청 날짜	구분	휴·폐업·재개업 날짜/기간 ※기간은 휴업일 경우만	진료기록부 보관장소 및 책임자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7) 의료기관 행정처분사항 정보

연번	날짜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구분에 따라 다른 차이 있음)	사유(근거법령)	비고
		①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②의료기관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⑭자격정지 10월 ①허가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 업무정지 15일 ⑤업무정지 1월 ⑥ 업무정지 2월 ⑦업무정지 3월	법/영 ()조 ()항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안에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①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②의료기관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⑭자격정지 10월 ①허가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 업무정지 15일 ⑤업무정지 1월 ⑥ 업무정지 2월 ⑦업무정지 3월	법/영 ()조 ()항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안에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2. 약국

1) 약국 기본정보

구 분		현 황
일련번호 ¹⁾		□□□□□ - ③ (자동부여)- □□□□□
약국명		
건강보험 요양기관번호		□□□□□□□□
운영현황		정상운영/휴업/폐업(뒤쪽 휴폐업신고현황에 따라 자동입력)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주 소		주소검색으로 행정망코드 자동부여
		나머지주소는 직접입력
전화번호		□□□ - □□□□ - □□□□
면 적 ²⁾	계 약 면적	m ² (* 1평 = 3.3m ²)
	사 용 면적	m ² (* 1평 = 3.3m ²)
입지위치		<input type="checkbox"/> 지하 <input type="checkbox"/> 1층 <input type="checkbox"/> 2층이상
개설자	개 설 지명	
	주 민 번호	
	면 허 번호	6자리

주) 1) 일련번호는 행정동코드 및 보건의료기관구분(5자리 및 1자리 - 자동부여) + 약국 일련번호(5자리 - '00001'부터 시작, 보건소부여)

2)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전체면적을 말함

2) 인력 현황

※시행원년 일괄 입력 이후에는 신규 및 퇴직, 휴직 인력만 업데이트 함(정상근무 인력은 추가 입력 필요없음)

가. 약사 현황

성명	면허번호	주민번호	발령일자	근무현황	구분
	6자리			①신규·정상근무 ②퇴직 ③휴직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6자리			①신규·정상근무 ②퇴직 ③휴직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나. 기타 인력

구분	인원(명)			
	상근	기간제	시간제	외주
약국종업원(전산원 등)				
기타()				

3) 약제 장비 현황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1	자동분포기		5	약병투 또는 투약라벨 작상기		9	집산기(Dust Collector)	
2	자동분쇄기		6	투약기(Medication Cart)		10	수제대	
3	정제계수기		7	무균조제대(Clean Bench)				
4	자동정제조제기(ATC)		8	조제약 배송시설(Conveyor)				

4) 조제실적현황

※ 연간 총조제실적(조제건수)에 한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기준연도 : 년)

급여종류	조제실적	
	조제건수	약제비(약값+조제수가)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일반맞기타		
6. 일반매약 (처방전 외)		
합 계		

■ 약사인력당 조제실적 (자동 집계창)

구분	총 조제건수	총 약사수	약사 당 조제건수
약사인력 당 조제실적			

5)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

연번	신청 날짜	구분	휴 · 폐업 · 재개업 날짜/기간 ※기간은 휴업일 경우만	비고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①휴업 ②폐업 ③재개업		

6) 약국 행정처분사항 정보

연 번	날 짜	행정처분 구분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구분에 따라 다른 차이 됨)	사유(근거법령)	비고
		①약사 ②약국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⑩자격정지 12월 ①등록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 업무정지 3일 ⑤ 업무정지 7일 ⑥ 업무정지 15일 ⑦ 업무정지 1월 ⑧ 업무정지 3월 ⑨ 업무정지 6월 ⑩ 업무정지 7월 ⑪ 업무정지 10월	법/영 ()조 ()항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안에 직접입력	※ 직접입력
		①약사 ②약국	①면허취소 ②경고 ③자격정지 7일 ④자격정지 15일 ⑤자격정지 1월 ⑥자격정지 2월 ~ ⑩자격정지 12월 ①등록취소 또는 폐쇄 ②경고 ③시정명령 ④ 업무정지 3일 ⑤ 업무정지 7일 ⑥ 업무정지 15일 ⑦ 업무정지 1월 ⑧ 업무정지 3월 ⑨ 업무정지 6월 ⑩ 업무정지 7월 ⑪ 업무정지 10월	법/영 ()조 ()항 ()호 ※법/영은 선택, 나머지는 괄호안에 직접입력	※ 직접입력

조사관리자

시·도 담당자:

시도	담당자
서울	백일선
부산	송정동
대구	장금주
인천	정숙이
광주	임진석
대전	송진만
울산	장오석
경기	홍장선
강원	최순열
충북	김대근
충남	박종규
전북	박경자
전남	이미경
경북	이인수
경남	이광주
제주	좌길호

보건소 담당자:

시도	보건소	담당자
서울시	강남구	이상희
	강동구	김은희
	강북구	엄용희
	강서구	민수정
	관악구	백현정
	광진구	김진우
	구로구	황인숙
	금천구	이철명
	노원구	김숙련
	도봉구	서재룡

시도	보건소	담당자
	동대문구	이계웅
	동작구	김경연
	마포구	김양희
	서대문구	최용진
	서초구	심미희
	성동구	홍기정
	성북구	이승찬
	송파구	박해경
	양천구	김일구
	영등포구	이종용
	용산구	조은아
	은평구	장진호
	종로구	김하영
	중구	박신향
부산시	중랑구	유경숙
	강서구	박상건
	금정구	이경자
	기장군	정주현
	남구	곽신철
	동구	소의수
	동래구	성한일
	부산진구	서영기
	북구	천동훈
	사상구	윤희순
대구시	사하구	정은정
	서구	신한식
	수영구	정진산
	연제구	안부호
	영도구	김기문
	중구	고제현
	해운대구	이정원
	남구	전중술
	달서구	정영범
	달성군	윤숙연
대구시	동구	홍창환
	북구	장돈호
	서구	배정대
	수성구	이재기

시도	보건소	담당자
인천시	중구	신동선
	강화군	김순천
	계양구	오세주
	남구	임영근
	남동구	이남현
	동구	이세연
	부평구	김미선
	서구	이정화
	연수구	박중임
	옹진군	한재환
광주시	중구	전영식
	광산구	정 경
	남구	정우성
	동구	김연심
	북구	강태규
대전시	서구	이정동
	대덕구	박영우
	동구	이성훈
	서구	정구자
	유성구	이인숙
울산시	중구	권효숙
	남구	정연우
	동구	정화유
	북구	강정숙
	울주군	김장수
경기도	중구	김병훈
	가평군	윤희준
	고양시	김규완
	고양시	심재철
	고양시	김형식
	과천시	김익환
	광명시	차종환
	광주시	전지원
	구리시	박정숙
	군포시	정옥선
	김포시	김지영
	남양주시	박 승
	동두천시	신에란

시도	보건소	담당자
	부천시	송정원
	부천시	김태완
	부천시	정찬식
	성남시	임진희
	성남시	최봉길
	성남시	김성태
	수원시	홍경표
	수원시	윤병삼
	수원시	공현숙
	수원시	김택수
	시흥시	오혜경
	시흥시	박세라
	안산시	이영순
	안산시	정영란
	안성시	정연규
	안양시	전지선
	안양시	김경자
	양주시	목호균
	양평군	최현옥
	여주군	문미숙
	연천군	임영국
	오산시	유혜진
	용인시	김정금
	용인시	김복란
	용인시	김옥연
	의왕시	김미자
	의정부시	현지연
	이천시	이명숙
	과주시	백부용
	평택시	장금숙
	평택시	유용국
	포천시	서애란
	하남시	김윤아
	화성시	이미연
강원도	강릉시	강광구
	고성군	탁순화
	동해시	김진문
	삼척시	장승삼

시도	보건소	담당자
	속초시	정성수
	양구군	장범익
	양양군	전선주
	영월군	신학수
	원주시	정명순
	인제군	김종찬
	정선군	신애정
	철원군	김경복
	춘천시	심영희
	태백시	지명선
	평창군	김경순
	홍천군	고성현
	화천군	반완수
	횡성군	박영민
충청북도	괴산군	윤태곤
	단양군	김용구
	보은군	김기혜
	영동군	유경상
	옥천군	심선보
	음성군	신문호
	제천시	이상업
	증평군	배금희
	진천군	김순성
	청원군	이환호
	청주시	이혜신
	청주시	김학중
	충주시	엄태희
충청남도	계룡시	박연성
	공주시	백인희
	금산군	차용철
	논산시	임금순
	당진군	정도환
	보령시	최종경
	부여군	이선희
	서산시	김정식
	서천군	이순영
	아산시	민승자
	연기군	김혜숙

시도	보건소	담당자
전라북도	예산군	김치환
	천안시	박영임
	청양군	허경선
	태안군	송종진
	홍성군	최유수
	고창군	전기홍
	군산시	나정심
	김제시	장은주
	남원시	이미경
	무주군	김은영
	부안군	라보영
	순창군	곽태용
	완주군	김영수
	익산시	최미숙
전라남도	임실군	신경이
	장수군	김선기
	전주시	라희재
	정읍시	김형순
	진안군	유종진
	강진군	최홍례
	고흥군	김영옥
	곡성군	김효순
	광양시	황영숙
	구례군	정정옥
	나주시	장옥수
	담양군	유성임
	목포시	김연주
	무안군	임천우
보성군	정현숙	
순천시	차승훈	
신안군	강정희	
여수시	이재상	
영광군	김종구	
영암군	최문형	
완도군	배정남	
장성군	신열호	
장흥군	박은애	
진도군	서용우	

시도	보건소	담당자
경상북도	함평군	이안립
	해남군	주형천
	화순군	천명경
	경산시	황혜숙
	경주시	김철화
	고령군	김건순
	구미시	정영식
	구미시	임종현
	군위군	이영숙
	김천시	윤현숙
	문경시	정선교
	봉화군	박정호
	상주시	김근우
	성주군	윤재형
	안동시	배용범
	영덕군	송병욱
	영양군	배재수
	영주시	박철환
	영천시	이희열
	예천군	장성식
울릉군	김명자	
울진군	이주일	
의성군	권기백	
청도군	조승욱	
청송군	서태환	
칠곡군	김운태	
포항시	이귀란	
포항시	류병욱	
경상남도	거제시	송영호
	거창군	백봉재
	고성군	김영순
	김해시	문창곤
	남해군	김민주
	마산시	김정숙
	밀양시	김재련
	사천시	황옥순
산청군	권영채	
양산시	정인화	

시도	보건소	담당자
	의령군	김윤숙
	진주시	김준곤
	진해시	김영숙
	창녕군	권규나
	창원시	종민
	통영시	문정술
	하동군	진학
	함안군	옥행자
	함양군	김익수
	합천군	이혜정
제주도	서귀포시	김영철
	서귀포시	김신혁
	서귀포시	성미선
	제주시	김계홍
	제주시	고민경
	제주시	김탁근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ocial Affairs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미정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증축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입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미정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미정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정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미정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2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정부 새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지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미정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미정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과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용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